#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0월 11일 수요일(주간) 제 289 호


금주 법구

제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한 것과
같음을 알았사오니, 이는 마치
말로만 음식을 말하고 먹지 않으면
결코 배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능엄경-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의 모든 것
책임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 자기를 바로 봅시다



서울 모사찰에서 만난 박영순보살(47세)에게 불교문화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석굴암, 팔만대장경, 불상, 불화, 단청, 영산재…."

이어서 가장 최근에 불교관련 전시회나 공연을 감상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입시를 앞둔 자식녀석 때문에 불교문화같은 데 솔직히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사실 박보살의 대답은 대다수 불자들의 오늘을 그대로 반영한다. 각종 전시와 행사들이 집중해 있는 서울 조계사와 인사동

## 불교문화

### 유물·유적 전시위주 행사 '찾아가는 문화프로' 필요

인근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이나 미술과 음악, 연극 등 불교문화에 관심있는 일부 불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불자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최적의 문화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사찰에서 조차 불자들을 위한 문화행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불교문화에 대해 무지할 수 밖에 없다. 불교문화는 정형화된 형태로가 아니라 생활속에서 불자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그를 통해 불법의 진리를 삶의 원리로 승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유 무형의 불교문화는 단순한 유물이나 문화적 결과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으뜸가, 산사음악회, 각종 전시와 공연 등 지난 몇 년 사이 불교 문화행사는 양적인 면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불자들은 문화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등 문화예술관련기관과 민간단체 30곳이 참가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불교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좋은 예다. 농어촌과 벽지, 공단 지역 등 문화 소외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에만 전국에서 134개 프로그램이 830회나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불교 문화프로그램으로불자와 일반 대중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을 찾아가자. 가서 불교문화를 펼쳐 보이자. 내용적인 면에서야 첫 술에 배부르랴만 미술전시, 음악공연, 시낭송회 등 소규모 행사에서부터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자연스레 불교문화와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불교문화는 차츰 성숙해져 갈 것이다.

이은지 기자(ejlee@buddhapia.com)

# 한국불교 중심 '조계사' 광화문 문화벨트 제외

## 서울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서도 빠져

서울시가 추진중인 광화문 문화벨트와 역사탐방로 사업에 조계사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광화문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서우고 준비중인 '광화문 문화벨트'의 경우 세종로를 중심으로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인사동 가회동 등 5개권역을 시티투어(City Tour)로 연결,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또 외국인과 시민들이 걷고싶은 거리, 찾고싶은 거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4대문안 역사문화 탐방로의 경우도 인사동, 북촌길, 경복궁길, 고궁길, 대학로, 명동길, 정동길, 남산길이 채택돼 정비되고 있다.

하지만 각 권역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조계사의 경우 한국불교의 중심지이며 하루 300여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벨트에서 제외한 서울시 행정에 의혹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천주교의 중심지인 명동성당이 역사탐방로로 지정돼 도로 포장과 가로시설물, 조명시설물, 유적설명 안내판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조계사 이세용 교무계장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광화문 문화벨트에 역사적 가치가 높은 조계사가 빠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당혹감을 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사는 지난해부터 주지 지홍스님 주재로 몇 차례 종무회의를 갖고 자체적으로 광화문과 인사동 조계사를 연결하는 문화벨트를 추진했었다. 그 일환으로 '열린조계사' '시민과 함께하는 조계사'를 기치로 내걸고 '전통가람을 복원한다'는 계획아래 경내 정비, 대웅전과 탱화 보수까지 마쳤다.

또 외국인안내소를 설치하고 2명의 안내원을 상주시키고 올해에는 신도 30여명을 선발해 외국어 통역교육을 시키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서울시 문화과 서문수 주임은 "현재 계획으로는 인사동 안내판에 조계사를 주변 문화유적으로 소개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사는 근대 목조 건축물인 대웅전(서울시 유형문화재 127호), 목조석가불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125호) 후불탱화(서울시 유형문화재 126호)와 천연기념물 9호 백송, 서울시 지정보호수 78호 회화나무를 보유하고 있다. 또 조계사 인근에는 사적 213호 우정국이 자리잡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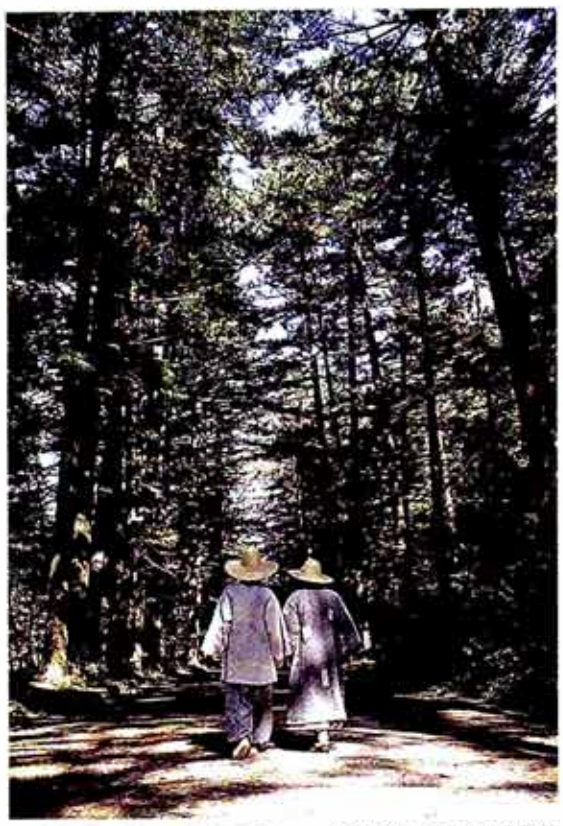
### 종교부동산 면세 2003년까지 연장

종교목적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면세 조치가 2003년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82조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현행법에서는 올해까지가 면세 시한이다. 정성운 기자


창간 6주년 특집 28면 발행

전문가 좌담 '불교와 통일' 4·5면
통일이념 왜 원효사상인가 6면
인터넷 신행 '새 바람' 18면
현대불교의 사이버 영토 21면
'독자와 함께' 현대불교 6년 22면

'길은 가는 자의 몫'

길은 언제나 가는 자의 몫이다. 속살을 에는 서늘한 바람 맞으면서도 하늘로만 곧게 뻗는 월정사 입구 전나무 길처럼 계절의 챗바퀴에 습관되지 않고, 늘어진 바람 다시 올려 물이고, 그렇게 현대불교는 언제나 새롭고 곧은 길을 갈 것이다.

월정사=고영배 기자

## 노동당 창건 초청 종단협 "신중처리"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 행사 초청과 관련, 4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예민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각 단체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종단협의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사회단체 합동회의' 명의의 초청장을 받았다. 정성운 기자

## 생명복제 자문위 구성

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 인문사회과학계, 생명과학계, 의학계 각 5명씩 모두 20여명으로 구성되는 생명윤리 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부 자문기관으로 구성된다. 과학기술부는 2일 조계종총무원 등에 추천을 요청했다.

자문위원회는 동물복제의 허용 한계, 인간 배아복제의 허용 여부와 한계 및 윤리문제, 인간과 동식물의 교잡 허용 범위, 인간유전자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정성운 기자

## "남북 불교 통일토론회 이달중 북경서 실무협의"

### 종단협, 조불련에 제안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은 5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 앞으로 팩스를 보내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준비를 위해 실무대표단 회의를 10월 31일~11월 1일 북경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회신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종단협의회는 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를 12월 초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연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임이사회에 조불련과의 실무협의를 위한 대표단 구성과 준비를 위임했다. 상임이사회는 11일 열린다.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는 지난 해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와 조불련이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올해 3월 종단협의회와 조불련이 북경에서 만나 올 가을 개최키로 했으나, 실무협의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이 지난 9월 북한을 방문한 진각종 성초 통일원장에게 올해 말 북경에서 통일토론회를 개최하자고 밝혀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종단협의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2천만원을 모금해 조불련에서 필요로 하는 4톤 트럭과, 세탁비누 방한복 등 생필품을 11월중 보내기로 했다.

종단협의회는 또 조불련과 대만불교협회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의 참여를 권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23~25일 서울에서 열리는 불교우호교류위원회에 제안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제 6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6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부터 총화종 총무원장상이 추가돼 신행수기 공모의 의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입상작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되오니 이번 공모에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 원고지 30매…마감 12월16일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상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2000년 12월 16일
△당선작 발표: 2001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우수상(보살 사자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총화종 총무원장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사 설

### 불교 통일토론에 거는 기대

남북한의 불교도가 함께 하여 통일을 위해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귀한 자리가 열릴 것 같다. 오는 12월 열기로 기본적인 합의를 본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가 그것이다. 남북한 불교계의 대표들이 가끔 접촉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던 남북한 불교계의 접촉이, 이제 토론의 마당으로 열려진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한 걸음 나아간 공개적인 만남, 그것은 남북한 불교가 만나는 새로운 형태를 통하여 서로 조금씩 접근하는 연습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선 그 만남을 원만하게 성취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한의 만남은 그 동안 헤어져 있었던 긴 세월이 길었던 만큼 서로 변한 모습과 생각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예가 많으며, 그로 인하여 서로 어색한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많다. 우선은 그 만남이 진정한 화합의 모습이 되도록 하여, 거기에서 얻어진 화합의 힘이 불교계 변혁과 통일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해야 함은 물론이요, 그 준비는 자기 중심의 아집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열린 자세에 바탕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일단 착실한 준비에 의해 토론회가 화합의 축제로 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앞으로 남북한 불교가 나아갈 기본적인 방향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의 원동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과거로부터 남북한이 함께 지닌 문화적 토대, 그 가운데 불교 문화의 유산을 통해 남북한이 하나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할 수도 있다. 또한 불교 정신을 통해 민족의 화합된 앞날을 제시하고, 그러한 앞날을 이루기 위해 불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급한 기대는 뒤로 돌려도 좋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민족 분단의 큰 고통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 불교가 함께 머리를 맞대게 된다는 점이다. 다만, 남북한 불교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여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야 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문화재 수사전담반 서두르라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비지정 문화재도 극심한 수난을 겪고 있다. 문화재 지정의 가치 여부와 그 지정 과정에 어려움이 많아 아직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어도 절도범들에게 있어서는 비지정문화재도 표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특히 성보문화재는 언제나 대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범인들의 좋은 표적이 되고 있다.

성보문화재는 불교의 재산이며 동시에 민족의 얼과 긍지가 스며있는 나라의 재산이다. 이것이 한낱 '상품'으로 외국으로 몰래 팔려나간다는 사실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며 수치인 것이다.

정부에서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 지난 8월26일 개정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확고한 의지를 엿보게 하는 조치다. 종단에서도 성보문화재 관리에 대한 각별한 지침이 시달되기는 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보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은 뭐니뭐니해도 해당 사찰 주지에게 있다. 보다 각별한 관리의지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치안당국의 문화재 도난사건의 해결 의지다. 문화재도난범죄는 점점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사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수사당국과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더 한층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6일 송광사에서 열린 호남지역 6개 교구본말사 주지연수회에 참석한 160여명의 스님들이 정부에 '문화재사범 수사전담반' 설치를 결의문을 통해 촉구하고 나선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결의문은 문화재 도난사범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도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같은 기구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월7일 경북지방경찰청이 지역문화재보호를 위해 지방청단위로는 처음으로 '문화재 수사대'를 발족시킨 것은 타산지석의 발빠른 행보로 여겨진다. 검경의 문화재사범 전담반은 마약사범 전담반 못지않게 절실하게 필요한 기구다.

문화재는 복원할 수도 없고 쉽게 찾을 수도 없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다. 이를 지키고 되찾는 일은 이제 국가적 책무가 되어 마땅하다. '문화재사범 수사전담반'의 설치를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 통일 '어린이 법요집' 나왔다

## 법회식순 · 교리 등 표준화…새싹포교 새전기

### 대불어 14일 출판기념회




어린이 법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순을 중심으로 의식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최초의 〈어린이법요집〉이 나왔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덕진)는 14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어린이 법요집〉 출판기념 법회를 갖는다. 이번 〈어린이 법요집〉 출판으로 어린이 법회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게 돼 어린이포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관련기사 3면〉

〈어린이 법요집〉은 통일된 법회식순과 불교 교리, 부처님 일대기, 불교역사, 사찰예절, 찬불가 불교상식 등 삽화와 사진을 곁들여 입체적으로 설명,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은 물론 이해가 쉽도록 짜임새 있게 엮어져 있다.

창립 14주년을 맞이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가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불국토 연구소, 임원 스님들의 감수를 받아 완성한 〈어린이 법요집〉은 조계종 공식 어린이 법요집으로 전국에 보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어린이 법요집〉에는 신도 오계 대신 어린이 법회에서 이미 일반화된 어린이 오계인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스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로 통일하는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평가다.

대불어회장 덕진스님은 "어린이포교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포교자료의 부실에 있다"며 "통일된 법요집 사용으로 어린이 법회간의 원활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새싹 불자들이 성장했을 경우 초래될 혼선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불어는 또한 연내에 〈어린이 법회 지침서〉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법회 지침서〉는 대불어의 14년 동안의 어린이 포교 경륜과 자료가 담겨있어 처음 어린이 법회를 열고자 하는 사찰, 스님, 지도교사들에게 어린이 법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지침서에는 법회의 시작, 법회내용, 법회 활성화 방안, 어린이 신행프로그램 등 어린이 법회와 포교에 대한 지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정대스님-김한길 문화장관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5일 신임인사차 총무원을 방문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과 환담했다.

정대스님은 "조계종이 소란스러우면 민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조계종단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불교계 어른들의 말씀을 받들어 열심히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윤 기자

## 홈페이지 싸고 종단 갈등

### 조계종 "태고넷 종단사등 역사왜곡" 지적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종단사 서술을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갈등의 진원지는 지난 9월 말 개설한 태고종 홈페이지(taegonet.com). 이 홈페이지는 종조 보우국사, 한국불교 법맥, 태고종 종단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계종은 "태고종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의 대부분이 조계종을 폄하·비난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문제삼았다.

조계종이 주로 문제삼고 있는 내용은 "태고보우국사의 법손으로 살다가 이후 보조국사로 조상이 바뀌며 힘의 논리가 정당화하고 있으나 태고종은 정통법통을 이어가고 있다" "세칭 비구승(현 조계종)이 종헌을 무시하고 별개의 종단을 구성하고 태고사(현 조계사)를 폭력적으로 점유" "태고종은 … 종권의 다툼이나 사찰 점유를 놓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다분히 조계종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고종은 "조계종에서 공문으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해오면 검토하겠다. 그러나 태고종과 한국불교사의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정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성윤 기자

##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 고산스님 통영 무차법회

초발심 회복과 민족통일을 위한 통영 및 도서지역 무차화합 대법회가 2일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조계종 제13교구 본말사연합회(회장 통광) 주최로 열렸다.

'초발심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고산스님은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품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초발심이기에, 무슨 일을 할 때 처음 먹었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립 이후 뚜렷한 활동이 없던 통영사암연합회(회장 선곡)의 재창립 계기가 되기도 한 이날 법회에는 보광 해인사 주지, 통광 쌍계사 주지과 김기재 새천년 민주당 연등회 회장, 고동주 통영시장을 비롯 1천 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통영=천미희 기자

## 문화부 종무관 김종오씨



김 한 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6일 종무관(국장급)에 김종오 종합예술학교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김 종무관은 문화정책국 조사과장, 종무1, 2과장, 관광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주사대부고, 명지대 행정학과 졸. 정성윤 기자

## 11월26일 포교사 고시

제6회 포교사고시가 11월 26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미국LA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포교활성화를 통한 종단및 불교발전에 기여하고자 불교적 소양과 전문적 포교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는 포교사고시 응시원서를 9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 문의 (02) 737~7588.

김원우 기자

## "산중사찰도 문화공간 갖추자"

### 효림스님 금강산 선상강연서 주장



"디지털 시대의 사찰은 도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색 주장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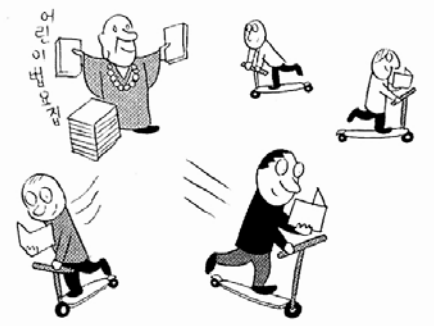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효림스님은 3~6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정진도량 일정 가운데 '인터넷과 불교'를 주제로 한 선상 강연에서 "이제 사찰은 단순히 참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효림스님은 문화적인 욕구가 강한 디지털 세대를 위해 사찰이 전통찻집, 화랑,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갖추고 테마전, 문화공연, 다도 강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이 여가를 이용해 산중으로 찾아오도록 포교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디지털문명이 불교의 사상과 부합한다고 전제한 효림스님은 "총무원과 전국 본말사의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종무행정의 신속성과 종단 및 사찰경영의 투명성에 제고되고 전 종도가 참여하는 종단운영이 가능할 것이란게 스님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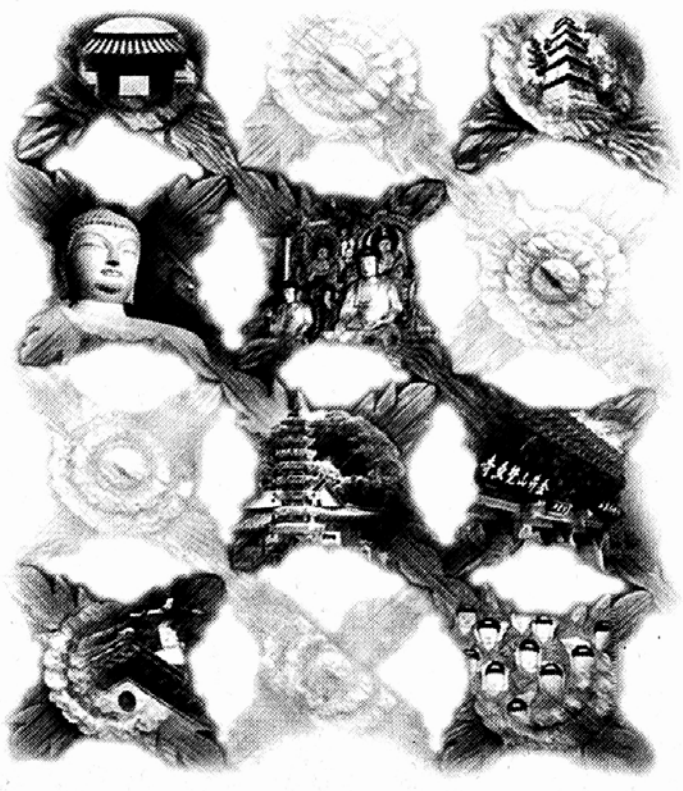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현 대 만 평 박구원




바르게 배워서…

현대불교창간6주년 6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6주년을 축하합니다

새천년 불국정토를 위해
2000만 불교도와 함께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大韓佛教曹溪宗

## 목어

### 업의 세상

오늘날 기존의 가치관만 갖고는 도저히 감당 못할 상황이 끊임없이 돌출하는 정보화 시대 속에 우리가 겪는 갈등은 고루한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마치 가라앉고 있는 배의 갑판 위에서 서로 안락의자를 뺏으려고 날뛰는 것과도 같은 어리석음이다.

*제주도는 해방 이후 최대의 양민학살의 비극을 경험한 지역이며,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세월의 흐름 속에 망각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인데, 최근 한 거물 정객은 제주도를 '폭동의 지역'으로 지목하는 발언으로 상처입은 사람의 마음에 되려 소금을 뿌린 일이 있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지목하여 '반란'의 명소처럼 여기는 배경에는 자기 지역만이 건전하고 우수하다는 '팔을 안으로 굽히는' 고루한 마을 주의적 사고가 숨어 있다.

1923년 동경에서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한국인은 무조건 '조센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몽둥이, 삽 등으로 학살당했으며, 그 희생자는 7000명에 달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학살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제주학살과 동경학살은 한결같이 병적인 우월감으로 타지역 사람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됐다. 한반도가 두 조각으로 분단되어 반세기 이상 대립해 온 것도 서러운데 부당하게 희생을 당한 지역을 지목하여 어디는 섬, 어디는 폭동이 일어난 곳이라는 식으로 차별을 일삼는 것은 조선시대의 차별의식과 전혀 다름이 없다.

한국인은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같은 배를 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 내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제주지역민과 친인척 등으로 깊은 관련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선거 때 그처럼 한 표를 애걸한 위인이 병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꼴이 역겹다. 정보화 시대는 지금 일어난 일이 금방 되먹임 되어 사회 전반에 반영되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나비효과가 수시로 발생한다.

불교는 한 순간의 내 언행이 곧 중생에게 반영되어 나에게 되돌아오는 '업'의 무서움을 경고하고 있다. 행위에는 반드시 선악이 따르며, 그것은 인과의 도리에 의해서 과보를 받는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가치는 행위(業)에 달려 있다고 했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 원불교 종단협 가입 논의 재연
## 정대 스님 "받아들일 의향있다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 논의가 1년여만에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열린 종단협의회 임시이사회. 이날 안건에 없었던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 문제를 회장 정대스님이 꺼냈다. 최근 종단협의회에 가입한 대각종 총무원장의 인사를 들은 직후였다.

"작은 종단도 가입하는데, 원불교만 종단협의회에서 빠져 있다. 종단협의회를 만든 취지는 화합해서 불교를 홍포하자는 데 있다."

사무총장 홍파스님이 얘기를 이어갔다. "원불교에서도 목탁을 치고 반야심경을 독송한다. 그쪽에 정식으로 요청하면 가입할 의사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은 신중론을 폈다. "7대 종단으로 불리는데, 종단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불교 개신교 등과 같이 하나의 종교로 대접을 받는데, 굳이 불교의 한 종파로 들어오겠느냐는 것이다.

정대스님이 정리에 나섰다. "사무국장(법현스님)이 그쪽(원불교)을 만나 이사회에서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알리고, 가입할 뜻이 있다면 이쪽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전해라."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 논의는 지난 해 6월 당시 종단협의회 회장 고산스님이 "종교지도자들이 먼저 화합해야 한다"며 이광정 종법사(불교의 종정에 해당)에게 종단협의회 가입을 제안하면서 활발하게 진행됐다. 당시 원불교측도 "부처님 제자들끼리 힘을 합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종단협의회와 원불교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논란이 계속되자 원불교는 최고의결기구인 임시수위단 회의를 열어 "원불교는 새 주세불인 소태산 대종사에 의해 개교한 새불교임을 거듭 확인한다"고 결의, 논란의 확산을 막았다. 종단협의회도 "원불교측에서 정식으로 가입을 요청해오면 논의키로 한다"며 마무리지었다.

이번에도 논의 단계를 넘어 가입에 이를 것인지는 미지수다. 불교계에서는 대체로 "원불교의 교조를 소태산 박중빈에서 석가모니불로 하고, 소태산을 중창조나 종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원불교측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원불교 홈페이지(wonbuddhism.or.kr)에 따르면, 원불교의 교조는 소태산 대종사,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일원상이며, 소의경전은 〈원불교교전〉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화수분인데…포교 무관심

기획연재

## 관람료 사찰과 포교

①포교는 없고 관람만 있다
❷포교 '안하나' '못하나'
③투자없이 미래없다

9월 23일 학생 30여명을 데리고 강화 보문사로 현장체험학습을 나온 김명순(40·양강중 교사)씨는 사찰 초입에서 다 쓰러져 가는 안내판을 보고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안내판의 글자가 너무 적어 가까운 거리에서도 읽기가 힘들었고, 쓰여진 단어조차 전문용어로 학생들에게 사찰을 제대로 소개시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관람료 사찰들이 관람객들에 대한 포교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찰이 수행과 포교의 공간이 아니라 단순한 나들이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사찰을 찾는 관람객은 지난해 150만명이 늘어나는 등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찰관람은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듯이 사찰을 한번 둘러보고 문화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오는 것이 고작이다.

이 같은 모습은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면서도 문화재를 소개하는 안내소나 안내인이 없고 또한 리플릿이나 소책자 같은 홍보물도 없는 등 사찰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의 관람료 사찰 중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소개하거나 시민선방, 다도, 단기출가 같은 상시 포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엄청난 포교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에 대한 포교를 포기하고 있는 사찰에 대한 불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불교 내부에서조차 관람료 사찰의 입장료를 없애야 불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대조사들이나 불교 신도들이 이뤄놓은 업적에 의지하여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다.

관람료 사찰을 찾는 불자들은 도대체 이곳에 거주하는 스님들이 무엇하고 사는가에 대한 의문이 크다. 스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릴 수 있음에도 포교에 등한시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다.

이에 대해 관람료 사찰의 한 스님은 "포교가 종교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관람료 사찰의 전각이나 문화재가 현대 건축물과 달리 손이 많이 가고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 상대적으로 포교에만 전력할 수 없다"고 포교 못하는 이유를 설명 했다.

한 교구본사의 사무장은 "일반 사찰은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사찰이 운영되어 신도관리 내지는 포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관람료 사찰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입이 생겨

### 사찰행사비=포교예산
### 대형불사로 사격 과시

포교에 대한 절박함이 덜하다"며 "관람료 사찰이 포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전국 73곳의 관람료 사찰중 20개 사찰을 제외한 53개 사찰은 포교예산이나 포교 소임자가 없다. 포교소임자가 있는 사찰도 포교관련 예산이 전체예산의 10%도 안되고 이마저 사찰행사 예산을 포교비로 분류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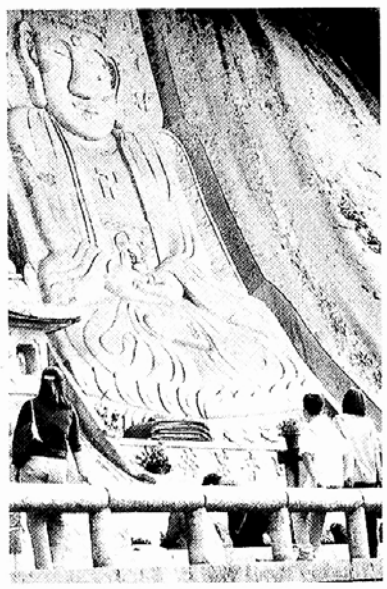
게다가 일부 주지스님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루어 놓아야 한다는 과시욕(?) 때문에 포교보다는 대형 불사에 치중하고 있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아셈회의,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사찰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것은 허상으로 비춰진다.

해인사, 송광사 등 한국의 이름난 사찰은 거의 다 가보았다는 미국인 블릭 베른하드(37·서울 이태원 거주)씨는 "서점에서 구입한 책자에 의존해 관광을 하다보니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적고, 궁금한 점이 생겨도 물어볼 곳도, 사람도 없어 답답할 때가 많다"며 사찰 관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계종 포교원 황찬익 포교과장은 "그동안 사찰이나 종단에서 사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교를 접할 계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찰이 문화적 종교적 공간임을 인식시켜 줄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고 느낄 수 있도록 관람료 사찰도 기존의 구태를 벗고 포교에 대한 의욕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도필선·김두식 기자
(wwkim@buddhapia.com)



◇강화 보문사 마애석불 좌상 앞에서 관람객들이 안내판을 읽고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석불만 쳐다보고 있다.

# 새싹불자 포교 초석 놓았다

### '어린이 법요집' 발간 의미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 연합회의 〈어린이 법요집〉 발간은 각 사찰마다 다르게 진행돼온 어린이 법회 식순을 통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4일 출판 기념법회를 갖는 〈어린이 법요집〉은 어린이 포교를 통한 불국토 구현을 목표로 한 길을 걸어 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덕진)의 숙원 사업을 이룬 것 뿐 아니라 교계의 해묵은 과제를 청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계에 어린이 포교에 있어 이렇다 할 어린이용 법요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어린이 법요집〉발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용 통일 법요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차에 만들어진 최초의 법요집이라는 점에서 어린이 지도교사나 어린이 포교 관련자들에게 더욱 환영받고 있다.

특히 이번 〈어린이 법요집〉은 조계종포교원의 감수를 거쳐 조계종 종단에서 만큼은 제대로 된 통일 법요집으로 보급될 예정이어서 더욱 뜻 깊다. 실제로 통일 법요집이 나오기까지 대한불교어린이지자연합회는 통일안 마련에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진통은 오히려 통일 법요집이 갖는 의의를 반증하는 것일 뿐 얼마든지 겪어야 하는 일이며, 하나의 통일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처럼 법회의 기본이 되는 자료인 어린이용 법요집의 통일은 어린이 포교분야에서 법회의식이나 법회내용의 큰 줄기를 잡아주는 중요한 작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각 사찰마다 혹은 법회 때마다 일관된 법회식순이나 내용을 갖지 못해서 빚게 되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교사마저 간과하기 쉬운 불교일반에 관한 기초 지식들을 망라하고 있어 통일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회식순 통일 기대
### 흑백사진-삽화 '흠'

이 같은 여러 가지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어린이 법요집〉은 그 한계와 아쉬움 또한 명백하다. 이번의 〈어린이 법요집〉은 조계종단에 한정된 것일 뿐 전 종단을 아우르지는 못했고 재정적 뒷받침이나 전문적인 자문기구의 부재로 법요집 자체의 완성도 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절대적인 재정 부족으로 인한 삽화나 사진 등의 흑백처리는 칼라에 익숙해진 비주얼 시대 어린이들의 기호에 턱없이 못 미치게 된 점도 지적사항이다. 〈어린이 법요집〉 출판에 직접 참여한 관계자는 계율 부분이나 기초교리 부분 등은 스님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에서 보다 진지하게 검증하여 통일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종교를 가진 청소년의 83.7%가 초등학교 때 종교를 선택한다는 조계종 포교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어린이 법요집〉 발간이 종단과 사찰에 구애됨이 없이 강조되어야 할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종단협의회나 별도의 범 종단기구를 만들어 불교 전체에서 어린이 포교를 함께 염려하고 고민하며 법요집, 찬불가의 통일뿐 아니라 어린이 포교 전반에 걸친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현대불교창간 6주년

# 불교 생활화의 길잡이 — 현대불교

大韓佛教 曹溪宗
## 한마음선원(禪院)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전화 : 사무처 (031)470-3100
팩 스 (031)470-3116

● 국내지원 ●

● 한마음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리 산5-2 Tel : 043-877-5000/0462 Fax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Fax :064)721-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3블럭 9-2노트 Tel : 052-284-0884 Fax:052)244-0182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번지 Tel : 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5-342-6630/6639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6-8163, 744-1321 Fax:055)746-7825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Fax:042)526-089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 : 054-275-3163 Fax:054)274-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89 Tel : 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03-3 Tel : 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061)284-1770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Fax겸용)
● Los Angeles (LA 지원) 210N Catalina St, L.A.CA. 90004 Tel : 213-382-1711 / Fax : 213-386-8852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 Fax : 847-674-2280
-CANADA (캐나다 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50-3091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406 Rep. Argentina Tel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z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str. 102, 41564 Kaarst, Rep. of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Thailand (태국 지원) 43 soi pattanavet Sukhummvit 71 Bangkok, Thailand Tel : 662-711-2005 / Fax : 662-391-6425

# "통일 대장정 불교가 불자가 앞서 이끌자"

10월 3일 우리의 개천절 날 독일은 통일 1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통일 후유증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러운 장면임에 틀림없다.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었던 우리도 통일의 길로 가고 있다.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남북 관계를 점검하고, 이후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교와 통일을 일과 삶으로 엮어가는 여섯 분에게 다섯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무엇이 통일인가 △현 통일 논의의 문제점 △통일을 위해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통일 후유증' △불교계 대북 불교교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문가 6인의 답변을 지상좌담으로 엮어 달라진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통일을 위해 나는,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해본다.

## 전문가 지상좌담 '불교와 통일'

- **법타 스님**/평불협 공동회장
- **지현 정사**/진각복지재단 사무국장
-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 **법륜 스님**/좋은벗들 이사장
- **박상규 의원**/민주당(국방위원회)
- **권혁범 교수**/대전대 정치외교학과

### 이해하고 인정하기

**▲통일은 남북간의 외형적 통합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할텐데요. 통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법타** :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세계와 인류의 평화, 남북한 주민 전체의 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 한반도의 환경보전, 이산가족의 상봉과 재결합을 통한 인도주의의 실현 등 많은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불교를 민족화하려는 데 있지 않다. 남북의 문화와 사회,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이해와 연구, 교육을 불교적으로 심화시켜 새로운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륜** :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되기를 원하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지 않는데 강제로 하나로 묶으면 그것은 속박이 되어 결국에는 다시 분열하고 만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깊은 이해, 즉 그들의 고통·아픔·눈물,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두려움·바람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권혁범** : 통일을 남북한이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묶이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최종의 목표라면 통일을 위해 다른 보편적 가치가 희생될 수 있고 또 이제는 극복 대상이 되어야 할 국민국가(Nation-State)를 오히려 확대, 강화하는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단이 근대국제정치의 모순을 포함한 것이라면, 통일을 통해서 남북한의 주민들은 세계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좀 더 발전된 계기를 보여줘야 한다.

**지현** : 통일은 남과 북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껍질을 탈각하고 다시금 한민족의 정체성을 창출해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가 당국자간 교류로 급속히 추진되기보다는 민간 교류를 병행하며 이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박상규** : 남북통일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강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남북한 사이에 신뢰와 화해, 교류와 협력을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간의 군축과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루어지면, 군사력 대결에 집중되었던 한민족의 역량을 경제분야에 집중할 수 있고, 민족 내부의 단결된 힘으로 삶의 질 향상과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동포 의견 결집

**▲현 통일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통일에 대한 말들은 무성합니다만,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법륜** : 통일논의에 북한정부·남한정부·남한주민의 의견은 그나마 반영되고 있지만, 북한의 2000만 동포들의 이해와 견해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 민족의 구성원 중에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이해와 견해가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와 긴급한 과제가 있다. 정치·군사적 과제는 중요한 과제이고, 북한주민의 기아·질병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은 긴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현재, 남북 양 정부간에 정치적·군사적 화해만 논의되고 있지, 북한민중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박상규** :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현 정부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깍아내리거나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비난하고 있다.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바라보지 말고 넓고 큰 시각으로 통일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지현** : 현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는 남한 내의 상호주의 여른인데, 놀부와 흥부의 경우처럼 남북 사이는 상호주의가 될 수 없다.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에서는 너무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나기만 하고 성과는 없다고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도록 통일의 유속(流速)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 양과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다.

**고유환** :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새 통일방안을 낼 경우,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이 중추를 이룰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국민적 합의과정이 필수적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의 통일방안을 내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통일전략의 개발이다. 분단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통일은 '방안'을 통해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혁범** :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는 △사실상 분단 냉전적 기득권을 위해서 통일을 늦추고 통일 비용을 걱정하고 북한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는 차원에서 전개되거나 반대로 △조국은 하나다! 라는 식의 통일지상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원래 한민족은 같이 살아야 한다던가, 통일해서 잘사는 강대국을 만들어보자는 식의 논의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위험하다. 어떤 통일도 좋은가? 이런 식으로는 북한의 금강산은 리조트 단지가 되고, 북한의 국도는 '가든'과 '파크'로 뒤덮이며, 북한의 주민은 2류 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획일주의적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를 강화하여 다른 집단 및 개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다중적 정체성을 억누를 가능성이 높다. 통일 논의는 '하나가 되자'는 파시즘적 구호보다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한반도 주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여성, 노동자, 청소년 및 노인의 입장, 환경문제 등이 민족문제와 유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민족문제가 다른 것을 지배하거나 압도하면 안 된다.

### 획일주의 사고 경계

**▲통일을 위해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늘의 한반도 상황에 계신다면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요?**

**지현** : 불교가 통일을 위해 할 일의 첫째는, 남한 내에 통일에 관한 여론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중심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 인도적 차원의 지속적인 북한불교도 지원, 셋째, 북한불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접촉을 통해 불자로서의 공감대 확보와 북이 원하는 사찰 문화재 복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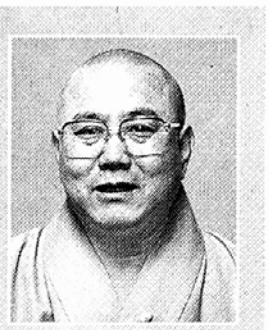
**법륜** : 통일은 바로 코 앞에 닥쳐온 일이다. 긴급하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절이 한 두개 더 지어지고 신자가 몇 만명 더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통일국가의 과업을 원만히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불교의 장래에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한다.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늘의 한반도 상황에 계신다면, 적어도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사상과 이념의 편견을 버리고 민족의 현실을 바로 보도록(正見) 인도할 것이다. 극단적 주장인 승공통일론·반공통일론 등을 버리고 남북 양 국민과 체제에 다 유리한 상호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중도적 통일론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비폭력 평화운동·인권운동·고난에 처한 민중구제운동을 펼칠 것이다.

**법타** : 첫째, 통일방안에 대한 중단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전쟁의 상처와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교육문화적인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북한체제 내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넷째, 포교적인 방법보다 문화·예술의 측면을 통한 세밀한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동포애적인 분야에 장기적인 투자와 교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특히 북한체제는 교류협력분야에 있어 종교를 맨 나중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통일문제가 가지는 보편적 의의나 문제점을 세계의 종교지도자에게 환기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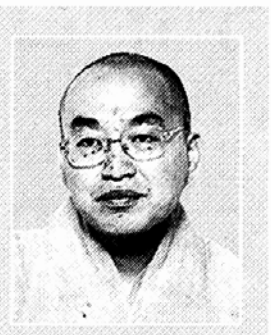
**권혁범** :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이다. 그것은 만물과 모든 중생을 관통하는 진리다. 따라서 불교의 입장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편적 진리에서 나오는 가치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공동의 노력과 운동에 있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이 각기 중요하다는 불교적 자각이야말로 획일주의적 집단주의에 매몰되기 쉬운 통일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고유환** :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는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남북간·남남간 갈등을 해소하며 남북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특히 민족전통 종교인 불교계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질화를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중심 사상은 불교의 중화(中和)사상과 화쟁(和諍)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법타 스님

"북한 지원·교류 문화포교의 방향 종단적 합의 필요"



법륜 스님

"통일 멀지 않았다 평화·복지·화합 불교의 역할 크다"



지현 정사

"정부-민간 교류 이념적 차이 극복 민족 정체성 찾자"



박상규 의원

"남북한 신뢰구축 이산가족 상봉 등 점진적 통일 추진"

### 더불어 사는법 연습

**▲'통일 후유증'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일은 남과 북 모두가 버리기'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상규** : 남과 북의 통일에는 경제적 부담과 이념, 가치관의 혼란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통일은 독일처럼 급격히 어느 일방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제도와 이념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한민족의 미래


E-mail: pubms@chollian.net pubms@netsgo.com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 B/D 503호 명상
TEL. 733-4277(代) FAX. 733-4279

묘굿과 진오귀굿의 대가, 무속인 정정희의 新무당 이야기

내가 울어야 너희가 편하지

신국판/값 7,500원

저자와의 만남 031-921-5445



무속인 정정희는 누구인가?

명성 황후를 몸주신으로 모시는 그는 세간에 민비 보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얼마 전, 살아 생전 불심이 지극했던 명성 황후가 관세음보살로 해탈한 것을 선몽받기도 하였다. 그는 실제로 접신이 이루어져 웬만해서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묘굿과 진오귀굿에 특히 강하다. 무속인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는 그는 항상 남의 고통을 제 고통으로 삼아야 진정한 무당이라고 말한다. 무당이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 할 때 당신은 평온하고 행복해진다고……

최근 정 회장(정주영 전 명예 회장)이 풍수대가들이 천하명당이라고 평가한 청운동 집을 떠나 가회동으로 이사한 것은 무속인 정정희 씨의 권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서울」, 2000. 7. 28

정정희 씨가 무녀로서 치유 능력이 각별한 것은 그의 기가 유별나게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혼불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녀의 기가 강하다는 증거이다. 지난 5월에 대한 항공의 여자 승무원 세 사람이 무꾸리를 하러 왔다. 7월에 비행기 사고가 크게 일어날 것이니 직장을 그만 두고 시집가는 게 좋겠다는 점괘가 나왔다. 그 중 한 사람인 김 씨는 결혼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 살았고 두 사람은 꼼 비행기 사고로 참사를 당했다고 한다. -서정범의 「무녀별곡」 중에서

"산사에서 만난 스님들과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

시인 현주하 자전 산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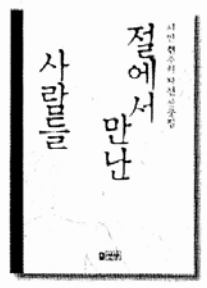
절에서 만난 사람들

성철, 고암, 일타, 법흥 큰 스님…….

명징한 깨달음과 강렬한 느낌을 줬던 법정 스님, 많은 이들을 품었다 미련도 없이 길을 내주는 심성을 일깨워준 구산 큰스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여준 각문 스님…… 불가에서 널리 그 덕을 칭송받는 많은 스님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인간적이며 솔직한 이야기.

담백하고 잔잔한 이야기들을 읽다가 보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멋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소설가 하일지

소중한 스님들과의 인연들이 훈훈하게, 때로는 뭉클하게 마음에 다가온다. -소설가 임철우




신국판/값 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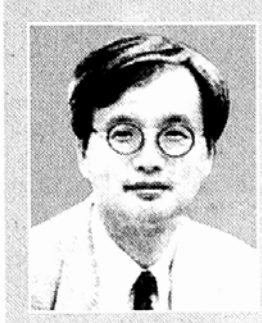


◇통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한다. 사진은 91년 10월30일 미국 LA 관음사에서 봉행한 조국통일기원 불교도 합동법회. 분단 이후 남·북·해외 불교지도자들의 첫 만남이었다.



고유환 교수

**“ 서로 다름 인정 동질성 찾아가면 통일 후유증 감소 ”**



권혁범 교수

**“ ‘통일불사 선점’ 불교 단체간 경쟁 좋게 보일리 없다 ”**

를 가로막고 있는 과중한 군사비 부담해결과 남북 경협활성화 등을 우선적으로 풀어간다면 후유증보다는 득이 더욱 클 것이다.

**권혁범** : 독일의 예서 드러나듯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남과 북이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것은 미래의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가난한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외국인 노동자, 성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 탈북자 등 그리고 사상과 종교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연습이다. 타자와의 ‘차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타자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계관, 제도, 문화가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남한사회에서 관념적인 통일교육이 아니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개개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 때 후유증은 최소화될 수 있다. 온갖 편견과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현재의 남한사회가 이대로 북한을 통합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법륜** : 만약에 북쪽이 붕괴되고 흡수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후유증은 첫째, 북한 주민은 대다수가 사회 저변층을 형성하면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패배의식은 남·북간의 지역감정으로 비화하여 민족통합은 100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둘째, 북한 군부와 지배계층이 체제붕괴 시점에서 돌발적인 전쟁을 감행할 위험이 있다. 또한 북한 지배층의 일부 중국 망명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한·중간 외교 갈등이 동북아의 정세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민족사의 정립에 있어서 독립운동사와 분단사가 남한 중심으로 기록됨으로서 역사가 왜곡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은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정부는 개혁·개방을 통하여 체제의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 후유증을 없애며 통일의 상승 효과를 최대로 할 수 있다.

**고유환** : 우리 민족은 지난 반세기 이상 분단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으로 각각 둘로 나뉘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북한 동질성 회복의 출발은 원효의 가르침에 따라 우선 남북한이 서로 다름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은 심화되고 흡수통일논리가 나오게 된다. ‘다름은 같음이 있으므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 민족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찾아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교계 대북전문가 부족

**▲불교계의 대북불교교류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종단간, 종단과 대북불교교류단체간의 협조와 경쟁의 바람직한 긴장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혁범** : 불교단체간의 단일한 목소리를 기대하는 것은 좋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문제를 불교라는 종교의 전파 및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소승적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는 통일에 불교가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종교 및 사상의 자유와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크게 보아 그것이 결국 불교의 원리에 합치되는 것이라는 느긋한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부 기독교인들의 소승적 선교운동이 갖는 배타성과 한계를 항상 의식해야 한다.

**지현** : 전문가의 부재도 큰 문제다. 북은 20년간 같은 얼굴들이 남북 교류의 파트너로 나오는데, 남쪽은 매번 사람이 바뀌니 지속적이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안된다. 이론적인 문제보다 아직은 현실적인 각도에서 북한불교를 대할 때 교류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법륜** : 종단협의회 차원에서 교류해야 할 것과 각 종단이 교류해야 할 것, 각 단위단체가 교류해야 할 것에 대한 방침이 없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즉 조불련과 상의해서 남북 불교도의 통일염원과 불교진흥을 위하는 일은 종단협의회에서 해야 하고, 대북 지원은 각 종단 또는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각 종단과 단체가 대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교류의 내용이 다양해진다. 북한의 210개 시·군에 대한 현황파악과 불교 포교에 대한 정책이 전무함으로써 북한주민에 대한 불교적 영향력이 떨어져 앞으로 통일국가 내에서 종교적 열세와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북한 포교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고유환** : 이제 불교계는 통일기원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통일 노력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남북 불교교류는 교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문화·학술 교류를 중심으로 접근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불교교류의 초점은 북한 불교의 자생력을 키워 민족정서의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타** : 남한 불교계의 파트너인 조불련은 북한 내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 점이 교류의 한계로 다가온다. 북한 내 사찰의 복원, 병원 등 구호시설의 설립 등의 사업을 조불련을 파트너로 하여 가능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북한 내 조불련의 위상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북교류를 하며 타종단이나 단체는 불가하고, 자기 종단만이 우선적이고 대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버려야 한다.

정리=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특별기고 불교사상으로 통일문제 풀자

# 화해와 상생 ‘통일 화두’

**정천구**(영산대 총장)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역사에 있었던 두 번의 통일은 모두 불교사상과 정신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그것이다. 신라 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한 화랑도는 미륵정토의 구현을 목표로 하여 젊은이들의 상무(尙武) 정신과 애국심을 선양하였으며,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로 지도되었다. 또한 자장, 원광을 거쳐 원효에 의해 일심(一心)사상과 화쟁(和諍)사상으로 집대성된 신라불교가 삼한을 아우를 수 있는 통일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 삼국통일의 힘 ‘불교’

고려의 통일 역시 미륵을 자처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후고구려를 연 궁예를 이어 받아 도선 대사의 지도를 받은 고려 태조 왕건의 불교적 이념과 포용력 그리고 진취적 정신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낳은 평양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귀국 보고에서 이제 남북한은 55년간의 대립과 불신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선언하면서, “남북한 관계는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은 지는 그런 관계를 벗어나 양쪽이 다함께 이기는 윈윈 전략(win-win strategy)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불교정신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온 화해와 상생(相生)의 철학과 부합하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과 같은 다종교 시대에 불교가 지난 민족사에서 두 번의 통일에서와 같은 중심적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민족 재통일과정에서도 통일의 철학과 그 방안은 불교적 정신을 기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통일의 기본 철학에 있어서 남북한은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민족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6.25 전쟁과 긴 냉전의 역사에서 증명된 것처럼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획일적으로 통일하기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 다양성 인정 하나되게

의상(義湘)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서 표현된 대로 통일은 “하나 속에 여럿이 있고 여럿 속에 하나가 있는(一中一切 多中一)” 그런 다양성 속의 통일이어야지 획일적인 하나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이고 교조적인 통일은 불교의 이념에 맞지 않다. 원효의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도 백가지 쟁론이 각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일심 속에서 융섭하는 다원적 통일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의 정신을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원성을 하나로 포섭할 수 있는 정신적 공통성은 발견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신라와 고려가 화쟁과 상생의 정신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나누어져 있어도 불교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으면서도 통합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각각 신도(神道)와 기독교문명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세계적 강국인 4개국의 영향 속에서 우리 민족이 다원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족 고유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군사적 긴장완화 시급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되고 종교적으로 갈라져 있는 현재의 남북한 사회 속에서 그런 공통분모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민족의 공통언어와 습속에서 공통성을 확인하는 일 이외에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과 같은 공통분모를 발전시켜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유야 어떻든 북한도 단군릉을 성역화하고 단군 사상을 강조하고 있으니 남한 일부 종교의 편협한 거부감만 극복할 수 있다면 국조 단군을 민족의 공통심벌로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끝으로 한민족의 재통일은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불교는 실존철학자 야스퍼스가 지적한 것처럼 역사상 종교전쟁을 치르지 않은 유일한 종교로 평화적이다. 오늘과 같은 고도 무기 시대에 민족의 멸망을 가져올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남북정상간의 6.15 공동선언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관계의 발전을 보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군사적 긴장완화라고 생각된다.

남북한 당국자가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무기를 녹여 쟁기와 보습으로 만들고 군사비에 쓸 돈을 주민의 복지를 위해 돌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구태여 수십만 톤의 식량을 상대측에게 지원할 필요도 없고, 군비와 우상화 사업에 막대한 돈을 쓰면서 남한과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대불교창간 6주년 6 불교 생활화의 길잡이 –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조실 석주
주지 원혜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가족과 함께하는 도량

봉은학림
사부대중이 한자리에서 경전을 공부하며 지혜의 텃밭을 가꿉니다.

봉은선원
깨달음을 향한 정진의 불꽃, 생활과 수행이 하나가 되는 환희장 세계를 열어 갑니다.

한국불교의 중흥 도량, 도심 최고의 포교 도량으로 거듭 나고자 봉은사는 정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종무소 02-511-6070,4 팩스 02-544-2141

부처님의 혜명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동국대학교 참사람 육성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혜명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개교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사람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동국대는 불교학을 축으로하는 한국학과 정보통신을 축으로 하는 정보통신공학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등 **BK21사업단 선정**, 활기차게 건설되고있는 **불교종합병원**, 목전에 둔 **국제원효불교전서 편찬**, 서울 불교대학원에 이은 **경주 불교문화대학원 개원**, **벤처창업센타 사이버대학**과 **영상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설립** 등 동국대학교는 새천년에 걸맞게 대학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동국대학교를 주목해 주십시오. ”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吳緣園
동 국 대 학 교 총 장 宋錫球

# 남과 북 일심으로 회통하자

## 통일이념, 왜 원효사상인가

불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은 '통일 사상' 하면 흔히 원효사상을 떠올린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원효(元曉, 617~686) 스님의 화쟁사상과 원융·회통사상이 삼국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문도 전 통일원 장관이 재직당시 원효사상으로 통일이념을 정립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삼국이 분열에서 통합을 모색하는 통일 전후기에 살았던 원효의 삶과 생각을 통해 오늘 이땅의 민족 모순과 지역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여전하다.

그렇다면 원효의 통일사상은 어떤 것일까. 사실 불자들조차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이는 드문 것 같다. 아마도 원효스님의 심원한 사상세계를 다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방대한 저술의 양이 말해주듯이, 원효스님의 불교 연구는 대·소승, 경·율·론(經·律·論) 어느 것에도 미치지 않은 바가 없었다. 교학 연구에 있어서 원효스님은 어느 종파에 얽매이지 않았음은 물론 그것을 보다 높은 포괄적 체계 속에 총섭시키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금강삼매경론〉에서 그는 "만법(萬法)이 일불승(一佛乘)에 총습(總濕)되어야 하는 것은 마치 대해(大海)중에 일체 강물(衆流)이 돌아가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곧 상호대립적인 사상과 교의를 모두 융회하여 일불승에로 귀결시키려 했다.

원효스님의 대표적인 저서이자 가장 독창적 저술인 〈십문화쟁론〉에서 그의 이같은 사상적 면모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는 불교 교의와 인간의 온갖 다양한 주장들을 없음(空)과 있음(有), 나(人)와 세계(法) 등 열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묶고 화쟁의 논리에 입각하여 그것을 하나하나 회통(會通)시키고 있다. 여기서 원효스님은 모든 주장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면서 하나하나 그들을 논리적으로 교통정리한 뒤에, 자신의 견해를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 다양한 주의-주장 열린자세로 수용 논리적 교통정리 회통 전제한 화쟁

그런 의미에서, 원효스님의 중심사상은 화쟁(和諍)사상 또는 화회(和會)사상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화쟁'이란 그의 중심 사상이라기보다는 '중심논법'이다. 이 때 그의 화쟁은 반드시 회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화쟁회통(和諍會通), 즉 화쟁에서 그치지 않고 회통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화쟁보다는 화쟁회통의 준말인 '화회'가 더욱 정확히 그의 중심논법인 셈이다.

화쟁이란 말은 논쟁(諍)을 화해시킨다는 정도의 상식적인 용어가 아니다. 원효스님은 각기 다른 대립적인 이설(異說)들을 회통(會通)시켜 하나의 큰 진리를 찾게 하고자 한 것이다. 화회(和會)의 방법에 있어서, 원효스님은 모든 주장에 대해 옳고 그른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자신의 주관이나 선입견을 개입시키지는 않는다. 오직 최고의 진리,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하나의 뜻으로 조화를 이루게 한다.



◇원효스님 영정(호림박물관 소장)

이 때 화쟁회통의 논법을 통해 밝혀진 심성(心性)의 세계가 그의 중심사상이다. 불심인 동시에 우리들의 중생심인 일심(一心)사상, 그것이 곧 원효의 중심사상인 것이다.

이 일심사상은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즉 한마음(일심)으로 통일이 가능함을 시사해 준다. 정치·경제적 통합에 앞서 민족 동질성 회복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논문 '원효의 통일학-부정과 긍정의 화쟁법'을 쓴 고영섭 박사(동국대 강사)는 "마음의 분열을 통해서 세계의 분열이 일어남을 통찰한 원효는 동시에, 마음의 통일을 통해서 세계의 통일이 가능함을 통찰했다"고 강조한다.

학자들은 원효의 통일사상이 갈등과 전쟁의 시대상황에서 발현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구려·백제와의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법상과 안에서도 서명 학파와 자은 학파간의 논쟁, 이런 갈등을 조화롭게 화해시키고자 한 사상이 바로 화쟁회통사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화쟁회통의 전통은 원융·무애, 원융·회통의 통불교적 사상으로 발전했다. 진리의 세계와 속세가 원만하게 융합되는 화합과 조화의 정신이 의천(義天, 1055~1101)과 지눌(知訥, 1158~1210) 스님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불교사상의 통불교적 전통을 형성하였다.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의 시기가 오면서 새로운 통일사상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 전통사상을 형성해 온 불교는 늦었지만 삼국통일의 기반이 된 원효사상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민족적 통일이념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원효와 통일사상과의 연관성을 다룬 논문은 박성배 교수의 '원효의 화쟁논리로 생각해 본 남북통일문제' 등 몇 편에 불과하다. '화쟁사상의 연구사적 검토'를 쓴 김상현 동국대 교수는 "원효의 화쟁사상은 물론 의상의 화엄사상 등 불교가 내포하고 있는 통일관련 사상을 해석학적으로 재조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북한의 사찰은 일요법회나 매달 음력 정기기도일 법회는 보지 않지만 매년 부처님 오신날, 열반재일, 성도재일만큼은 봉행한다. 사진은 평양시 모란봉에 위치한 용화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 장면.

**북한불교 현황**

## 절 63곳…스님 3백여명

방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종교에 대해 무관심하며 매우 무지하다고 지적한다. 스님과 신부, 목사 등 성직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스님과 신부를 혼동하는가 하면, 교회나 성당이 새로 건립된 사실을 당 간부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미제의 앞잡이' 또는 '미제의 스파이'로 여기며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반면 불교는 북한의 식자층에 의해 임진왜란 등 민족이 어려울 때 불교가 '구국'에 앞장섰다 하여 애국종교로 이해되고 있으며, 많은 불교문화재의 영향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대표적 불교단체 '조선불교도 연맹' 타종교 비해 활동적

북한불교에는 종파가 없다. 1945년 12월26일 북한의 종교단체로서는 최초로 결성된 '북조선불교총연맹'을 모체로 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 이하 조불련)'이 불교를 대표하고 있다.

북한불교의 교세는 1950년 6.25 전쟁 이후 현저하게 약화됐다. 1930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31 본산 가운데 9개 본산이 북한에 있었으며, 403개소의 사찰과 49개의 포교당, 1572명의 스님과 72명의 포교사, 37만5438명의 신도가 있었다. 그러나 1946~1948년 북한 정부가 사찰의 토지재산을 몰수하고, 6.25로 인해 사찰이 대부분 파괴되면서 북한불교의 세력은 급격히 줄어 지금은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63개 사찰과 3백여명의 스님, 1만명의 신도만이 있다. 사찰은 조불련 소속 사찰과 유물문화총국(한국의 문화재관리국에 해당)에서 문화재로 관리하는 사찰로 구별된다. 후자의 경우는 스님이 아닌 정부에서 배치한 사찰관리인이 상주한다. 북한의 스님들은 조계종(박태호 위원장의 말)을 표방하고, 대부분이 40대 전후반이거나 노장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유일한 승려 양성기관인 불학원출신이거나 지방순회 강습소에서 수강한 공산정권 수립 이후의 스님들이다.

사찰에 배치된 스님들은 수도와 교화에 전념하기 보다 불교 성보들을 보존·관리하고, 내외 관광객들에게 사찰 소개와 안내를 맡는다.

불공을 드리거나 법회를 볼 때의 복장은 흰 동정을 단 검정색 두루마기형의 장삼에 홍가사를 예복으로 수하고 굉상시에는 양복을 착용한다. 의식은 〈석문의범〉에 의거해 진행하는데 5~10분을 넘지 않는다. 스님들은 매월 조불련을 통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북한의 사찰은 북한주민의 신행공간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정부의 관광자원 및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박물관 기능과 전시용의 역할을 한다. 해외 관광객의 정규여행코스 또는 북한당국의 특수층만 이용하는 휴식공간처럼 되어 있다.

때문에 북한 사찰에서는 우리처럼 일요법회나 매달 음력 정기기도일 법회는 없다. 다만 부처님오신날, 열반회(열반절의 북한식 표현), 성도회 법회가 연중행사로 실시되고 있는 정도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교계 북한교류**

## 사찰복원·문화재 공동조사 추진

### 복지·교육시설 설립등 지원 다변화

지난 10여년 간 이루어진 남·북한간의 불교교류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의 연계, 불교 지도자의 북한방문 등 인적 교류,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을 파트너로 한 통일 교류운동이다 보니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북한의 실상을 엿보면서 남북 불교간의 동질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던 점은 그나마 불교계가 거둔 성과이다. 여건이 이렇다보니 불교계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각 종단 및 대북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대북교류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특화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북한 사찰 및 문화재 조사·복원사업. 조계종이 현대그룹과 연계해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금강산 마하연사를, 진각종이 장안사를, 천태종이 개성 영통사 복원 지원을 추진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북한 문화재 현황 조사를, 태고종은 남북불교교류협력추진위를 통해 영산재 시연, 불화 및 사찰보수·단청기술 전수, 홍가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생필품 의약품 등의 물품 지원방식도 복지·교육시설 설립, 농업기술 전수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평불협의 금강국수공장, JTS의 어린이 영양식 공장 운영에 이어 진각종은 최근 성초 통리원장등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불교도를 위한 컴퓨터훈련소 설치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JTS는 북한 라진-선봉지역과 함북 온성군의 4개 농장에 농업자재와 영농기술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대북농업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12월 종단협·조불련 공동주최의 '6·15 선언 실현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 토론회를 비롯한 통일교육 및 학술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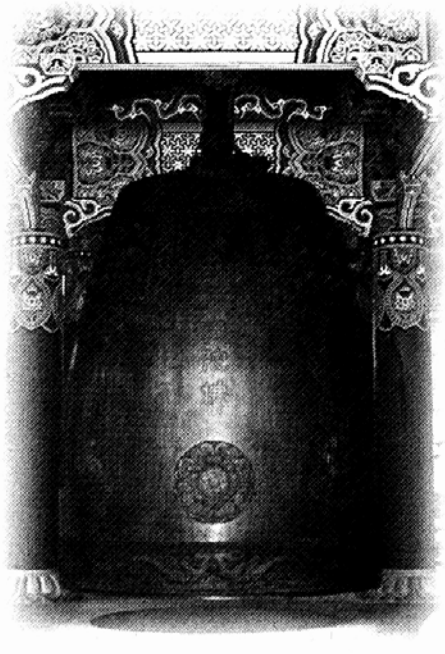



◇어떤 대북사업도 북한 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특히 생필품) 사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진은 JTS의 북한 어린이 영양식 원재료 전달식.

북한식량난민 면담조사, 국경지역 답사보고서 등으로 교계 내·외에서 북한연구분야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좋은벗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생활·종교실태 등에 대한 연구와 남한 내의 통일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불자 통일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마련, 31본산제 당시 북한지역 8개 본산에 대한 문헌자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태고종 진각종 등도 북한불교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6주년을
축하합니다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 일주문

### 길상사 설법전 대중법문



법정 길상사 회주 스님은 15일 오전 10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되는 대중법회에서 법문한다.

02)3672-5945

### 은평장례서비스센터 개소



성운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관장스님(삼천사 주지)은 5일 동 복지관에서 은평장례서비스센터 개소식을 봉행했다.

### 성당서 불교의 구원관 설법



보광 동국대 선학과 교수 스님은 11일 오후 7시 30분 도봉구 창동 소재 정자동 성당에서 '불교의 구원관'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갖는다.

### 10월 다보법회서 법문



혜담 각화사주지 스님은 25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10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 호국 홍불사 낙성법회



혜인 삼화불교대학 학장 스님은 8일 호국 홍불사에서 봉불식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 조계사서 통일강연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14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남북관계의 흐름과 통일의 전망'에 관해 강연한다.

### 박물관협회 사무실 이전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국제박물관협회(ICOM) 한국위원회와 함께 삼성문화재단에서 국립중앙박물관내 사회교육관으로 사무국을 이전하고 9일 개소식을 가졌다.

### 도서정가제 출판포럼



윤청광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은 13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출판포럼에서 '도서정가제, 지켜야하나 없애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한다.

## "보현사서 통일염원 탑돌이"

### 북한 교차관광 다녀온 월서 스님



◇백두산 교차관광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월서 스님(사진 오른쪽)이 9월 27일 묘향산 보현사에서 북한스님, 관광단원들과 통일기원 탑돌이를 하고 있다.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단의 일원으로 백두산을 다녀온 월서스님(조계종 호계위원장)은 1일 "보현사 주지 최형민스님으로부터 함남 안변(현 행정구역은 강원도 고산군)의 석왕사를 복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해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번 방북에서 북한도 우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월서스님의 방북기 요약.

9월 23일. 새벽 3시30분 기상해서 일행은 백두산으로 향했다. 전 날 눈이 많이 내려 밤새 군인들이 눈을 치우느라 고생했다는 얘기를 안내원으로부터 들었다. 새벽 백두산은 안개가 자욱했고 비가 조금씩 흘뿌렸다.

나는 일행보다 서둘러서 올랐다. 나의 이번 관광단 참여는 관광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안내원에게 백두산 정상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안내원이 "그럼, 우리 김정일 장군님의 만수무강도 함께 기도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준비해 간 목탁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천수경과 반야심경, 화엄경 약찬게, 무상게를 독송하고 이어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을 소리내어 불렀다. 기도를 마치고 보니 문호근 예술의 전당 공연사업본부장, 자민련 정진석 의원 등 15명이 합장한 채 동참하고 있었다.

25, 26, 27일은 백두산 일원에 조성된 감일성 항일전적지와 들쭉밭, 감자농장, 삼지연 학생소년궁전 어린이 공연 관람 등으로 일정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관광단이 '학습'만 하는 관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묘향산 보현사 참배와 평양 관광 일정이 추가되었다. 보현사에서는 그곳 스님들과 관광단 일행이 통일을 염원하며 탑돌이를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나부터 마음열면 평화"

### 현각스님 KAIST 강연



화계사 국제선원 현각스님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초청으로 5일 인문사회대 시청각실에서 '현각스님의 마음 열기'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불교는 종교이기 이전에 논리를 수반하는 과학"이라며 "그 증거는 바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님은 "타인이 먼저 마음 열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마음을 열어 사람들을 대한다면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관 · 도법 · 수경스님 제6회 풀꽃상 수상



◇연관 스님



◇도법 스님



◇수경 스님

풀꽃세상을 위한모임(대표 최성각)은 15일 오전 10시 남원 실상사에서 제6회 풀꽃상 시상식을 갖고, 실상사 연관(화엄학림 학장), 수경(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도법(실상사 주지) 스님에게 '풀꽃상 부상'을 수여키로 했다. 풀꽃에게 주어지는 '본상'에는 지리산의 물봉선(물봉숭아)이 선정됐다.

풀꽃세상을위한모임은 "연관스님은 지리산의 생태계를 수십년간 보살펴 온 점, 선승인 수경스님은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이란 증책을 맡아 노력한 점, 도법스님은 불교사상의 실천가란 점에서 시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02)325-6801

김재경 기자




## 대성사 법안 스님 주지진산식

우면산 대성사는 9월 30일 대법당에서 '묘성법안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법안 주지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대성사는 용성스님의 유훈실현 본부가 있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사찰이다"며 "백용성스님의 유훈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前 대성사 주지 환희 스님은 2일 경주 천룡사 주지로 부임했다.



## 제 9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9월 29일 중앙승가대 정진관에서 '제9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열었다. 역경상을 수여한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을 비롯해 문학상 노경식씨(극작가), 대중예술상 김병조씨(방송인)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 염불만일회 건봉사 성지대회

전국염불만일회(회장 김재일)는 1~2일 고성 건봉사에서 제6차 성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무아미타불 1만념 철야정진, 생활 염불체조, 등공대 남북통일기원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토사 조실 설산 스님과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5백여 명이 참석했다.



## 생명나눔회 수술비 1천만원 전달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스님은 5일 오전 생명나눔실천회 회의실에서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청년불자 오승우씨의 치료비 및 수술비 1천만원을 오씨의 어머니 이명순씨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1천만원은 생명나눔실천회에서 모금했다.

## "낮은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

### 부산 청년불자산악회 김종성 회장



"산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의 향내가 스미게 하는 것이 청년불자산악회의 갈 길이라고 여깁니다. 높은 산에 오르지만 가장 낮아지는 마음으로 청년 포교를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부산청년불자산악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종성씨(42·부산불교방송 기술팀장)는 취임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산과의 인연이 20년을 넘었다고 밝힌 김회장이 청년불자산악회에 참여한 것은 4백 여회에 달하는 산행 경험으로 1년전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부터다.

김회장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열고 있는 정기 산행에 불교미술, 불교벽화 등을 조명하는 테마 프로그램을 넣어 불교를 주제로 한 소그룹 산행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또 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4일에는 부산청년불자산악회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활동 기금 마련에도 나선다. 일상을 불교적 행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산행을 준비하는 마음 이라고 주장하는 김회장은 "이번 집행부가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으로 기억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것은 20년간의 산행이 그에게 준 겸손의 가르침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조계사 범종 3년만에 제자리

Focus

지난 97년 파주 보광사로 이운됐던 조계사 범종이 9월27일 조계사 대웅전에 다시 봉안됐다. 이 종은 원래 국보 제 367호로 지정된 경기 용문산 상원사종으로 광복이후 조계사로 옮겨졌다. 이 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으로 알려져 왔으나, 가짜라는 설이 제기되면서 1962년 국보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이후 이 종이 진품이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21세기를 선도할 불교지도자 양성의 요람

"30년의 전통"
생활불교 운동의 기수
2000학년도

# 한국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한국불교의 저변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일선 교역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본 대학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교역자 양성과 불자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한국불교통신대학연혁 】

1965. 10. 24. 본 대학의 설립자이신 한정섭박사님께서 강원에 나가지 못하는 스님과 불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교육원의 필요성을 인식, 당시 동국역경원장 이운허스님, 화운사 조실 김대은스님, 동국대학원 원장 김동화박사님을 모시고 통신교재 편찬(12년간)

1976. 7. 18 2년 과정의 불교통신교육원 개원(관허)
1983. 9. 5 불교통신대학 승격
초대학장으로 안덕암대종사 취임
1984. 8. 15 불교통신대학원 1년 과정 개설
초대 대학원장 조종현대선사 취임
1988. 1. 10 제2대 대학원장 한정섭박사 취임
1997. 3. 12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이사장
한정섭 대법사 취임
1999. 10.30 제7대 학장 한정섭박사 취임
제5대 대학원장 석성륜스님 취임

1. 모집학과
(1)대학 : 불교포교학과, 승가학과, 불교학과
(2)대학원 : 경학과, 논학과, 선학과, 율학과, 삼장학과

2. 입학자격
(1)포교학과는 고졸이상 동등 학력소지자.
(2)승가학과는 출가입산 희망자로서 본 대학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합숙훈련이 가능한자(2000.11.9. 입제식)
(3)불교학과는 학력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4)대학원 과정은 불교교양대학 이상 수료자.

3. 교육과목 및 교재
한국불교통신대학 출판부 간행 "불교통신교재" 및 보조교재와 테이프에 의해서 단계적 교육으로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함.

4.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5.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이력서 1통
(3)주민등록등본 1통 (4)반 명함판사진 3매

6. 원서교부 및 전형
(1)중앙교육원 02)969-2410, 962-1666 (FAX)02-969-4981
(2)연수원(상락항 수도원) 031) 584-0657
(3)부산교육원 (051)703-7237 (4)대구교육원(053)743-1178
(5)구미교육원 (054)455-1068 (6)충북교육원(043)223-9026
(7)제천교육원 (043)646-3023 (8)안산교육원(031)431-4951
(9)포천교육원 (031)532-4565 (10)진해교육원(055)546-4186
(11)하와이교육원(808)550-4313 (12)수원교육원(031)244-4467

7. 합격자 발표
심사후 합격자에 한해 합격통지서를 개별 우송함.

8. 특 전
(1)재학중 수업료 전액 면제(년 4회 정기교육 수련비만 부담)
(2)본 대학은 초종파 통불교를 지향하므로 어느 종파에도 통함.
(3)졸업시 법사(일반), 포교사(스님)자격을 품수

9. 기타 상세한 문의
한국불교 통신대학 중앙교육원 :
☎ (02)962-1666, 969-2410

# 한국불교예술대학 제3기 수강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9호(작법무에 기능보유자) 김해강 큰스님의 범음과 법무를 전수코져 제3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인원 : 선착순 12명
2. 모집기간 : 10월 24일까지 (24일 오전11시 입학식)
3. 교육과정 : 1) 2학기 (1년) - 기본과정
2) 4학기 (1년) - 연구과정
4. 동참회비 : 월 10만원
5. 특 전 : 1) 기본과정 1,2학기 수강자는 수료증수여.
2) 3,4학기 연구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품수자격증을 수여함.
6. 문 의 : 02)962-1666, 969-2410 Fax : 02)969-4981
7. 교육과정

| 교육과정 |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교 수 |
|---|---|---|---|---|
| 1년기본과정 | 1학기 | 육법공양 작법무 · 의식 (석문의범) 강의 | 2.4주 수·목·금 |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
| | 2학기 | 천수바라 작법무 · 의식 (석문의범) 강의 | 2.4주 수·목·금 |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
| 1년연구과정 | 3학기 | 운심게 작법무, 사다라니 작법무 · 의식 (석문의범) 강의 | 2.4주 수·목·금 |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
| | 4학기 | 삼귀의 작법무, 다게 작법무 · 의식 (석문의범) 강의 | 2.4주 수·목·금 |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

※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 50명 가을산사 참배

신행 현장

## 광림사 '휠체어 타고 사찰나들이'

"가을 산사에 오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가을옷을 입은 자연의 아름다움도 보기 좋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신 봉사자들 때문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4살난 딸 효경이와 함께 광림사 지체장애인 성지순례 행사에 참가한 노명란씨(서울 강서구 등촌동). 노씨는 장애몸의 불편함을 잊어버리고 딸과 함께 수타사 경내와 계곡을 둘러보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노씨는 "절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이런 행사를 준비할 줄 몰랐다"며 "이제부터라도 사찰에 나가 부처님 품에 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반신 신체마비와 다운증후군 등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중증 지체장애인 50명이 5일 사진에서만 보아온 산사를 찾았다. 남의 도움없이는 방문밖도 나가기 어려운 이들은 한결같이 자연속의 고즈넉한 산사를 참배해 기도해 보는 것이 꿈이었다. 그 꿈이 부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증 지체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강원도 홍천 수타사로 참배 길에 올랐다.

이들의 나들이를 가능케한 이들은 광림사 보현회 회원 50여명과 광림사 불자운전기사들의 모임인 법륜회, 교통방송 동부통신원 50명등 총 1백여명의 자원봉사자들. 이들은 장애인들이 광림사(주지 해성)가 실시하는 수타사 성지순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른 새벽부터 장애인들을 방안에서부터 부둥켜안고 차량에 태워 데리고 왔다. 특히 불자 개인택시·모범택시기사 50여명은 이날 행사를 위해 하루 휴무를 반납까지 하며 차량봉사에 나섰다.

'귀자기'로 장엄한 50여대의 택시는 중증 장애인들을 태우고 홍천 수타사로 출발했다. 수타사 주차장에 도착한 일행들은 휠체어를 미는 자원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티없는 웃음꽃을 피웠다. 이날 하루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고자 자원한 봉사자들은



◇5일 광림사 지체장애인 사찰나들이 행사에 참가한 50여명의 지체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로 수타사 경내를 돌며 산사의 향내음을 맡고있다.

### 법륜회·TBS통신원 운전불자 1백명 새벽부터 자원봉사

말과 생각을 떠나 몸소 지체장애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눴다. 3시간여 차를 타고 달려온 수타사 대웅전 앞마당. 일반인들처럼 법당에 들어가 참배할 수는 없었지만 부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은 채 힘겹게 몸을 비틀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지체 장애인들의 모습에서는 정성스런 불심이 묻어났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광림사 주지 해성스님은 "경제가 어려워 법륜회 기사님들께 말도 꺼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도움주신 분들께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전한다"며 "모두 한마음으로 싱그러운 불법의 향기를 맡자"고 법문했다.

법륜회 유승봉회장은 "저희 운전기사들의 수고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불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더불어 사는 세상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며 "먼길을 어렵게 온만큼 장애법우님들이 사찰의 향내음을 마음껏 마시고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림사 해성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밤새도록 장만한 음식으로 이들의 마음뿐 아니라 몸도 푸짐해졌다. 해성스님은 "새벽부터 신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 사찰에서 처음으로 돼지고기 80근을 구워 가져왔으니 맛있게 드시라"고 덧붙였다. 수타사(주지 임화)에서도 따뜻한 된장국과 싱싱한 과일을 제공했다.

여흥시간에는 한국장애인예술단(단장 한복수)이 출연하여 분위기를 돋궜으며 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즐거운 시간이 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생활속의 불교 — 낙원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물 안 개구리가 본 하늘은 동그랗다. 때로는 푸른 빛깔, 때로는 잿빛의 동그라미다. 그래서 우리는 소견 좁은 사람을 일러 '우물 안 개구리'라 한다. 제 눈에 비춰진 세계만을 절대라고 고집하는 모습이 꼭 우물 안 개구리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실 우리 모두는 거의 예외없이 우물 안 개구리이다. 스스로는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 없고, 나만은 아니라고 믿고 살겠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우물 안 개구리이다. 왜냐? 누구나 다 관념의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관념이라는 대롱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인간은 착각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제아무리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해도, 관념이라는 대롱을 버리지 않는 한 사물의 실상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인간의 세계 인식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는 많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배고픈 때와 배부른 때가 다르듯이 육체(육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자신의 경험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사물을 대하는 태도는 관이하게 달라진다.

그 뿐이 아니다. 자신의 관심도나 다가오는 경계의 양상에 따라서도 앞뒤의 생각이 달라진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나 문화적 전통이나 관습도 나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어찌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진실이라고 강변하고 고집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제 관념을 절대의 것인 양 우겨대며 분쟁을 일으키고, 시비를 논한다.

선사들은 그런 모습을 일컬어 통 속에 갇혔다고 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삼독심(三毒心)이라 하셨다.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독극물이 바로 저마다의 어줍잖은 관념이라 하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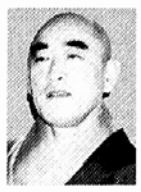
우물 안 개구리가 세계의 광활함을 모르듯이 관념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재로운 삶을 알 수 없다. 관념의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한 그는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불법은 열린 마음을 가르친다. 우물 밖, 통 밖의 삶을 가르친다. 은산철벽 깨는 길을 가르친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삶을 가르친다.

龍眼

## 주계가 있는 법문

# 한글 사랑으로 한민족 주체성 찾자



지정스님
불광법회 회주

말과 글자는 마음 속에 생각을 표현하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인류의 역사를 창조해 내고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과 글자가 없다면 우리 세상은 축생과 다름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은 554년에 이르는 동안 우리 생활문화의 터전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창조하고 성숙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한글 창제는 말과 문자가 다름에 따른 백성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이 목적이었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불교의 한글화를 통한 경전보급이 시작된 의미가 있습니다.

### 외국어 무분별 사용 우리말과 글 푸대접 세계화 절대 아니다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분별심에 얽매여서 자랑을 하다보면 성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인의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의 자리인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작은 이권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대한민국의 영광을 차지하는 대승적인 정신에서 싸워야지 개인의 영광만을 생각한다면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싫어하는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부처님을 부처님이게끔 만들어놓은 것은 반야바라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역시 우리의 말과 한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어머니를 천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골에 있는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자식을 서울로 공부시켜 출세시켜 놓으니까 어느 날 서울까지 찾아온 늙은 부모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친구에게 고향집의 머슴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일화가 있듯이 우리는 한글을 너무 푸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일화(世界一花)의 차원에서 국제무대에 약진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뿌리와 주체성도 없이 우리의 문화가 혼혈민족 같이 잡동사니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인만큼 문화적인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전문용어는 외국어로 발전시키고 일반적인 대중문화생활의 언어는 우리의 한글로 보급 발전시켜서 우리 민족의 확고한 개성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좋은 말이 있는 데도 구태여 외국어를 사용하는 풍조가 날로 확산되는 것은 일부 지각없는 국민들이 자기 아만에 도취되어 자기 부모도 머슴이라고 친구에게 소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요사이 관공서나 회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팀장'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정서에 너무나 걸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아무리 의래어가 이제는 우리말화 되어가는 시대라고 하지마는 조상없는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중국사람들은 인도의 불교경전을 한문글자로 번역하였고 우리는 이제 한문을 한글경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경전을 보급하고 생활에서 불교를 쉽게 이해하는 척도입니다. 세계는 하나이지만 하나 속에 각자 여러 개가 있다는 부처님의 진리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 신행캘린더

**10월 11일 (수)**

■ 전국비구니회관 상량식=전국비구니회는 수서 삼성병원 회관 건립지에서 오전11시 전국비구니회관 상량식을 거행한다.(02)733-5467

■ '독일통일과 남북통일' 강좌=대한불교진흥원은 동국대 정용길 교수를 초청,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평양정상회담-독일통일과 남북통일'이라는 주제로 다보문화강좌를 연다. 02)703-0108

**10월 12일 (목)**

■ 봉암사 조실스님 추대법회=문경 봉암사는 11시 대웅전에서 진제스님을 조실로 추대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054)571-9088

■ 고암스님 열반 12주기 추모재=해인사 용탑선원은 오전 11시 고암 대종사 열반 12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 (055)932-7418

**10월 13일 (금)**

■ 봉림사 백고좌법회=창원 봉림사는 오전 10시 30분 전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스님을 모시고 백고좌법회를 봉행한다.(055)267-6336

**10월 14일 (토)**

■ 불교학연구회 학술발표회=불교학연구회는 오후 2시부터 15일 정오까지 전남대학교 수련원에서 제 2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인터넷상의 종교활동 실태와 포교방법론 연구(이혜숙 동국대), 인도불교의 효(장춘석 전남대), 용수 중관론의 중국적 변용과 그 의미(이현옥 동국대), 천태정토사상의 구조(김양순 정신문화연구원)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02)2260-3128 (02)2260-3128

**10월 15일 (일)**

■ 은해사 개산대재=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는 오전 9시 금강계단에서 제1191년 개산대재 및 지장보살 봉안식을 봉행한다. 이와 함께 무비스님을 전계화상으로 3사7증을 모시고 보살계 만등불사 대법회도 가진다. (054)335-3318~9

■ 조계사 노인위안잔치=조계사는 오후 1시 경내 특설무대와 만발식당에서 독거노인 위안잔치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료 영정사진 촬영, 구강검사, 풍물공연, 불자가수회의 공연 등이 펼쳐진다. (02)732-2115

**10월 16일 (월)**

■ 성철스님열반 추모 참회기도=해인사 백련암은 오후 1시 사리탑 앞에서 성철스님 열반 추모 3천배 참회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이에 앞서 10일부터는 성철스님 7주기 철일칠야법회가 17일까지 8일간 백련암에서 개최된다. (055)932-7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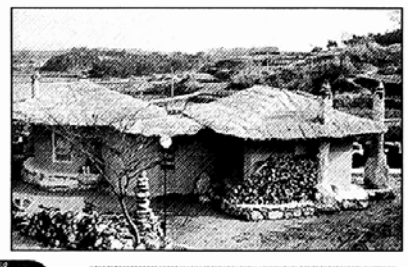
**10월 17일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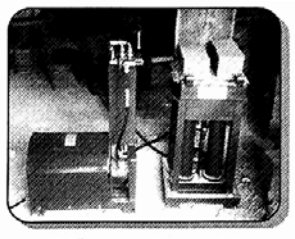
■ 금산사 개산대재=금산사는 오전 10시 개산 1400년 맞이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063)548-4441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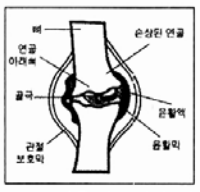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슙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3개월 특별속성반 —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3기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3개월 속성으로 수련하실 분을 특별 모집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기타 교육자료 우송
●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49재·시다림·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마감 : 2000년 10월 12일까지(현재 접수중)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 2000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5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은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법사양성 교육도량으로서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교수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속성 3개월 과정으로 특별 모집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전통의식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박태원 교수의 7

## 불교로 보는 인생

몇 년 전, 한 미국 청년과 근 일 년 동안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미국 버지니아대학에서 철학과 비교종교학을 전공한 후 불교사상에 심취해 한국에서 출가하겠다고 마음먹은 청년이었다. 불교는 머리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절감하였기에, 스리랑카와 일본에서 수행하다가 한국에 와본 후 왠지 이 땅에 끌려 한 사찰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그를, 나는 어느 의사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한국어도 배우며 출가 준비를 하는 동안 나와 함께 있고 싶다는 그의 뜻을 받아들여 일년을 같이 살았다.

그와의 대화는 흥미롭고 유익했다. 전혀 다른 생활환경과 문화 속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불교를 공통 분모로 나누는 대화였기에, 화제가 오르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의 견해를 경청하곤 하였다. 특히 불교와 관련하여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인인 그의 탄탄하게 균형 잡힌 불교 이해의 수준이었다. 참선 등 자신의 불교 지식을 체험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불교 지식은 분명 건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한국 땅에 발을 딛자마자 일본에서의 그 갑갑증이 일순간에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인들의 그 어수선함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강렬한 기운은 확실히 일본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뭐랄까, 한국사회는 한 개인의 자기 변모를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공기로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관행이나 제도로 가두어 둘 수 없는 기운들이 넘쳐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는 '아, 이 땅은 나 같은 근원적 변신을 추구하는 수행자에게 매우 적합한 곳이다'고 직감하였습니다."

그의 통찰은 인상적이었다. 평소 한·일 비교문화론을 생각할 때마다 그와 비슷한 생각을 품어온 터라, 더욱 죽이 잘 맞아 이런저런 이야기가 꼬리를 물었었다.

우리가 한국의 이런저런 개성을 사실대로 인지하는 일은 중요하다. 자기 도취의 과장이나 불필요한 자기 학대는 모두 일종의 열등감이나 무지의 소치이다. 성숙을 위해서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간에 사실대로 보는(如實知)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하다.

## 한국인은 창조적이다

### 장점이든 단점이든 사실대로 보는 용기

지혜(乾慧)가 아니었다. 그의 탄탄한 불교 이해를 호평하는 나에게, 적어도 교양 있는 미국 대학생으로 대접받으려면 자기 정도의 불교 소양은 갖추어야 하며, 대학 강좌나 서점을 통해서 그 정도의 소양을 얻을 기회는 충분하다고 하는 그의 말은, 현재 한국 대학 교육과 대학생 교양 수준의 문제점을 선명하게 일깨워주기도 하였다. 프랑스 여배우 소피 마르소가 한국 기자에게 "나는 불교사상이 좋아요!"라고 한 말을 이색적으로 듣는 한국 학생들이 아니던가?

그런 그와의 어느 날 대화 : "당신'은 일본과 한국을 모두 겪어 본 3자인 셈인데, 한·일 양국 문화에 대한 감상을 듣고 싶소."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월등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질서있는 사회입니다. 나와 같은 서양인에게는 편안한 나라이지요. 그런데 나는 몇 달만에 갑갑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해탈이라는 근원적 자유를 꿈꾸는 저에게 그런 사회적 공기는 숨쉬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에 비해 정돈되어 있는 편이 아닙니다. 거칠고 무질서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결핍되어 있는 나는 한국인들의 파격적 기질을 높이 산다. 격(格)을 부수는 과감성, 틀 안에 갇히지 않으려는 창조적 용기의 소질이 한국인의 정신 유전자에는 꽤나 비중있게 새겨져 있는 듯하다. 한국은 전통 계승이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도, 관행이나 과거로부터 쉽게 운신하는 기질로 풀어볼 수 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거나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기질은 분명 흔치 않은 능력이요 소중한 가능성이다. 중생의 삶에 무명(無明)의 거대한 기만과 구속이 개입하고 있을진대, 한국인의 '틀 벗어나기' 자질은 무명이 구축한 그 겹겹의 성벽을 넘는 선근(善根)이 아니겠는가? '돈 되는 벤처 기질'이라며 추켜세우는 어느 외국인의 한국인론(韓國人論)을 들으며 떠오르는 감상이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 밝은 마음과 바른 몸가짐으로

## 참불자의 길

### 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찰에 가서 부처님 전에 절(拜)을 하지 않는 불자는 없다. 절은 삼보에 대한 예경과 상대방에 대한 존경, 참 자아를 찾는 수행의 첫 관문이다. 또 자기를 낮추는 수행법인 절을 많이 함으로써 하심(下心)을 익히고 업장을 녹일 수 있다고 한다.

수행 초심자 변종호 씨(29·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최근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있다. 불자로서 하루를 맞이하며, 나름대로 자신을 가다듬는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다. 108배를 끝내고 느끼는 희열감이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절을 하면 육체와 정진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땀을 흠뻑 흘리고, 가볍게 샤워를 한 후 출근하는 기분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런 변 씨지만 절하는 방법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다. 그저 법당에서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곁눈질하여 따라 해본 게 전부다. 그래서 변씨는 지난 3일 경기도 양평의 재가불자수행도량 법왕정사를 찾았다. 절을 과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다.

법왕정사 주지 청견 스님을 만나 1시간 여에 걸쳐 바르게 절하는 법과 절의 효과 등에 대해 배웠다.

청견 스님은 하루에 1천배씩 3년간 1백만 배를 회향하는 등 수십 년간의 절 수행을 통해 터득한 '절 제대로 하는 법'을 불자들에게 가르쳐 호응을 얻고 있다.

스님은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밝은 마음과 밝은 표정을 갖는 것이다"고 전제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절을 하면 힘들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 리듬도 좋아져 환희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몸 따로 마음 따로이면 피부가 경직되고 혈압이 상승하여 아무리 절을 해도 번뇌망상이 끊이질 않는다. 수행은 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어지럽히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호흡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반복되는 절 동작과 호흡이 조화를 이룰 때 심신의 균형은 물론 수행의 효과도 배가될 수 있다는 것.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꿇으려 할 때 숨을 들이쉬고, 머리를 바닥에 댈 때부터 다시 합장할 때까지 숨을 계속 내쉰다.

스님은 절 할 때 염주를 손에 쥐고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한 손에 염주를 쥐고 숫자를 세면 일어설 때 합장을 할 수 없어 마음과 몸이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 일심으로 절을 하면 업을 녹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한두 번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8배, 1000배, 1080배, 3000배, 만 배를 한다는 것. 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절을 많이 하면 번뇌망상으로 인한 불안 초조가 없어질 뿐 아니라 건강 증진, 관절염 치료 등에 효과가 크므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적합하며 하기 쉬운 수행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절하는 법**

1.코·입·손끝·배꼽·발뒤꿈치가 일치되고, 양 귀·양 어깨·양 엉구리·양 발의 복숭아 뼈가 평행선을 이루게 하고 합장한다.

2.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입을 다문 채 무릎을 꿇는다. 이전에 양 발 사이를 10cm가량 띄우고 발가락 전체를 바닥에 밀착시키는데 앉을 때 엉덩이가 발뒤꿈치 사이로 약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3.양손은 머리가 들어갈 정도의 간격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고, 양발을 들어 왼발이 오른발 위에 올라오게 포갬과 동시에 이마와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이마와 발이 바닥에 닿는 동시에 엉덩이는 양 발 뒤꿈치에, 배는 대퇴부에 닿게 하고, 양손을 가지런히 뒤집으며 귀 위로 올려 접족례를 한다.

4.손을 바닥에 짚고 머리를 들며, 팔을 펴고, 몸을 앞으로 약간 내밀면서 일어서는데 이때도 양 발가락 전체를 바닥에 닿게 꺾어야 한다. 뒤꿈치 사이로 엉덩이가 들어가게 벌리면서 손에 약간 힘을 주고 탄력 있게 허리를 편 다음 바로게 일어선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곧추세운다.



◇몸을 앞으로 내밀어 양손을 바닥에 짚는다.



◇양손을 뒤집어 접족례를 취한다.

2000년 기획

# 禪과 21세기

## 교과공부와 禪의 접목 '새 패러다임'

### ㉙ 선과 교육(2)



서명석
외국어대강사
교육학

확실히 선은 우리들에게 멀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분수령이라는 수식이 붙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교육에서 선은 원료 이상의 감촉으로 다가선다. 다만 우리들이 원료의 가공에 대한 일에 소홀했을 뿐이다. 선이 교육과 만나면서 다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의 맥락과 급소를 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선은 존재 사색을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그런데 존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거주한다. 이런 존재를 사색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사색하는 것과 같다. 그럼 그 사색의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나다. 내가 주체적으로 사색의 물꼬를 열면서 내 속의 마음과 상면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존재물음이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자신만이 궁구하여 풀어야 하는 무엇이다. 누구라도 이것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다. 마치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 있을지언정 그 물을 대신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선이 원료라면 그 원료의 본질은 이 두 가지, 존재사색과 주체물음에 겹쳐 있다. 이와 같은 사색과 물음은 우리들의 외부에 있지 않다. 바로 내부에 있다. 이것을 한 마디로 묶어내면 내면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겠다. 동시에 외면에 대한 공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외면을 결정하는 요소는 배울 내용을 의미하며 그것을 일반화시켜 놓을 때 우리는 교과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배울 내용을 지칭하는 교과는 지식과 기능, 정보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는 창구로 자리한다. 이것이 교과공부이다. 그러나 교과공부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공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과 속에는 존재의 사색과 주체의 물음이 원천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응, 그것은 이거란다" 이것은 내용(교과)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다. "너 오늘 집에서 공부해왔니?" "예, 해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것도 내용에 대한 사색일지는 몰라도 존재에 대한 사색은 아니다. 이런 체제가 우리 아이들을 구속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교과공부의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한계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선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공부의 출발이 나에서 출발하여 끊임없이 나로 회귀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선생님, 제가 누구예요?" "너는 바로 너란다." "제가 나지 그럼 내가 아니예요?" "그럴까,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네가 진정 네가 아닐 때가 있단다." "정말예요." "그럼 정말이지, 한번 더 생각해보렴." 그리하여 그 애는 자꾸만 선생님의 대답을 마음에 담아 곰곰이 되씹어 보았다. 이런 문제는 바로 묻고 바로 대답함으로써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을 부여안고 씨름해야 하는 문제이며, 긴 교육적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물음과 대답이 교과공부에 의하여 우리 교육에서 추방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공부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있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간 교과공부에 의해서 잊혀졌기에 새롭게 가공시켜 복권시켜야 하는 교육의 영역일 가능성이다. 이 점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이 부상하는 접점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교과공부의 패러다임은 일종의 허구적 이데올로기이다. 이것만으로는 교육의 온전한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그리하여 교육의 옴살스런 모습을 그리면서 선에서 주창하고 있는 마음공부가 교과공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인간, 그의 존재와 주체의 문제를 복원해 주었을 때, 존재는 비옥해지고 주체는 낡은 주체를 버리고 새로운 주체로 자신을 갱신하는 존재의 서사로 되살아난다. 그 원료가 선이고, 선의 가공품이 바로 마음공부이다. 이것이 교육에 다시 들어옴으로써 교과공부만으로 엮어지는 현 교육을 극복하고 교육의 새로운 차원으로 선이 한 단계 더 격상하는 것이리라.


# 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신간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게,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청소년 원조교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원조교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3일 서울경찰청은 선정적인 출장 마사지 광고전단을 주택가에까지 뿌린 뒤 윤락행위를 알선해 온 윤락업주 4명을 구속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시대의 도덕적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음(邪淫)의 과보가 어떠한지를 경전에서 알아본다. 〈편집자〉

## 이렇게 들었다

### 타락한 성윤리

### 어찌 간악한 일을 행할까

▨남이 내 어여쁜 누이동생이나 아내를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이다. 온갖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보살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남의 여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마련이니, 항차 어찌 간악한 일을 행하겠는가? 〈대방편불보은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음탕한 일에 미혹하면 정도를 잃게 되며 혼이 달아나서 일찍 죽게 되며, 죽은 후에도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나는 이를 두려워하여 사음(邪淫)의 숲을 떠났느니라." 〈팔사경〉

▨남의 아내 범하기를 즐기는 자의 과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매, 이 세상에서는 남의 미움을 사서 국법에 의해 구속되든지, 감옥에 갇히던가 하여 무수히 경을 치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출요경〉

▨모든 사람이 사악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태우고 남녀간의 계율을 흐리며, 그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고 불의와 패덕을 저지른다. 〈무량수경〉

▨애욕은 격렬한 욕망으로서 삶에 대한 집착의 근본이 되며,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모두를 탐내게 하며 때로는 죽음을 원할 정도의 극단적 욕망으로 변한다. 〈남전장경 증지부〉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되풀이함은 다 애욕으로 그 근본을 삼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은 끝없는 과거로부터 온갖 애욕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윤회가 있느니라. 〈원각경〉

▨음욕은 허물이 많아서 괴로움이 따르고, 언제나 만족을 모르므로 다른 나쁜 짓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음욕을 즐겨하지 않느니라.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애욕은 번뇌의 왕이어서 갖가지 번뇌들이 그 뒤를 따른다. 애욕은 꽃 뒤에 숨어사는 독사와 같아서 욕망의 꽃을 탐하는 사람들을 독 이빨로 물어서 죽인다. 〈대반열반경〉

▨연상의 여인은 어머니로 알라. 중년쯤의 여인은 누이로 알라. 젊은 여인은 딸로 보라.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불제자들은, 젊은 몸이면서도 욕정에 끌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있다. 〈본생경〉

▨사람이 재물과 여색을 버리지 않는 것은, 마치 칼날에 꿀이 묻어 있어서 한번 먹을 것도 되지 않건만 어린애가 핥으면 혀가 베어지는 재앙이 따르는 것과 같다. 〈사십이장경〉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염되고 취하고 탐하고 더러워지고 미혹하고 집착하고 얽매이고 속박되어서, 무엇이건 창녀의 말만 따르는 까닭에 길이 윤회하여 갖은 괴로움을 받게 된다. 〈법수진경〉

# 생명조작과 인간의 미래 '삶의 지속'이 전부인가

## 불자 세상보기

### 상상해 보자

**노동하지 않고 오직 숨쉬기만 하는 150세의 젊은이(?)들 과연 행복할까**



구승회
동국대 교수
윤리학

현대의 생명공학은 DNA를 조작해서 생명체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물론 인류는 수천년 전부터 농작물, 가축의 품종개량을 시도해 왔다. 넓은 의미로 이 역시 생명조작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체세포 복제, 배아복제와 같은 인공적인 '복제기술'이 아니라, 자연적인 '개량기술'이었다.

생명공학의 매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불로장생의 기술을 통해 인간적 한계를 벗어나게 해 준다는 사실이다. 기실 이런 본원적인 인간 해방의 기술은 모든 도덕적 인간규정, 모든 종교적 열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생명공학의 의학적인 이용으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설파했던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번뇌도, 카르마도, 그래서 해탈도 없는 '무의미의 세계'로 인도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 기술은 '고통 없는 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휴먼-게놈-프로젝트가 인류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접어두고라도, 고령화사회의 많은 부작용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는다.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자원, 공기, 물이 고갈될 것이고, 과중한 의료비는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며, 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수혜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갈등은 현재의 계급갈등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돼지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공급받고, 돼지 허파로 호흡하고, 인공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복제를 통해 얻은 무릎 관절로 걸어 다니는, 노동하지 않고 오직 숨쉬기만 하는 150세의 젊은이를 상상해보자. 무작정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생의 전과정에서 '고통없음'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진정 '해방된' 삶일까? 자유와 평등, 관용과 타협이 더 이상 공적 도덕이 되지 못하는 획일화된 고령화사회에서 400만년 전 아프리카의 루시(Lucy)에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규정해 온 저 위대한 인간성의 이념은 온전히 지탱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규정에 근거해서 행복한 영생을 추구하는 생명공학 기술은 '근거없는 희망'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모든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기술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술의 역사에서 단 한번의 예외도 없다. 어떤 나라가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면 불치의 질병을 앓는 환자는 이를 허용하는 나라에 가서 신체기관, 장기, 내분비 물질을 공급받아 치료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각국은 핵무기경쟁과 똑같은 생명공학 기술 경쟁을 벌일 것이다.

사해동포주의적 호소가 지난 세기의 군비경쟁을 막을 수 없었듯이, 생명공학 기술의 현실적인 이점이 너무 크고 명백하기 때문에 생명조작에 대한 도덕적인 우려는 언제나 '부수적인 고려사항'일 뿐이다. 생명공학은 현실인데 반해, 도덕가의 경고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공허한 당위이다.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 있는 생명조작을 금지하기보다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삶의 지속'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가르치는 '종교적 생명관'을 전파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 열·린·마·당

### 재가자 종단운영 참여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가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불교 재가 지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재가불자들이 종단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99%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종단정책 자문기구에서의 참여를 비롯해 사찰운영 참여, 포교기관 참여, 종회의원으로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스님과 재가자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 출-재가 할일 구분 분명

**명진스님**〈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옛부터 나라가 사찰을 지어 스님들에게 운영을 맡겼던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재가자들이 참여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 물론 이 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스님과 재가자들이 한마음 한뜻만 된다면 누가 종단을 운영하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될 수만 있다면 정책을 자문하고 사찰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스님과 재가자의 삶과 수행영역이 다르다는 점이다. 불교가 수행의 종교이고 보면 승단중심의 종단운영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또 하나는 재가자들이 말하는 대로 현재 상태가 과연 종단운영에 재가자가 참여할 준비가 돼있는가 하는 점이다. 재가자들의 종단운영 참여 주장은 말 그대로 생각과 주장일 뿐, 왜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대안도 없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재가자들의 종단운영 참여에 반대하는 스님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대다수 스님들은 승가와 재가의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스님과 재가자들의 할 일이 분명히 구분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정 분야의 종단종책과 사찰 운영, 포교분야에서 재가자들의 참여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종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사찰운영의 일부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가자들의 종단운영 참여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된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서로 입장을 바꿔 충분히 생각하는 것이다.

### 교단 혁신의 필수 요소

**김희욱**〈재가연대 협동집행위원장〉



1963년 11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제5회 정기 중앙종회는 종단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조계종 전국신도회 회장 직무대행(김한천)과 조계종 전국 주요도시 신도대표자대회 의장(이종익) 명의의 건의를 손경산(제1대 중앙종회 차석 부의장), 박벽안(제1대 중앙종회 의장), 김혜원(종회의원)스님 등의 동의를 받아 안건으로 채택하여 중앙종회에 상정토록 결의한 것이다.

이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명실공히 사부중의 총의로 운행되는 종단으로 개편하기 위해 종헌을 개정, 재가중이 종회의원 및 행정 감찰기구에 참여할 것, 각 사찰에 신도대표를 두어 사원운영회에 참가하며, 종단 일체의 재산처분은 신도회의 합의하에 하되 그 처분에는 반드시 공고, 공개입찰로 할 것, 사찰주지 및 포교사는 각 신도회의 합의하에 종정이 임명할 것' 등이다. 이는 위의 대표자 대회에서 상정된 '대한불교조계종 혁신 재건안' 중의 일부로 생각된다. 이 결의가 어떠한 연유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는지를 살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가불자들의 종단운영 참여가 교단의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된다는 것은 역사적 현실적 당위이다.

조계종단은 94, 98, 99년 3년간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이것은 분쟁의 조정기능이 상실되고, '폭력' 이외의 다른 유효한 수단이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와 현실적 상황에서 재가불자의 종단운영 참여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이제는 그 합리적 방법론을 가지고 토론할 때다.

## 기고

### 오페라 '직지' 공연 주제음악 없고 복식 고증 부족한듯



법현스님
종단협 사무국장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 백운화상의 〈직지심체요절〉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희망을 담은 오페라 '직지'를 관람하고 매우 즐거웠다.

그러나 세심히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티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티는 넋을 잃고 '직지'에 빠져드는 감상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정신을 집중해 보는 것과 넋을 잃고 보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오페라 '직지'에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오페라 '직지'에는 특출한 주연, 확 드러나는 주제음악이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희' 등 빼어난 오페라에는 반드시 그 음악을 최고의 것이 되게 한 주제가, 즉 '아리아'가 있다. 그것은 일인(一人) 오페라적인 우리의 판소리 심청가, 춘향가 등에도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옥' 같은 오페라 '직지'의 티다. 가사의 시적 감성 및 멜로디의 예술성을 보다 더 대중화해서 누구나 흥얼거리며 따라 부를 수 있는 대표곡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또 하나는 출연자의 복식에 관한 것이다. '직지'의 인쇄 과정을 묘사한 청주 고인쇄 박물관의 밀랍 인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스님들의 가사는 장엄 염불에도 나오는 붉은 색의 홍가사이다. 그러나 출연자가 여러 형태의 가사를 작용해 무척 혼란스러웠다. 바라춤, 나비춤(착복)을 추는 스님들은 현대식 홍가사를, 장엄 염불을 하는 스님은 밤색 가사를 착용했으며 편단우견, 즉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가린 형태가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드러낸 형태의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기도 했다.

오페라의 극적 요소 때문에, 또는 출연자들의 활동편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고증이 감동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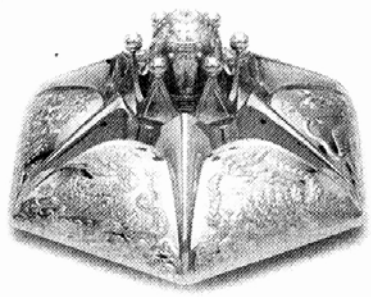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룡(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기(氣)란 : 현실이다



◆육기(氣)방 사용 체험사례◆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 말썽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한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사업고 잘되고 장사가 잘되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스님의 글을 넣어도 좋습니다.
· 주지스님을 친견후에 제품을 구입하십시요.
· 철학관 선생님과 면담 후 제품을 구입하십시요.

명 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사용처◆

가정집, 공장, 공부방, 새집터, 가게, 사업장, 자동차, 선박, 묘지, 장의사(관), 종합(재),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실용신안 · 의장등록 · 상표등록 (특허출원)

◆구 입 처◆ 전국불교용품점, 사찰 · 암자, 철학관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 장: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냐 기적(奇蹟)이냐 하는 소리가 많다.◆

사·부·대·중

## 큰 스님 신드롬



원담스님
의령 유학사

요즈음 길을 가다보면 들어본 적도 없는 종단에 소속된 절이 부쩍 눈에 띈다. 그 절들의 공통점은 스님이 영가를 관(觀)하고 천도한다는 점이다. 그로 인하여 환자가 치유되고 우환이 퇴치된다면 중생심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나에게도 찾아와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신도들이 있다.

영가천도를 잘하는 스님이라면 무조건 큰 스님(?) 쯤으로 존경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한 스님들은 큰 스님으로 대접받고 점차 친견하기 어려운 유명인사가 되어간다. 그런 절에는 불사도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러한 큰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 일도, 다가올 일도 족집게처럼 정확히 알아맞힌다는 소문에 타종교를 믿는 정치인들까지 찾아간다는 풍문이다.

인터넷에서도 그 큰 스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어느 신도는 한 스님의 홈페이지에 우연히 들어가 대화방에서 불교 상담으로 그 스님을 알게 됐고 상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행되었으나 결국은 오래가지 않아 그 신도는 불쾌했던 사연을 나에게 하소연해온 일이 있다. 물론 큰 스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가 큰 스님(?) 행세를 하면서 신도들을 농락하는 것이지만 그 추세가 심각해져 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저마다 똑똑한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큰 스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신통자재한 큰 스님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큰 스님 신드롬'에 걸린 소수의 불자들로 인해 참으로 올곧게 수행하고자 하는 스님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위엔 오직 일념으로 기도하는 스님, 한 평생 참선으로 수행하는 스님, 간경 사경으로 정진하는 스님, 소외된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어 보살행을 실천하는 스님, 포교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스님들이 많이 있다.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일체의 고(苦)와 낙(樂)은 다 나의 몫일 뿐이다. 그렇다면 현실에 순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지, 그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만 한다. 어려움에 빠질수록 법당으로 달려가 참회기도로써 풀어나가는 불자가 많아져야만 큰 스님은 늘 우리곁에 머물 것이다.

목탁소리

## 불교없는 인사동 축제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전통과 문화의 거리' 서울 인사동은 불교계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다. 인사동(仁寺洞)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대규모 가람이었던 원각사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 더욱이 우리 전통문화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한다면 인사동은 불교와 떨래야 뗄 수 없는 곳이다.

그런 인사동에서 14~15일 이틀간 '인사전통문화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전통과 문화의 거리'라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최근 거리단장을 끝낸 새로운 모습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깊다. 더욱이 서울시가 인사동을 세계적인 문화특구로 가꾸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때라서 많은 이들의 눈이 이곳에 쏠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인사동 축제에서 불교관련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무용에 전통혼례, 판소리, 대동놀이, 창작국악 등의 20여가지 각종 공연과 궁중투호놀이, 유리공예, 한국전통 시절떡 재현 등 10여 가지 거리 이벤트 역시 불교와는 관련없는 것들뿐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인사전통문화보존회 김병욱 사무국장은 "예년에는 승무나 범패 등의 공연과 불교용품 홍보 등의 거리 이벤트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불교계나 인근 조계사에서 조차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29일 열리는 서울시 시민의 날에 참선, 발우공양, 바라춤, 연등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계사는 인사동 코앞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축제가 언제 열리는 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불교계가 인사동에 대해 그만큼 무감각한 것이다.

하루 10만여명의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찾는 인사동. '포교의 황금어장'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렇게 중요한 곳임에도 정작 불교계는 인사동을 강건너 불 구경하듯 한다. 더욱이 한국 사찰을 대표하는 조계사마저 지척에 있으면서도 인사동 포교를 포기한다면 불교의 미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진리 찾는길 어떤 종교든 관계없다"

### 종교, 神性시대에서 個性시대로

종교가 흔들리고 있다. 사찰·교회·성당 등과 같은 전통 종교의 요람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곳을 찾는 종교인 수는 줄고 있다.

서구에서는 오랜 전부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독일이나 칼뱅이 장로 교회 운동을 시작한 스위스의 모든 교회에서, 신도들이 실종된 지 오래다. 하늘을 찌르는 십자가는 이제 관광객을 위한 명소일 뿐이다.

가톨릭 신학자 큉(H. Küng)은 "누가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교황에게서 신성함을 찾겠는가? 차라리 모짜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에 귀를 기울이라. 거기서 진정한 초월의 경험을 기대하는 게 낫다"고 빈정대고 있다.

70년대부터 상향 곡선을 그려왔던 국내 종교 관련 통계 역시 80년대 후반부터 하향 곡선을 긋기 시작했다. 불교의 경우 70~80년대에 대중화를 목표로 한 도심 포교당들이 확산됐다. 재가불자 중심의 교양대학이 여기 저기 세워졌다. 부처님 오신날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또 세계불교도대회를 개최할 만큼 커졌다. 기독교 교세 역시 이 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뉴욕타임스〉(1983년 3월)는 "한국의 기독교는 지난 10년 동안 신도가 배로 증가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그 불씨가 꺼져가기 시작한 것이다. 사찰·교회·성당을 찾는 젊은이나 종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종교인조차 발길이 뜸해졌다. 종교인의 연령도 고령화 됐다.



◇불교와 도교가 뒤섞인 중국의 신종교 파룬공 신도들이 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99년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실시했다.

### 사찰·교회·성당 찾는 젊은이 줄고있다

**■보이지 않는 종교**

사찰·교회·성당을 외면한 종교인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뉴스위크〉(94년 11월)지에 따르면, 이들은 점심 시간에 짬을 내서 경전이나 성경을 읽고, 인터넷에서 온라인 종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또 이들의 관심으로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달라이 라마의 저술이 올라가고, 레코드 가게에서 명상용 음악 CD가 날개돋친 듯 팔린다. 할리우드의 영화대본에 종교 관련 이야기들이 끼어들고, 종교 성지를 경유하는 패키지 관광 상품이 특수를 누린다. 이 같은 현상은 전통적인 신행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상으로 신행을 끌어들인 것을 반증한다.

박규태(서울대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 박사는 "이 같은 현상은 전통적인 신행 요람이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밀어닥친 세속주의의 굴곁에 밀리고, 또 교리에 대한 종교인들의 깊은 이해를 아우르지 못한 탓"이라고 풀이했다. 요람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담아낼 수 없었던 그들은 종래의 신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혼자서만 믿는 탈종교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학자들은 이를 정의해 '보이지 않는 종교의 시대'라고 부른다. 사찰이나 교회마다 등록은 안 하고 그날 그날의 설법(교)에 따라 철새 같이 떠도는 종교인이 늘어난다. 전통의 신행 요람은 가끔 이용하지는 새로운 개인 중심적 신행 패턴을 보이는 이들은 모두 종교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투명 인간이다.

### 입맛따라 식단짜듯 '자기만의 종교' 연출

**■카페테리아식 종교**

김종서(서울대 종교학) 교수는 사찰이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종교인의 속성을 "진정한 영적 진리를 자신이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불교든 도교든 또는 유교이든 무속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종교인은 정해진 식단이 싫증나서 뛰쳐나온 사람들이다. 입맛에 따라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스스로 골라서 식단을 짜 먹는다. 마치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다양한 종교에서 자신이 찾는 종교적 진리나 수행을 하나씩 골라낸다. '카페테리아식 종교'인 셈이다. 여기에선 선택뿐만 아니라 조리법 자체가 자유자재다.

다시 말해 무슨 종교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종교로부터"라는 말조차도 무의미하다. 점점 더 다양한 먹거리가 뒤죽박죽 되어 자기 혼자만의 개인 종교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94년 11월 〈뉴스위크〉지에서 보도한, 헨렌 뉴겐트(50·美)가 자신의 집에 꾸민 제단을 주목해야 한다. 천사 석고상과 청동부처상에 모형 피라미드, 수정 구슬, 기도용 양초, 성수를 담은 병 그리고 인디언이 쓰는 광주리와 유대교 기도문에 고목나무가 있는 성지(聖地)의 사진…. 이 종교 저 종교에서 진리를 새롭게 구하다 보니 아예 기성 종교를 넘어서 다른 것에까지 눈을 돌린 것이다. '자기만의 종교'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와 같은 '카페테리아식 종교 패턴'이 우리 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을 염송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보살'을 봉안한 그런 제단과 마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새로운 구원' 주장 급증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

**■증가하는 신종교**

전통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될 때, 신종교들이 더욱 증가한다. 97년 〈한국신종교실태보고서〉를 발간한 유병덕(원광대 명예교수) 박사는 당시 350여 개의 신종교의 수는 4년이 지난 지금 7~10%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종교에서의 신행은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게 종교학자들의 지적이다. 2년도 채 못되어 결별하는 수가 태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종교들이 매스컴이나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우리가 실제 느끼게 되는 이른바 '체감 교세'는 엄청난 셈이다.

크리슈나무르티와 라즈니쉬 등의 정신 철학과 수행은 우리 나라의 대형 서점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어떤 곳은 아예 독립적인 서가를 설치할 정도다. 그저 읽혀지기만 한다면 그렇게 꾸준히 많이 팔릴 수는 없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신종교 현상의 근원은 뉴-에이지(New Age)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으며, 종교 전통을 초월하는 보편적 에너지, 즉 마나(mana·초자연적인 힘), 성령(holy spirit), 기(氣) 등에 주목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까지 인기 있었던 마인드 컨트롤(Mind Control) 역시 뉴에이지 신행 형태를 답습한 것이다. 이까짓 것들이 무슨 종교인가? 반문하는 수도 있다. 맞다. 전통적 교회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결코 종교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의 마음에 접근해 새로운 구원의 형식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변화 인정하고 대응 인간의 행복 살필때

**■기성종교의 과제**

보이지 않는 종교는 이미 열려 버린 종교다. 빗장이 풀렸으니 다시 닫기는 어렵다. 틀에 박힌 신행이 싫어 요람을 등진 종교인들에게 불교 등 기성 종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해 박규태 박사는 "신성(神性)이 사라진 게 아니다. 단지 종교인들이 과거의 신(神)보다는 인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두 대상에 대한 관념적 우선 순위만으로 기성 종교의 패배를 속단하지 말라"고 말한다. 패배보다는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박사는 "기성종교는 불교의 '자기를 비우는 자세'나 기독교의 '키노시스'(신이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세상에 내려왔다는 뜻)를 좇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는 영원한 안식을 찾는 인간의 욕구에서 생겨났지만, 기성종교는 이 욕구를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한번쯤 반추해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행복 조건'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갈 월 사 영 탑 ( 靈 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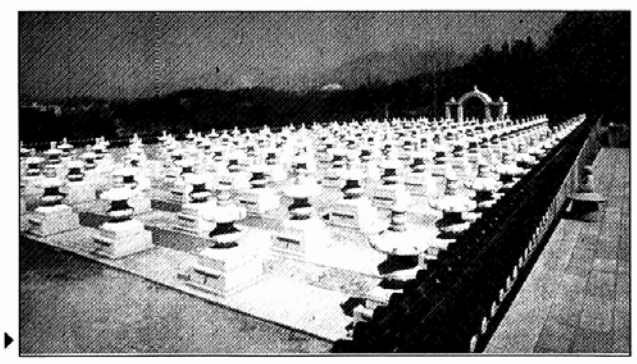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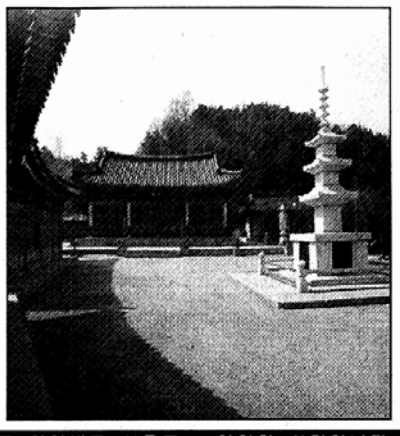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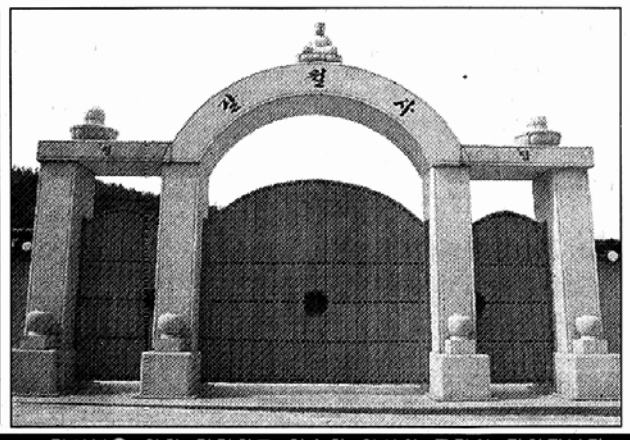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장**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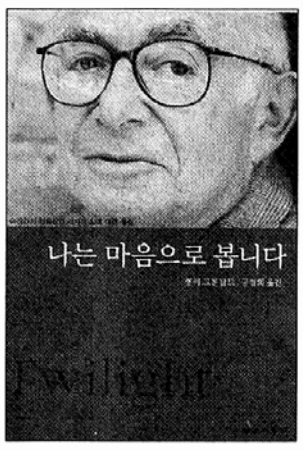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내면성찰로 마음의 눈 떠라

## 나는 마음으로 봅니다 헨리 그룬왈드 지음




"장애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가 오면 상실감에 빠져 좌절부터 한다. 어렵고 힘들지만 남아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 나는 시력을 잃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로 인해 마음의 눈을 떳다는 것에 대해서 환희심을 느낀다."

20여 년 동안 타임지의 편집인으로 살아온 헨리 그룬왈드 씨가 쓴 〈나는 마음으로 봅니다〉(사과나무)는 그가 불치의 눈병 '황반변성'에 걸려 시력을 잃어 가는 과정, 그리고 내면의 성찰을 통해 마음의 눈을 떠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은 글쓴이가 컵에 물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 새로 안경을 맞춰야겠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불치의 눈병이란 사실은 평생 글쓰기와 읽는 일에 종사한 글쓴이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시력을 잃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자신의 병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평소 의식조차 못했던 '눈'에 대해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 시력을 되찾는 데 의학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눈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진화 단계를 거쳤는지, 그리고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시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이런 탐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기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 눈이 흐려지기 이전에 만끽했던 추억을 다시 떠올려 보며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는, 보통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눈을 이용한다는 평범한 진리도 배운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 육신의 눈 잃고 마음의 눈 얻는 체험과정 생생

시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를 둘러싼 현실이 점점 뿌옇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계속 반추한다. 이러한 마음의 눈 뜨기는 예술품 감상으로 더욱 심화된다. 예술 감상의 첫 번째 원칙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원칙은 곧 일상사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쓴이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 본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 눈은 세상을 거울처럼 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면서 바라보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신체의 부자유를 극복하면, 즉 마음의 눈으로 인간과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히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또한 잃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는 신념의 산물이기도 하다.

마음으로 보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글쓴이는 "병에 걸렸다고 인생이라는 책을 덮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이는 아무리 불행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

김광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 일제하 불교·정화배경 사실 중심 객관적 서술



일제치하의 불교교단 및 불교청년운동에 중점을 둔 연구서 〈근현대불교의 재조명〉(민족사)이 나왔다. 글쓴이 김광식 씨는 현대불교사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즉 반드시 일제하의 불교사가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로 '불교와 일본제국주의' '정화공간의 불교' 등 근대불교관련 연구논문 18편이 수록돼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대불교사의 진원이자 조계종단 탄생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정화운동'을 학술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정화사 이해는 극단적인 찬양과 비판이 양립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제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중심의 이해와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할 때다. 이 책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1954년부터 1970년대 불교정화의 배경, 시말과 개요 등을 요약 정리함을 물론 정화의 모순과 문제점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밖에도 선농불교(禪農佛敎), 교육 등 근현대 불교사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서술한 이 책은 지금의 한국불교를 반성케 하는 채찍으로 모자람이 없다. 값 2만5천원.

김중근 기자

---

고명수 '나의 꽃밭에…'

## 선승·혁명가·시인 '만해 종합적 접근'



왜 만해인가? 한길사가 '위대한 한국인' 시리즈의 11번째로 펴낸 〈나의 꽃밭에 님의 꽃이 피었습니다〉는, 그간의 만해평전과 달리 우리에게 만해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는다. 동원대 출판미디어과 교수로 있는 고명수 씨는 오히려 왜 '아직도' 만해인가를 묻는 것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 책은 만해 스님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만해 스님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폭넓게 분석한 뒤 자연인과 지식인, 역사인으로서의 '만해'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 책을 통해 조선 말기의 승려입성 금지 해제령이 일본 승려 사노의 건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박영효 내부대신을 비롯한 관료가 추진했던 개혁작업의 일환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또 출생지인 강원도 홍성의 문화적 풍토, 3·1운동 당시 만해스님의 구체적 활동을 소개하고 시집 〈님의 침묵〉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책 말미에는 일제 강점기에 나온 50여종의 독립선언서 가운데 명문으로 꼽히는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가 실려있다. 값 1만원.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

## 이책의 한구절

■ "죽음은 상당한 정신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초심자에게는 두려움의 원인이다. 하지만 전 생애를 바친 수도자는 죽음 앞에서 즐거워한다. 인간이라는 존재, 현상의 견고함, 소유에 대한 모든 애착이 사라진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죽음은 친구 같은 존재, 삶의 한 단계, 단순한 옮겨감일 뿐이다."

—철학자인 아버지 장프랑수아 르벨(75)이 출가한 아들 마티유 리카르(53)를 20년만에 만나 삶, 죽음 등 인생의 본질에 관해 열흘동안 나눈 대담집 〈승려와 철학자〉(창작시대). 값 1만2천원.

■ "지금 이 순간 바른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깨달음은 체험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삶의 완성이란 새롭게 실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온전히 현실 위에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존귀성과 속성, 그리고 그 질서를 바르게 파악하여 그에 적응하고 하나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 "삶의 완성은 새로운게 아닌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일"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이 한국불교가 나아갈 바를 걱정하며 10여 년 동안 써온 글을 모은 〈화엄의 길, 생명의 길〉(선우도량). 값 8천원.

■ "인간의 육체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불과하다. 영혼은 육체라는 배를 타고 가며 선장은 영혼이다. 영혼은 신의 분신이며 그 분신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긴 윤회의 과정에서 지은 업보를 잠재의식 속에 낱낱이 기억해 둔다."

—30여 년간 신과 영혼문제에 천착, 정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일본 다카하시 신지의 영혼 고백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 7가지 이유〉(해누리). 값 9천원.

■ "욕망이란, 뿌리에 독이 있으되 꼭지에 꿀이 맺혀 있는 것과 같다. 뭇 삶들은 줄에 묶인 새와 같이 자신의 욕망에 묶여 있는 것이다. 수행자는 자신을 묶고 있는 끈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수행자라고 해서 항상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풀잎을 잘못 건드리면 손가락이 베이듯, 수행자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스스로를 지옥으로 이끈다. 그만큼 욕망을 지우기가 어렵다."

—독일 쾰른의 린덴탈 호숫가의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의 한국방문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선재). 값 7천5백원.

---

## 50가지 마구니 유혹 극복하는 길

### 한글세대 위한 '능엄경 1·2'




걸식을 하러 다니던 아난은 매음굴을 지나던 중 마등가녀(摩登伽女)를 만난다. 그녀의 유혹에 넘어간 아난은 결국 계율을 어기게 된다. 이를 안 부처님께서 문수 보살에게 아난을 구해오라는 신주를 내리자 삿된 술법의 사슬은 사라진다. 문수 보살에 의해 부처님 앞에 이끌려온 아난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 이에 부처님은 아난을 비롯하여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내린다. 이것이 〈능엄경〉이다. 이 경전이 다른 경전보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음행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능엄경〉은 50가지 마구니의 유혹을 극복하는 길을 자세히 적고 있다. 이런 점이 수행자들에게 많이 읽히는 이유다.

오진탁 교수(고려대 철학과)가 펴낸 〈능엄경 1·2〉(시공사)는 이러한 〈능엄경〉의 핵심 사상을 한글세대를 위해 우리말로 정리한 책이다. 아난이 이 가르침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켰듯이, 불자들도 이 경전을 수행의 지침서 삼으면 어떨까. 값 각권 1만4천원.

김중근 기자

---

## 불교복지 방법론 모색

### 권경임 '현대불교 사회복지론'




불교사회복지학은 일반사회복지 분야와는 달리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문분야다. 최근 들어 교계 일각에서 불교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로서 설득력을 갖기는 아직 이르다. 이는 아직 불교사회복지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불교사회복지론〉(나남)은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불교사회복지의 연구방법을 고찰하고 사상과 실천방법을 통해 실천체계를 제시하고 불교사회복지가 활성화되고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권경임 강사가 쓴 이 책은 불교사회복지 실천방법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주제는 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방법, 체계 그리고 불교사회복지의 지원 및 전달체계 등. 글쓴이의 박사학위논문 '불교사회복지 사상과 실천체계에 관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이 책은, 학문적 깊이와 불교복지에 대한 애정이 더해져 관련 분야 학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값 1만7천원.

김중근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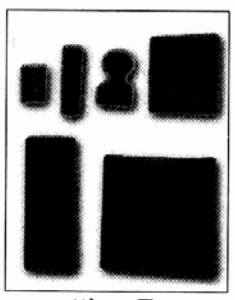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 달라이 라마 | 문이당 |
| 2 | 선방일기 | 지허 | 여시아문 |
| 3 |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 김지수 | 불광 |
| 4 |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 틱낫한 | 지혜의 나무 |
| 5 |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 정세채 | 모색 |
| 6 | 불교란 무엇인가 | 최봉수 | 부디스트닷컴 |
| 7 | 전통사찰음식 | 적문 | 우리 |
| 8 | 천수경 천수신앙 | 혜국 | 효림 |
| 9 | 심천사혈요법 | 박남희 | 정신세계사 |
| 10 | 석가모니 지혜동화 | 하순봉 | 은하수 |

도서 안내:(02)737-0695

위빠사나 10월 修行안내
부처님께서 하셨던 방법 그대로의 수행을 체험하실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기간 (1차) 10월 14일(토) 오후3시 ~ 10월20일(금)까지
(2차) 10월 21일(토) 오후3시 ~ 10월27일(금)까지
참가비 20만원
지도스님 知玄 스님
준비물 편한복장(따뜻한옷), 세면도구, 알람시계, 필기도구
담마를 체득하겠다는 서원
연락처: 031)574-5585
FAX: 031)574-0808
www.shinbiro.com/~bonginsa
봉인사 한길정진원 합장

응선사 제9기 교리 강좌
▶ 개강 일자 : 10월 17일
▶ 교육 시간 : 매주 화요일 11시
▶ 교육 기간 : 1년(2000年 10月 ~ 2001年 10月)
▶ 동 참 금 : 6만원
▶ 강좌 법사 : 수암스님
강좌 내용
1. 사찰 예절
2. 부처님의 삶과 교훈
3. 불교의 역사적 전개
4. 불교의 근본 교리
5. 불자로서의 신행 생활
6. 천수경, 예불문, 반야심경
강의 문의: 02) 394-9765
강의 장소: 세검정 하림각 맞은편 응선사
교리 공부를 통하여 삶의 본질을 깨우쳐 삶을 변화시켜 새롭게 태어납시다.
생활불교 기도도량 응 선 사

행운을 따르는 벽조목
벼락맞은대추나무의 수수께끼

벽조목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보관하면 모든 화를 쫓고 행운을 가져오며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에 서울롯데백화점에서는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합격을 기원하는 행운의 나무 가지기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벽조목은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여기에 진품이 있습니다.
옛 선사께서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055)742-6044
011)554-6044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천 대 불 교
본 사 02) 737-8881
강릉지사 033) 643-5577
고성지국 055) 672-0078
광주지사 062) 375-9986
대구지사 053) 983-9222
목포지국 061) 279-3788
밀양지국 055) 353-1196
부산지사 051) 463-5331
안산지국 031) 494-8859
영주지국 054) 674-1199
울산지사 052) 257-7737
진주지사 016) 585-2120
제주지사 016) 695-6885
충청지사 042) 527-0559
일본지사 031) 713-5111

대한불교예술원
Tel:(02) 930-1681 / 011) 836-8200





◇칸첸중가 정상에 선 엄홍길



# 구도하듯 한발한발…"등산=下心"

## 산문밖의 선객 산악인 엄홍길

### "정복이라니요 산은 늘 거기 있는데 어쩌다 한번 올라 잠시 머물다 올뿐"

**엄홍길은 누구?**

**히말라야 14좌 모두 올랐다**

엄홍길에게 있어서 산은, 들고 다닐 수 없는 한 권의 커다란 교과서였다. 1960년 경남에서 태어나 4살 때부터 도봉산 중턱에서 자라게 되었으니, 어쩌면 그에게는 걸음마부터가 산행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듯 산과 일찍부터 인연을 맺은 그였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해군에 입대하여 특수부대(UDT)를 자원한다. 약간은 의아스런 선택으로 보이지만 유난히 모험과 개척을 좋아하는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의 심폐 기능과 악조건에서의 적응 능력은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황영조보다 뛰어나다고 한다. 태생적으로 산악인의 몸을 받은 것이다. 거기에다 군시절 마라톤과 수영의 1인자에 오를 만큼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더하였다.

군 복무를 마치고 25세 때부터 전문 산악인의 길에 들어선 그는 1985년 에베레스트를 시작으로 28차례의 도전 끝에 2000년 7월 31일 K-2를 오르는 것으로 히말라야의 8000m급 봉우리 14개를 모두 올랐다. 13번의 실패를 딛고 선 빛나는 성공이었다.

그는 현재 아내 이순래 씨(30)와 딸 지은(4), 아들 현식(2)과 함께 고개만 빼면 도봉산이 보이는 의정부의 한 귀퉁이에 둥지를 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요즘, 늘 산에서 살다 보니 얼굴 익힐 기회조차 없었던 아이들과 찬해지는 재미에 흠뻑 취해 있다.

**엄홍길의 히말라야 8,000m 등정일지**

| 등반한 때 | 등반한 곳 | 높이 |
|---|---|---|
| 1988년 9월 | 에베레스트 | 8,848m |
| 1993년 9월 | 초오유 | 8,201m |
| 1993년 10월 | 시사팡마 | 8,027m |
| 1995년 5월 | 마칼루 | 8,463m |
| 1995년 7월 | 브로드피크 | 8,047m |
| 1995년 10월 | 로체 | 8,516m |
| 1996년 5월 | 다울라기리 | 8,167m |
| 1996년 9월 | 마나슬루 | 8,163m |
| 1997년 7월 | 가셔브룸 I | 8,068m |
| 1997년 7월 | 가셔브룸 II | 8,035m |
| 1999년 5월 | 안나푸르나 | 8,091m |
| 1999년 7월 | 낭가파르바트 | 8,125m |
| 2000년 5월 | 칸첸중가 | 8,586m |
| 2000년 7월 | K-2 | 8,611m |

**히말라야는 어떤 산?** 산스크리트 어로 히마(hima)는 '눈', 알라야(alayas)는 '사는 곳'이란 뜻이니, 히말라야란 곧 '눈의 집'인 셈이다.

좁거는 인도 동쪽의 브라마푸트라 강에서 서쪽의 인더스 강에 이르는 2,500km의 산맥을 가리키지만, 파미르, 카라코람, 힌두쿠시 등 중앙아시아의 고봉 무리를 아울러 일컫기도 한다.

중국·부탄·네팔·인도·파키스탄에 걸친 이 산에는 8000m 이상의 봉우리만도 14개나 된다. 그래서 이 산은 '세계의 지붕'이자 남극과 북극에 이은 '제3의 극지'라고도 불린다.

만년설로 덮인 이 고산영봉은 예로부터 아시와와 유럽을 가로막는 장벽을 이루었다. 그러나 기원전 329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힌두쿠시를 넘은 뒤로 장건(張騫)이 실크로드를 열었고, 이후 중국 당나라 때의 승려 현장과 '동방견문록'으로 널리 알려진 마르코폴로 그리고 고구려의 장군 고선지도 파미르를 넘었다. 오늘날엔 카라코람을 타고넘는 아시아 하이웨이가 이곳을 달리고 있다.

일 나간 어미소를 그리듯 먼산바라기하는 송아지의 눈망울을 닮은 사람. 엄홍길의 첫인상은 그랬다. 어떤 물음에든, 대답을 하기 전에 눈꼬리에 웃음부터 머금고 마는 그 순하디 순한 얼굴에서, 히말라야의 8,000m급 14좌를 완등한 산악인 엄홍길을 읽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세계에서 8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히말라야의 고봉 14좌를 모두 오른 산 사나이였다.

오랜 항해를 마치고 물에 오른 뱃사람들이 '육지 멀미'를 하듯, 산을 내려온 그 또한 방송 출연이나 이런저런 매체와의 인터뷰 같은 번잡한 일상을 몹시 힘들어했다. 그렇지만 그는 짧지 않은 인터뷰 시간 내내 진지한 자세로 성가신(?) 손님을 대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가질 법한 우쭐함 같은 것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는 '정복'이라는 말 자체를 아주 싫어했다.

"정복이라니요. 당치도 않은 소립니다. 산은 늘 거기에 있을 뿐인데, 어쩌다 한번 올라 잠시 머무르다 오는 것을 정복이라 할 수는 없지요."

역시 그는 정상에 오른 사람답게 '하심(下心)'에 있어서도 정상급이었다.

"8,000m급의 산은 단순한 열정만으로 오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산신이 품에 안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구도자적 자세로, 오로지 산과 하나가 된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요. 함께한 동료들 그리고 영원히 히말라야의 산사람이 되고 만 8명의 동지들과 함께 이룬 일입니다."

엄홍길의 겸손은 결코 의례적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신심 돈독한 불자이기도 하다. 망월사 아래 도봉산 중턱에서 자란 때문이다. 또한 그는 히말라야에 오를 때마다 세르파들과 함께 라마 불교식 산신제를 올린다. 간절한 마음과 겸허한 자세가 아니고서는 히말라야의 품에 안길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엄홍길에게도 실패와 좌절은 훈룡한 스승이었다. 그의 나이 스물다섯이 되던 1985년, 히말라야와의 첫 인연인 에베레스트 원정부터가 실패였다. 이듬해에 다시 문을 두드렸으나 세르파 한 명을 잃고 정상을 눈 앞에 둔 8,800m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어 1988년 세번째 도전 끝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입맞춤을 했고, 이후 2000년 7월 31일 K2봉 정상에 서기까지 15년의 세월 동안 28차례의 목숨을 건 도전으로 14좌 완등이라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면서,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산과의 극적인 일체감은 한 순간이고 무시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산을 오릅니다."

그는 올 11월쯤 남극의 빈슨매시프를 다녀오는 것으로 7대륙 최고봉 등정에 나설 것이라 한다. 이미 아시아의 에베레스트, 유럽의 엘부루스, 남미의 아콩카과를 올랐으니 그 꿈 또한 그리 멀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그 후에도 엄홍길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죽는 날까지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듯이.

윤제학 기자
(yunjh@buddhapia.com)

---



정세채와 떠나는

## 선·식·기·행

### 복령죽



## 강장효과 뛰어나고 머리맑게

〈중일아함경〉에 의하면 수행자의 섭생은 욕망을 억제하는 엄격한 절제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곧 적게 먹어야 기(氣)가 열리고, 기가 열려야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7일은 성철 스님의 열반 7주기이다. 성철 스님은 열반에 드실 때까지 소식과 자연식으로 일관하셨다. 스님에게 있어 음식은 곧 마음이어서 돈오돈수(頓悟頓修)에 일치하는 선식의 품격과 절도를 유지하셨던 셈이다. 스님이 생전에 드셨던 복령죽, 호두죽, 콩죽, 산에서 나는 마, 솔잎 차는 수험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건강식으로도 최고다.

음식과 관련된 스님의 일화도 많다. 어느 해인가 스님들이 모두 산에 올라 나무를 심다가 배가 고파지자, 한 스님이 절에 내려가 떡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었다. 이 광경을 멀리서 보던 성철 스님이 나무 심던 손을 멈추고 불호령을 하와 "그 떡이 먹고 싶으면 중 생활 끝내, 수행자는 모름지기 소식해라 했거늘 담장 떡을 마을 사람들에게 주고 와"라고 호통치신 일은 유명하다.

세간에 알려진 성철 스님의 선식을 보통 사람이 흉내내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솔잎 가루 섭생법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간단히 소개한다. 봄에는 동쪽, 여름에는 남쪽, 가을에는 서쪽, 겨울에는 북쪽 가지의 솔잎을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린 뒤 가루를 낸다. 생전에 스님은 이 솔잎가루, 세 숟가락, 검정콩가루, 검은깨가루 통밀가루, 꿀을 각 한 숟가락씩 섞어 맑은 물에 타서 하루 세 번씩(오전 11시, 오후 1시, 7시) 한 달을 먹으면 육신의 모든 병을 물리치고 2년을 먹으면 밤에도 대낮처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솔잎의 효능은 겨울에 뛰어나다. 솔잎 차는 선방 스님들의 혈액 순환을 돕고, 감기예방, 두통, 혈압에 특히 좋다.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백복령 10g, 찹쌀 100g

**요리법** ①검은 겉질을 벗긴 백복령을 가루로 만들고, 현미찹쌀은 충분히 불려 물 5컵을 붓고 끓인다. ②죽이 다 되면 백복령 가루를 넣고 다시 한번 끓인다.

**효능** 면역작용과 혈당치 강하작용. 강장효과가 뛰어나다. 머리를 맑게 하기 때문에 정신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과 수험생들에게 특히 좋다.

**필자약력** 약선식 연구가. 〈사찰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모색)의 저자

## 다시 푸는 경서

###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②

歲在壬寅正月
세재임인정월
赴上都普濟寺談禪法會
부상도보제사담선법회
一日與同學十餘人 約曰罷會後
일일여동학십여인 약왈파회후
當捨名利 隱遁山林 結爲同社
당사명리 은둔산림 결위동사
常以習定均慧 爲務 禮佛轉經
상이습정균혜 위무 예불전경
以至於執勞運力 各隨所任而經營之
이지어집로운력 각수소임이경영지
隨緣養性 放曠平生
수연양성 방광평생
遠追達士眞人之高行則豈不快哉
원추달사진인지고행즉기불쾌재

나는 임인년 정월에 서울 보제사의 담선법회에 나아갔다가, 어느 날 동학 십여인과 함께 약속하기를 "이 법회가 끝나면 응당 명리를 버리고 산림에 숨어서 함께 한마음이 되어 항

## 소임따라 인연따라 성품기르며

## 걸림없이 살면 실로 통쾌한 일

상 선정을 익히고 지혜 닦기를 힘쓰며, 예불하고, 경 읽으며, 울력하는데 이르기까지 각자 소임에 따라 경영하여 인연 따라 성품을 기르며 평생을 걸림없이 살면서 멀리로는 달사와 진인의 높은 행을 따른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諸公聞語曰 時當末法 正道沈隱
제공문어왈 시당말법 정도침은
何能以定慧 爲務 不如勤念彌陀
하능이정혜 위무 불여근념미타
修淨土之業也
수정토지업야

이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이 이런 뜻으로 말했다.

"지금은 말법(末法) 시대라 정도가 숨었는데 어찌 선정과 지혜 닦기에 힘쓰겠는가. 차라리 아미타불을 부지런히 염불하여 극락정토의 업을 닦는 것만 못하리라."

余曰時雖遷變 心性不移
여왈시수천변 심성불이
見法道之興衰者 是乃三乘權學之見
견법도지흥쇠자 시내삼승권학지견
有智之人 不應如是 君我逢此最上
유지지인 불응여시 군아봉차최상
乘法門 見聞熏習 豈非宿緣

승법문 견문훈습 기비숙연
而不自慶 返生絶分
이불자경 반생절분
甘委權學人則可謂辜負先祖
감위권학인즉가위고부선조
作最後斷佛種人也
작최후단불종인야
念佛轉經 萬行施爲 是沙門
염불전경 만행시위 시사문
住持常法 豈有妨碍 然不窮根本
주지상법 기유방애 연불궁근본
執相外求 恐被智人之所嗤矣
집상외구 공피지인지소치의
華嚴論云 此一乘教門
화엄론운 차일승교문
以根本智爲所成 名一切智乘
이근본지위소성 명일체지승

이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시간은 비록 변천한다지만 사람의 심성(心性)은 변하지 않는다. 법도(法道)에 흥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삼승권학(三乘權學: 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菩薩) 등 삼승인을 위하여 방편으로 가르친 것)이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그대들과 나는 가장 훌륭한 교법(敎法)을 만나서 보고, 듣고, 익히니 어찌 과거로부터 쌓아온 인연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스스로 경사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런 인연을 끊어버리고 권학인(權學人: 삼승의 근기를 가진 사람)으로 만족한다면 이는 선조의 뜻을 저버리고 끝내는 부처의 종자마저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 염불하고 독경하고 만행(萬行)을 닦는 것은 사문(沙門)으로서 항상 행하는 법이니 어찌 서로 방해가 되겠는가. 그러나 근본을 공부하지 않고 형상에 집착하여 밖에서 구한다면 지혜 있는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화엄론〉에도 보면 '일승교문(一乘敎門: 일체 중생이 성불한다는 입장에서 그 구제하는 교법이 하나뿐이고 또한 절대 진실한 법의 문)은 근본지(根本智: 일체 현상은 본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을 아는 지혜)로써 성취하는 것이므로 일체지승(一切智乘: 모든 존재에 관해 포괄적으로 아는 대승적인 지혜를 이름)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 큰 스님과의 대화

# 지종스님

영광 불갑사 조실

# "아집 버리면 화해 저절로"

백제 불교 최초 가람이라 전하는 모악산 불갑사(佛甲寺)에서는 가을 산사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불갑사의 명물 빠알간 상사화가 한껏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파아란 하늘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2일, 불갑사 조실 지종(知宗) 스님께 법문을 청했다. 마침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염화실에서 나오자 산토끼 한마리가 반갑다는 듯 쪼르르 산에서 내려왔다. 마치 오랜 도반처럼 산토끼의 출현을 반갑게 맞으며 먹이를 찾는 산토끼를 따라 이리 저리 움직이시는 스님에게서 미물에게도 차별없이 베푸는 무연자비심(無緣慈悲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종스님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습니다. 불자들은 모두 시냇물같은 무루복(無漏福)을 짓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라고 강조하셨다.



· 1922년 4월 전남 장성 生
· 1938년 백양사에서 법안스님을 은사로 득도
· 백양사 주지 역임
· 광주 정광학원 이사장 역임
·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에 주석

—근세의 대 선지식 만암스님의 회상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세에 가장 숭앙받는 고승중의 한분이신 만암스님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요. 만암스님은 열반에 드실때까지도 대중과 함께 공양하는 등 대중생활을 철저히 하신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만암스님께서 대중생활에서 경계하신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만암스님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했다면 벌써 견성성불했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도 하나도 이행 못하니 이러구 살지요. 만암스님은 워낙 언행이 일치하고 늘 겸손했으며 공심으로 일을 처리하니 누구나 다 추앙을 했어요.

만암스님은 80 넘어서도 대중과 같이 발우공양했어요. 찬도 다 똑같게 먹었어요. 누가 특별하게 찬대접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입이 하나가 아니다. 입은 다 똑같다. 노소를 막론하고 입은 다 똑같으니 같이 먹어야지, 나 혼자만 좋은 것 먹으면 되느냐"고 점잖게 거절하셨지요. 또 만암스님은 당신 개인에게 해 끼치는 일은 그냥 웃어넘겼지만 남에게 해 끼치는 일은 사자후로 경책하셨어요. 그분 만큼 공과 사가 분명했던 스님도 없다고 봅니다.

또 거짓된 행동이나 신심을 위장하거나 거짓말은 금방 아셨어요. 특히 거짓되게 위장하는 일에는 당장에 불호령을 내리셨지요.

이러한 일화가 있어요. 만암스님이 백양사를 운영할 땐데 절재산을 모두 모아보니까 3백석밖에 없어요. 명색이 본사인데 걱정이지. 그래서 4백석을 더 만들어놓아 7백석을 만들었어요. 개인 암자것을 한데 모아 한달에 서말씩 양식을 내줬어요. 다른 본사스님 개인 재산만도 못한 것을 가지고 큰 절을 잘 운영해 나갔는데 극도로 절약을 했음은 물론 철저하게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데만 썼기에 가능했지요. 가정도 그렇고 종단도 그렇고 국가도 그러한 마음으로 운영을 해야 내실을 기할 수 있어요.

내 요새 젊은 스님네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어. 요새 젊은 스님네들 돈 많다고 자가용 비싼 것 타고 돌아다녀 보기싫거든. 잔소리를 좀 하지요. 절집에 돈이 없어져야 중싸움 끝날 거예요.

불교신자라고 허울좋은 이름만 붙이지 말고 진실로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첫째, 공심(公心)을 가지고 항상 생활해야 해요. 둘째, 바른 신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심을 가지려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팔정도에 따라 살면 되지요. 셋째, 삼독을 버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는 자기의 자성을 밝히도록 부지런히 닦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스스로 회광반조(廻光反照)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면 불자로서 남의 손가락질을 면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남의 사표는 커녕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해요.

—예전과 비교해 요즘 스님되기는 다소 수월해진 것이 사실이지요. 스님들께서도 한없이 편하려면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것이 승려생활이고 또 엄격하게 고행하려면 한이 없는 것이 승려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스님은 행자생활만 5년 가까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좌교육도 엄격하게 시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79살인데 아무리 아파도 새벽 2시 20분이면 일어나 예불에 동참하고, 가능한 평상시에는 안 누울려고 애씁니다.

옛날에는 행자생활이 철저하게 중이 될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는 기간이었어요, 행자때 하는 것 보고 나서 머리깎아주었거든요.

지금은 중노릇하기 천하에 쉽다고 봐요. 행자라도 법당에 가서 예불도 하게 하고 경도 보게 하지만 그때는 어림도 없었지요.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사람됨이도 보고 행동도 보고 해서 신심도 없고 나태한 사람은 절대 머리 안 깎아주었어요.

—왜 경도 못보게 하고 공부를 안 시켰습니까?

▲그 사람의 중이 될 마음바탕이 어떤가를 보려고 한 것이지요. 불가에서는 행자때 신심을 바탕으로 평생 중노릇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행자때 나중의 수행생활을 잘할 수 있는 마음바탕을 충분히 다지라는 것이지요.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중이 되었다가도 환속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행자때 기본을 철저하게 다져놓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생 수행할 인내심과 하심을 행자때 기르는 것이지요. 수년동안 그렇게 익힌 다음에 경전말씀이 들어가고 참선공부를 해야지 아직 마음공부도 다지지 못했는데 섣불리 무엇부터 가르쳐놓으면 시건방져져서 못 써. 요새 스님네들 하는 처세가 왜들 저렇게 거칠고 제멋대로인가. 행자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최근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친구들의 놀림감이 되는 것을 보고 아들을 목졸라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하는데 세상이 더욱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요?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갈려다 가랑이 찢어져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요새는 전부 급하고 '빨리빨리'예요. 보다 편리하게 보다 편리하게 하다보니까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이상으로 분수넘치게 호화롭게 살려 하고 넉넉치 못한 사람은 내 능력이 없으니까 내 능력대로 살지 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만에서 세상을 원망해요.


100가지
병(病)을 고치는 의초(醫草) 인진쑥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경북 영천 보현산 자연산 채약




■ 비만/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쑥은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소가 있어 체중감소, 살이찌면 어혈이 초래되고 살이찌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쑥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에 남아있는 콜레스톨을 줄여서 혈압조절, 어혈을 해소 여성비만에 큰도움이 되며 인삼 녹용에 버금가는 생약으로【명의별곡】【본초강목】【동의보감】【유태종 박사의 식품보감】에도 나와있습니다.

■ 생명의 근원「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해 집니다」
해독 작용이 뛰어나 간이나빠 고생하시는 분께 좋으며, 옛날에는 황달에는 쑥을 달여 마셨습니다. (최영석 교수의 임상 실험으로 쑥이 간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 있음을 증명)

■ 신체의 뿌리「위가 튼튼해야 장이 좋아집니다」
쑥을 달여 먹으면 위장의 점막에서 혈액이 개선되어 위장이 튼튼해집니다.
소화 흡수도 잘되며 복부도 따뜻해지며 기운이 손으로 피로회복과 피부미용에 최고입니다.

■ 여성/몸을 따뜻하게..
쑥은 만성적인 통증(허리,어깨결림)냉기와 습기를 해소, 비타민 C도 많아 감기 예방과 고혈압·저혈압·신경통에 효과 있습니다.

■ 변비/쾌변(快便)으로 장을 튼튼하게
점액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단단한 변을 부드럽게 하므로 대변이 시원스럽게 나오도록 해줍니다. (붉은 변을 해소)

우체국
704064-02-029893
예금주 이만택

입금하시고 바로 전화해 주시면 한국 택배로 전국 어디든지 하루만에 우송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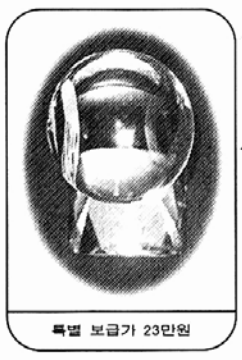
지장선원/한국건강가족동호인회
053)982-6778 011)813-3679



진귀한 보석 (크리스탈) 觀音球


옛부터 神通力을가진 水晶球 길흉을 예언하였다


수험생용 육각수정구 (보급가 7만원)


특별 보급가 23만원

학업성취, 수능시험, 자격고시, 국가고시, 승진, 취업성취 시험운100% 증아짐

소원성취 · 안전운행
사업번창 · 결혼영혼
가정화목 · 부부화합
삼재소멸 · 관재구설
운수대통, 각 간절한 한가지 소원을 말하고 기도를 드리면 소원을 알려 줌 알려 줌

※ 구입 하신 분에 한하여 을 알려드림
※ 진귀한 물건이므로 단 10 에게만 보급합니다.

농협 150042-52-200478 이만택
▶ 입금 확인 후 우송해 드립니다.
(053)982-6778 011-813-3679
지 장 선 원



빅-뉴스

피로?
나에게는 없다!

■ LIHIS 건강양말
· 건피부(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 강 양 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 숯 양말
· 당뇨에는 더 이상 당이 안 오름
· 원적외선 차단

건강숯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 담 문 의
(주) 화 동 섬 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5
전남북 특판점 062)956-7676~7
동대구 특판점 053)982-4976



神秘의 靜棗木
벽 조 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6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



87년 八公山갓바위 토굴에서 매일 삼천배의 100일기도 수행도중 神夢으로 지리산 인근 옥환마을에서 6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점지 받아 갓바위 인근절에서 십수년을 신도 대상으로 벽조목의 신비한 영험을 체험하였으며 특히 가공하지 않은 가지를 가져간 분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했읍니다.
혜봉합장

※ 권선(勸善)이나 불사에 필요한 분이 계시면 가공하지 않은 가지를 양도 할 수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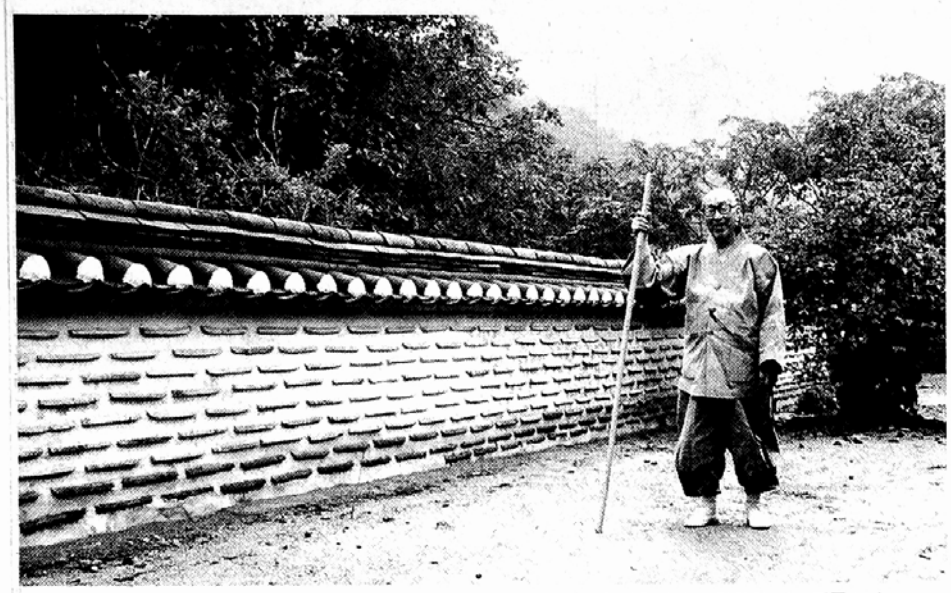


스님께 염주를 보시(布施)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業報를 받는다 20만번 돌리면 득생(得生)하고 1백만번이 넘어면 열반에 든다고 함

▌연속극 궁예 108염주크기

※ 간절한 한가지 소원이 있으신 분은 성명 생년월일 한가지 소원을 적어 보내주시면 벽조목으로 부도(符道)의 천부(天符)비법으로 소원성취를 이루어 드립니다.
(상담시간 10~오후 1時까지)

상담전화
053)982-4976 / 011-813-3679
지 장 선 원



◇내가 제일이라는 아집을 버리는 일이야말로 자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시는 지증스님.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할 책무가 있는 정치가들부터 자기 당 이익만 고집하고 제멋대로예요. 도덕이 바로 잡히고 사회윤리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경제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로지 물질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경제적인 발전만 우선시한 결과가 오늘날의 우리 사회 모습입니다. 원인없는 결과가 없는 법이지요. 기본도 안돼 있으면서 세계 선진국하고 똑같이 해 나갈려고 하니 문제지요.

이러한 때일수록 누구 할 것없이 부처님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법구경〉에서도 탐욕이 걱정을 낳고 탐욕이 두려움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욕(多欲)은 괴로움이라고 했고 생사피로가 탐욕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소욕(少欲)해 담담히 살아가면 몸과 마음이 자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해 적게 가진 것을 괴로워하고 물질에 집착한다면 평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새 황금만능주의로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믿어요. 돈은 제것이 아니예요. 돈이라는 것은 개인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쓰는 것이지, 누구 소유물이 아닌데 천년 만년 제 소유물로 만들려고 기를 쓰고 그걸로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 안타까워요.

부처님께서는 유루복과 무루복을 말씀하셨어요. 유루복은 한계가 있지만 무루복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흘러가는 산골의 시냇물을 보세요. 아무리 퍼내도 퍼내도 줄거나 마르지를 않아요. 그것이 무루복입니다. 두루복을 지을려면 어떡하면 되느냐. 나부터 비워버려야 해요. 나부터 비워버리면 남을 도와주었다 해도 더 못 도와주어서 그러지 내가 남을 도와주었다는 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못 미쳤구나, 내가 복을 못 지어서 더 못 주는구나 이러한 미안한 생각이 드는게 부처님의 자비정신입니다. 뭐 좀 냈다고 텔레비전에 사진내고 신문에 큼직하게 이름내고 하는 것은 복짓는 일이 아니예요.

부처님정신은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조차 갖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이 편치 못하면 내 마음도 편치 못한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가끔 자기의 생활을 돌이켜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회광반조해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만, 자기 가족만 위할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요새는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아까워서 억지로 뺏어버리는 풍조니 문제지.

마음을 비우고 분수대로 살아야 됩니다. 국민각자가 자기 분수를 살펴 살아야 하는데 분수를 넘어 살려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이 오는 겁니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왜 비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치가들부터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국민들도 따라합니다. 또 공인일수록 언행이 일치돼야 해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편안게 하고 잘 살게 하라고 뽑아놨는데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 "나누면 나눌수록 세상은 살만"
## "공인일수록 언행일치 더 필요"

—불자들 각자가 진실로 참회하고 자신부터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이 사회가 개혁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자신을 개혁시키는 첫 걸음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다스린다는 말은 마음을 잘 운용하라는 말인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쓰는 것인지요.

▲우선 나부터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아집을 버리면 모든게 편하고 화해가 저절로 됩니다. 아집을 버리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부모자식간이나 형제간에도 갈등이 와요. 천하를 다스리는 일도 시작은 자기 마음부터 조복받아야 해요. 수신제가(修身齊家)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야. 내집부터 편안하고 '화합하면 그것이 곧바로 세계의 화합으로 연결되는 이치를 알아야 해요.

아집이라는 것은 제가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것인데 수행에 가장 방해가 되는 병통이예요. 나를 버려라 하는 것은 내가 잘 났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조금 지고 들어가라는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 사심이 없고 아집을 버리고 오로지 공심으로 추진하면 다 수긍하고 따르게 되어 화합이 저절로 됩니다.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났고, 대접받을 생각만 하면 어떤 일도 못해요.

또 이세상이 더불어 산다는, 상의상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나누는 정신 아니면 세상이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어떤한 마음가짐으로 수행에 임해야 하는지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이 내 몸뚱아리가 불신(佛身)도 되고 법당도 되지만 잘못하면 마구니 집이 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세요. 이 육신을 법당을 만들 것이냐, 마구니집을 만들 것이냐 는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학문명 물질문명이라는 것이 육신을 한없이 편하게 하지만 육신이 한없이 편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해요. 온갖 망상은 게으른 육신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육신을 헌 신짝같이 버렸기에 부처가 되었어요. 엄격한 수행을 통해 불신이 된 것이지요. 애욕이란게 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 육신 하나 조복을 받을 정도가 못되면 수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육신을 조복받을 수 있습니까?

▲무상하다는 사실을 바로 보고, 이 육신이 가장 하찮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공창이라고 까지 표현했어요. 창이라는 것은 썩어갖고 피고름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코 눈 입 등 9구멍에서는 늘 더러운 것이 나오지요. 자기가 뱉은 침은 아니지만 남이 뱉은 침은 더럽다고 생각하니 어리석지요.

초개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 풀끝에 달린 이슬, 즉 이 몸이 무상한 것이다 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찰나찰나 변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옛날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나 나 하지만 어떤 것이 나인가. 육신덩어리가 나라면, 내 참모습이라면 육신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육신덩어리는 순간순간 변해가요. 샛별같던 눈은 어두침침해지고 거울같이 맑았던 귀가 잘 안들리고 좋은 이빨 다 부서지고 그러니 이 무상한 육신을 보존하는데 온갖 정성을 들이고 벌벌 떨면서 하나 아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신이 자기의 전부인줄 알고, 영원할 줄 알고 끔찍하게 위하지요.

나이들어 세상 허망한줄 알고 뒤늦게 공부좀 해 보려고 해도 힘도 없고, 번뇌망상만 늘어나고… 안돼요.

늙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부지런히 닦아 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산은 천근만근 쌓아놓고 죽어봤자 죽을 때 갖고가도 못하고 업만 잔뜩 지어 놓는 꼴이예요.

대담=이경숙 부장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 석두 스님

산행을 한다. 가파른 산등성이를 몇 번이고 오르내리다 보면 갈증이 인다. 그때 조그만 바위틈 졸졸거리며 고여있는 샘물을 두손으로 조용히 떠서 목을 축여보자. 그리고 일렁이는 햇빛 물살 속에서 말갛게 동그라미를 그려 나가는 샘물을 바라본다. 그러면 동그란 얼굴의 장난기 많은 그 스님의 맑은 심성이 생각난다.

바람이 분다. 어느덧 가을이란 계절이 바람을 안고 저 계곡 어디에선가 부터 달려오고 있는가 보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휑한 가슴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간다. 그러면 늘 가을바람처럼 맑고 시원한 성격으로 녹차 한잔을 들이밀던 그 스님의 웃음소리가 생각난다.

석두(石頭)스님.

어릴 적부터 무척 개구장이였었나 보다. 산중에서는 대개 그믐날과 보름전날에 삭발을 하는데 어쩌다 그 스님의 머리를 깎아주다 보면 마치 머리 전체가 휴화산의 분화구를 연상케 할만큼 흉터가 많다. 여간 조심하지 않고는 베어지기 십상이다. 아마도 석두스님은 어릴 적 골목대장쯤은 되지 않았을까 ?

이 석두스님의 행자시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있다. 어느 날 은사스님께서 개울가에 쭈그리고 앉아 고무신을 닦는 모습이 이 행자가

### 가끔 엉뚱한 행동하지만 가진것 다주는 맑은 심성

보기에는 무척이나 죄송하고도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어떻게 하면 저 고무신을 매일 닦지 않아도 될까?" 그래서 고민 끝에 그 해답을 찾았다. 그리고는 은사스님에게 자랑스럽게 고하였다. "시님, 이제는요, 그 고무신을 애써 씻을 필요는 없걸랑요. 지가요 다 조치를 취해 놓았걸랑요." 은사스님이 요놈이 또 무슨 짓을 저질렀나 싶어 따라가 보니 정말로 고무신이 유난히도 반짝거리는 게 아닌가. 그래도 미심쩍어 가까이 가보니 아뿔싸 흰 고무신에 니스를 칠해 놓았던 것이다. 하나만 더 소개해 보자.

산중에서는 스님들 방마다 차상(茶床)이 있어 항상 차를 가까이 벗하고 사는데 하루는 사숙스님 방에 가보니 창살문짝에 바퀴를 달고 유리를 얹은 그 차상이 석두스님 보기에는 무척이나 좋았다. 그래서 스님도 하나 만들려고 작심을 하게 되는데 도통 문짝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급한 김에 화엄사 보수공사로 잠시 떼어 보관해둔 국보급 문짝을 가지고 차상을 만들었다니 정말 못 말리는 스님이었다. 스님 법명이 돌 석(石)자 머리 두(頭)자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은사스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석두 스님은 무엇이든 자신이 소유하는 법이 없다. 가진 것 있으면 다 주어버리고 그도 모자라면 어디서 구해서든 줘 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석두스님이 해인 강원에 있을 때다. 석두스님의 은사스님께 없었던 버릇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석두스님 때문이란다. 석두스님이 다녀간 자리는 온전하게 보전된 것이 없었다. 온갖 궂을 다 뒤져 옷이며 내의며 양말이며 또 기타 것들을 주섬주섬 담아 가지고는 주위 어려운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 버리는 통에 급기야 은사스님께서는 자물통을 채웠다나 어쨌다나?

하지만 석두스님의 생각이 모자라서 생기는 일들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 어떤 스님보다 속이 꽉 차고 정이 많은 스님이라 너무나 알차고 알차서 삐져나온 행동임을 잘 알고 있다.

석두스님이 사미계를 받을 때의 일이다. 힘든 행자생활을 마치고 계를 받은 사미들은 열심히 중생활 잘하겠노라고 서원하며 서로가 서로의 신심을 북돋워 주며 삼삼오오 일주문을 나설 때였다. 어디선가 격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야 이놈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중이 되려고 하느냐 ?" 호통소리와 함께 한 사미가 가족들의 손에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가는데 또 다른 한곳에서는 손에 꽃다발을 든 중년부부가 한 사미에게 꽃공양을 올린 다음, 비가오는 진흙탕 속에서 삼배를 올리고 있었다. 그 사미가 석두스님이며 중년부부는 석두스님의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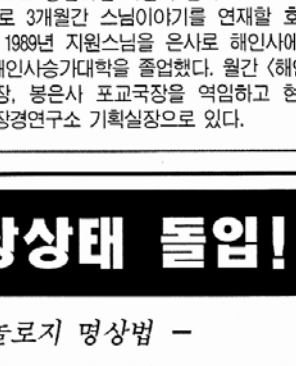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님이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석두스님이었으니 그 심성이 맑기야 오죽하겠는가.

지금 석두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천은사에서 천일기도 중이다. 강원졸업하고 얼마 후 시작했으니까 한 오백일쯤 되나보다. 항상 베풀기 좋아하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간직할 줄 아는 스님. 가끔씩 엉뚱한 행동으로 곤혹스럽게도 만들고 곧잘 응석도 부릴 줄 아는 스님. 이 석두스님을 만난지도 칠팔 년이 되어간다. 항상 어린 줄만 알았던 스님이지만 정말로 출가의 정신을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자던 경책의 말로 나태해진 나 자신을 곧잘 일깨우기도 하는 스님. 이제는 이십대 후반의 나이에 하루 사분정근의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나의 손목엔 관솔을 손으로 빚어만든 염주가 걸려있다. 얼마 전 석두스님이 서울 생활 중에서도 항상 초발심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천은사에서 보내준 선물이다. 언제든지 손목을 들면 솔 향기가 난다. 이 솔 향기는 석두스님을 닮아 있다. 항상 언제까지나 이 솔 향기처럼 푸르고 성성하게 천진무구함을 잃지않는 스님으로 정진하길 기원해 본다.

*앞으로 3개월간 스님이야기를 연재할 호산스님은 1989년 지원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월간 〈해인〉 출판부장, 봉은사 포교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으로 있다.


무진장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강좌
유마경 대강좌



근세 한국불교포교에 앞장섰던 무진장 큰스님께 직접 대승불교경전을 공부할 평생경전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뜻을 기리고 수행공부코져 합니다.

1. 강의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1년)
2. 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안국동로타리 웅전갤러리 2층)
3. 개강일시 2000년 11월 5일(일) 오후6시
4. 개설경전 유마경 · 육조단경 · 금강경 · 선가귀감 · 원각경 · 천태학 · 법화경 · 화엄경등
5. 입지수계 매과목 경전공부후 정기적으로 무진장 큰스님으로부터 입지수계
6. 입 학 금 50,000원
7. 등록하신 모든분들께 유마경교재와 기념책가방을 드림

※ 유마경은 불이법문으로 유명하며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한역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힐소설경입니다.

※ 유마경 보살품 제 4. (광엄동자와 도량)
그때 유마힐 거사는 성안으로 들어 오고 있었다.
광엄동자가 인사를 하고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도량에서 오는 길이야"
광엄동자가 물었다. "도량은 어디입니까?"
유마힐거사는 대답했다.
직심(直心)이 도량이며, 심심(深心)이 도량이며,
보리심(菩提心)이 도량이니라".....

※ 문의 : 사무국 ☎ (02) 732-1206~8 / FAX (02) 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 산 반 야 회

28분 안에 선승과 같은 명상상태 돌입!
— "초월적 경험의 보편화" 신과학 뉴로테크놀로지 명상법 —



"도심 속 포교당에서 체험을 위주로 하는 명상을 지도한지 벌써 2년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 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믿고있지만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체계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구상하던 중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분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어 메가플러스를 구입하여 늘 사용한 결과, 지금은 불면증은 사라진지 오래고, 리듬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명상생활과 함께 다이어트까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께서 명상을 지도하시는 만큼 명상기기로써 또 시스템의 한 방법으로써 사용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적극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달쯤 그냥 지냈는데 우연히 모 월간지를 보고서 메가플러스가 어떤 명상시스템인지 알게되어 구입하게 되었다. 매일 거르지 않고 하루 한두 시간씩 수행해본 결과 지금은 5분이내에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에 도달하며 학생들이 주로 한다는 9번에서는 뚜렷하게 집중력이 향상됨을 느꼈다. 내친김에 오라진동쿠션과 백색광안경을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해본 결과(11번 지구에너지 명상, 17번 내적 즐거움, 19번 에너자이저) 역동적인 진동의 느낌과 함께 현란하기까지 하면서 환상적인 빛과 소리의 연속된 리듬은 빠른 시간 내에 사념을 통제하고 빛과 소리에 쉽게 집중시킴으로써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를 유도하며 쌓였던 피로감마저 말끔히 씻어 주었다. 메가플러스 안내책자에는 명상이 무엇인지 체계있는 이론과 기법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처음 명상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문 수행인, 직장인, 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메가플러스 명상프로그램은 현대사회를 사는 모든이들에게 공통되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자. 급변하는 21세기에는 명상은 누구에게나 필요로하는 수행이면서 당위인 것이다. 메가플러스의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으로 심신의 조화를 창조하고 보다 여유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이다.

<은담명상체험교실 종익 합장 · (031) 742-9859>

메가플러스



메가플러스는 릴렉세이션, 학습, 수면, 그리고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창의력과 시각화 등 20개 프로그램을 내장, 다양한 명상체험 가능 (기본사양 녹색광안경/옵션 청색, 보라색, 순백색광안경)
〈미국 마이크로펌사 제품 Made in USA〉

오라진동쿠션



오라쿠션은 메가플러스와 함께 작동되며 이를 체감진동으로 변형시켜, 특히 육체수준의 명상, 기공과 차크라, 유체이탈, 무시간상태을 보다 강력하게 증강시킴
〈미국 오라시스템사 제품 /중국 OEM〉

사용효과

재충전효과 : 짧은 시간 내에 신체이완과 깊은 휴식으로 생체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피로회복, 스트레스해소, 정신안정, 불면증해소, 집중력 증강의 98% 효과를 보장한다.

명상효과 : 알파/세타파 중간지점(여명의 지대)에서 빛의 관법(옴시테크닉/챈즈펠드)과 소리관법으로 크게 나누어 수행할 수 있으며, 메가플러스의 바이놀 비트와 램핑, 페이즈 기능은 전 차크라의 개방(에테르체 수준), 무시간/진공상태 경험을 보다 쉽게 유도해준다.

마인드테크 제품/구입문의 (02) 888-2142

※ 전화주시면 「뇌파연구와 깨달음」 소책자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불교문화 행사 풍성 *박물관 가을 특별전*

10월을 맞아 여러 박물관들이 특별전을 준비하며, 평소 접할 수 없었던 각종 문화재와 자료들을 공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문화재와 자료들은 학술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두루 의미있는 것들이어서 주목된다. 주말을 이용해 온가족이 함께 박물관을 찾아 우리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겨레의 글, 한글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이 제554회 한글날을 맞아 준비한 '겨레의 글, 한글 특별전'은 우리 한글을 주제로 한 특별전으로는 처음 전개되는 전시다.

11월 5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되는 이 전시에는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미술관 소장)〉과 국보 제142호인 〈동국정운(건국대박물관 소장)〉을 비롯한 국보 3점과 보물 10점 등 한글과 관련된 총1백30여점의 문화재가 선보인다. 특히 국보 제212호 〈능엄경언해〉와 범종으로서는 드물게 한글이 음각된 구리종(원정사 성보박물관 소장),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00호 한글부모은중경 목판(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등 불교관련 한글유물이 다수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들 외에도 보물 제1220호로 지정된 조선 현종의 어필 편지와 왕실관련 한글유물, 추사 김정희 일가의 한글편지 등 한글 관련 희귀 문헌과 불교의 토착화, 교육의 발달, 근대화, 여성문화의 변천 등을 보여주는 한글 자료들이 소주제별로 전시된다.(02)398-5077

**●동대박물관 '근대 한국학 자료전'**

근대 한국학과 관련된 주요 저술과 유묵, 유필 등을 선보이는 동국대박물관의 '근대 한국학자료전'은 동국대가 6년만에 준비한 특별전이다. 17일~12월 1일까지 박물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전은 불교학, 국사학, 국어학, 국문학, 한문학, 철학, 미술사학, 고고학을 중심으로 법학, 교육학, 국악, 언론, 서지학, 민속학, 사회학 등 역사 문화 사회 등 한국학 연구 제분야의 자료들을 한데 모았다. 1900년대 이후 한국학 연구자들의 성과를 중심으로 육필원고 외 각종 자료 187점 703매와 저서류 335권이 선보인다.

특히 불교학 분야에는 한국불교사학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조명기 박사의 육필노트 〈원효대사연구〉을 비롯, 권상로 선생의 육필원고 〈능가경〉 서두, 이기영 박사의 육필원고 〈진여와 중습〉 〈원효의 일승원교〉 등이 공개된다.

이 전시품들은 동국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얼마전 정년 퇴임한 황순구 박사의 애장품으로 평상시 접할 수 없는 희귀 자료들이다. (02)2260-3463



◇ '겨레의 글, 한글특별전'에서 선보이는 월정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구리종. 범종으로서는 드물게 한글이 음각되어 있다.

## 중앙박물관 '능엄경언해' 등 한글 불교유물 다수
## 호림박물관 도자기 · 전적 · 불구류 1백21점 전시

**●호림박물관 '구입 문화재 특별전 Ⅱ'**

11월 5일까지 열리는 '호림박물관 구입문화재 특별전 Ⅱ'는 지난 9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호림박물관이 수집한 자료 가운데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만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구입문화재 특별전은 도자기와 전적(典籍), 불구류(佛具類) 등 104건 121점이 전시된다.

고려시대의 전적류 가운데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과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은 특히 눈길을 끈다. 금속공예의 수준과 명문(銘文)을 통해 당시의 사회, 경제상황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불구류(佛具類) 또한 고려시대의 것을 중심으로 전시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청동소종(靑銅小鐘)〉은 기형(器形)·문양의 배치와 내용·크기 등에서 고려 범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수작으로 꼽힌다. 〈청동 정우육년 명반자(靑銅貞祐六年 銘飯子)〉라는 명문을 통하여 제작목적·시납처(施納處)·제작연대(1218년) 등을 알 수 있다.(02)858-2500

이은지 기자(ejlee@buddhapia.com)

## "오대산계 화엄사상 東亞불교학 발전 열쇠"

### 삼화사 국제학술회서 고지마씨 주장



◇고지마 다이잔

오대산계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의 불교학을 융합, 21세기 동아시아 불교학의 초석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지마 다이잔(일본 화엄학연구소장) 박사는 5일 열린 강원도 두타산 삼화사(주지 원행)의 국제학술강연회에서 '21세기 불교학과 그 실천'을 발표하고, "불교 사상을 시대와 의미로 구분·연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상 사이의 영향 관계를 탐구하고 동아시아 불교 전체를 꿰뚫는 연구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해 주목된다.

고지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3국의 불교학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불교학은 오대산계 화엄사상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통현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오대산계 화엄사상은 중국의 임제 스님과 한국의 지눌 스님 그리고 일본의 묘에 스님 등 한 시대를 주도했던 3국 고승들의 불교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눌 스님의 경우, 자신의 저서 〈화엄절요〉 서문에 "화엄의 '사사무애'의 본 뜻을 알고자 수년동안 고뇌했는데, 이통현의 〈신화엄경론〉을 만나 단박에 깨우쳤다"고 썼을 정도다.

또한 고지마 박사는 21세기 동아시아의 불교학은 실천하는 불교학이어야 한다는 데 주목하고, "오대산계 화엄사상의 실천행인 '불광관(佛光觀)'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광관이란 이미지트레이닝에 가까운 수행 방편의 하나로, 무상(無心)·무분별(無分別) 등을 자신에게 묻는 화두선의 하나다. 지업·법장·의상 스님으로 이어지는 종남산계 화엄사상에는 선정삼매에 관한 철학이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행이 없다.

고지마 박사는 결론에서 "오대산계 화엄사상과 화두선을 결합시킨 동아시아 불교학은 연구에서 머물기보다는 일상에 투영돼, 불자들이 무아(無我)라는 이상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동아시아 불교학의 역할까지도 제언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다악 공연에서는 선다 시연과 다솜, 설치미술 등도 선보인다.

## 차와 전통음악이 빚는 예향

### 15일 국악원 다악공연

한 잔의 차와 우리 정서에 꼭 맞는 다악 연주곡을 들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악(茶樂)' 공연이 15일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다.

다악이라는 음악 장르를 개발해 국내외에 선보이고 있는 한국창작음악연구회가 준비한 '차와 우리음악의 다리놓기 다악 페스티벌 2000-찻잔에 스며드는 사계'가 바로 그것.

지난 98년 첫 공연 이후 국내에서 세 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다악 공연에서는 새로운 삶의 음악으로 다악을 조명하고, 차 한잔 속에 우리문화의 상징을 담아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테마로 봄 부분은 정태봉교수(서울대 작곡과)가 '새벽-여린 찻잎 이슬에 맺힌 한세상'을, 여름은 이병욱교수(서원대 음악과)가 '한낮-타는 마음 한가운데'를, 가을은 길일섭교수(국민대 작곡과)가 '저녁-낙엽이 발쳐든 찻잔', 겨울은 박일훈씨(국립국악원 연구실장)가 '밤-다우삼매'를 각각 우리 전통음악의 선율로 담아낸다. (02)2272-2152

## 제1회 한국전통문화미술인전



◇전연호 作 '수월관음도'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회장 전연호)가 '제1회 한국전통문화미술인전'을 15일~20일까지 대구시민회관 상설전시실에서 갖는다.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는 지난 89년 전통문화와 불교미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대구 경북지역의 전통미술인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모임이다. 단청, 불화, 조각, 건축 등 각 분야의 불교미술과 전통미술에 종사하는 지역의 작가 16명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전 회원이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문화재 기술, 기능보유자이며, 또한 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전수자로서 우리나라 전통문화미술의 중흥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작품활동에 전념해 오던 회원들이 모여 처음으로 여는 회원전으로 지난해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 섬세함과 화려함이 돋보이는 전연호씨의 불화 '수월관음도'를 비롯, 수행자적 기운과 현대적 미감이 교차하는 김윤기씨의 브론즈작품 '나한 I', 한지에 채색한 이정오씨의 '비천상' 등 20여 작품이 선보인다.(053)639-0407

이은지 기자



### 공옥진 금강호서 창무극

해학과 익살, 신바람의 무대로 감동을 선사해 온 동물춤의 명인 불자 공옥진씨(69세)가 16일 오후 7시 금강산 성지 순례호 선상에서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창무극 특별공연'을 갖는다.

이 공연은 불교신문사가 창간 40주년 기념행사로 15~18일까지 실시하는 '금강산 성지순례'의 순례자들을 위해 마련된 문화공연이다. 지난 98년 뇌일혈로 쓰러졌을 때도 광주 원효사를 찾았을 만큼 불심이 깊은 공씨는 이번 공연에서 창무극 심청전과 흥부전, 동물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불교방송 16일 가을 개편

### '지금은 불교시대' 등 신설…청소년 프로 강화

불교방송이 16일부터 영화음악실(밤10시 5분), 삶며 생각하며(밤 11시5분), 세계음악여행(일요일, 밤 11시5분), 프라임뮤직(새벽 1시) 등 청소년과 청년 대상의 포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새 단장을 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삶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는 철학토론, 포교정보 프로그램 강화, 국악 프로 신설 등 일반 방송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단장으로 불자들의 주파수를 고정시키겠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다. 우선 청취율이 높은 황금 시간대인 오후 4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월~토)는 교계종합시사 정보프로그램인 '지금은 불교시대'를 신설, 최정화 前 현대불교 편집국장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생생한 교계 소식을 전달한다. 백팔가요(낮 12시 20분)는 재치 발랄한 가수 김은정씨가 새로 진행을 맡아 나른한 오후 시간대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된다.

특히 개국 이래 처음으로 일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생방송 즐거우셨습니까'(오후 4시 15분)는 음악, 일반 생활 정보, 교통소식, 칭찬해 줍시다 등 주말 오후 가족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정보오락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또 국악프로인 '우리노래 기행'(밤 9시 45분)과 '세상만사 덤더꿍'(일요일, 오후 2시5분)을 신설해 민족문화를 생활속에서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길을 찾아서'(일요일, 저녁 7시), 'BBS 토론, 철학과 현실'(일요일, 밤 9시25분) 등도 이번 개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TrekSta

고마우신 분들께 사랑을 선물하세요!

불심으로 가는 그 길에
언제나 자비로가 함께 합니다!

자비로 제품특징 남녀공용(225㎜~265㎜)

- 천연가죽 뉴벅의 사용으로 착화감이 뛰어남
- 하이퍼그립의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접지력 탁월
- 특수방수 처리
- 스토퍼를 사용해 워킹시 발의 안정감을 줌 (스토퍼 고정용 자석 부착으로 착화시 더욱 편리해짐)
- 통기성이 뛰어난 고급삼베 인솔 사용
- 가볍고 편안해서 스님 및 불자들의 신행에 적합

전국 르까프 매장에서 만나실수 있습니다

•본 사:051)309-7000 •서울영업본부:02)3200-600
•동서울지점: 02)3200-620 •남서울지점: 02)3200-780 •대전지점: 042)582-1892
•호남지점: 062)956-2131 •대구지점 053)964-5476 •영남지점: 051)309-7110

Only One Number One — (주)트렉스타
본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88-1 TEL: 051-309-3663(代)
FAX: 051-309-3666 서울영업소/ 02-863-2566
http://www.treksta.co.kr



성불화-자비로

# 남천축 향지국의 셋째 왕자가 궁을 떠났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 달마 이야기 ②

### (1) 천상산(天象山)의 새벽

#### ◇셋째 왕자의 잠적

달마(達摩)대사의 본래 이름은 보리다라(菩提多羅). 오늘날의 남인도 즉 남천축(南天竺) 향지극(香至國)의 셋째 왕자로 태어났다.

어느 날 향지국의 궁성 안에서는 나라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의 놀랄만한 소식이 은밀하고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셋째 왕자가 깜쪽같이 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셋째 왕자를 모시던 내관과 시녀들은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왕자 곁에서 시중을 들었는데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으니 이만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보리다라 왕자는 왕과 왕후가 가장 기대를 걸었던 존재가 아니던가. 비록 셋째이긴 했지만 나라 안팎에선 이미 유일한 희망이요 후계자라는 소리를 들어온 지 오래였다. 그만치 보리다라 왕자는 출중했다. 숭고함과 존귀함 그리고 뛰어난 재능은 누구도 감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였다.

한데 국왕은 뜻밖에도 셋째 왕자가 떠나 간 일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았다. 전혀 화를 내지도 않았다. 담담하게 현실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극왕은 이미 그럴 가능성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리다라는 타고난 본성이 무엇에 매이기를 싫어했다. 산천에 노니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은 그의 형들과 전혀 달랐다. 그는 사치스러움을 부끄럽게 여기고 탐욕을 사갈(蛇蝎)처럼 싫어했다. 어려서부터도 부(富)와 귀(貴)를 좋아하지 않았다.

#### 부와 귀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제왕학(帝王學)을 닦으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골똘히 생각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첫째 부조리(不條理)를 타파하여 중생들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무공(武功)을 연마하여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보리다라는 오래 전에 이런 견해를 부왕에게 말한 일이 있었다. 왕은 셋째 왕자의 생각이 마치 자기의 속마음을 꿰뚫은 듯 싶어 흡족해 했다. 국왕 자신도 바로 그 두 가지 점에 중점을 두어 외적의 침입을 격퇴하여 나라의 기반을 공고히 했고 나아가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셋째 왕자의 잠적 사건을 불문에 붙이면서 두 가지 지시를 내렸다. 하나는 보리다라의 행적을 찾되 그의 행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 또 하나는 어느 곳에 있는지 알면 그에게 금은보화를 좀 보내서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왕의 참뜻이 전해지자 궁 안의 사람들 모두는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몰래 왕궁을 떠나온 보리다라는 명산을 두루 돌면서 자연 속에 몸을 던졌다. 오래된 절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찾아 다녔다. 학덕이 높은 스님에겐 경전의 뜻을 물었고 무도에 능한 스승을 만나면 연공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이 곳 천상산(天象山)에 자리한 천상사에 머문 지도 벌써 두 해가 지났다. 보리다라는 항상 해 오던 대로 새벽 수련에 열중했다. 어슴푸레한 새벽 안개 속에 감싸여 있는 천상산 자락은 신비한 기운 마저 감돈다.

아직 새도 울지 않고 벌레도 깨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 맑고 서늘한 바람이 절 앞의 천상석(天象石)을 어루만진다. 천상석은 마치 살아있는 코끼리처럼 귀, 코, 눈, 꼬리, 발이 뚜렷했다. 왜 천상산이란 산 이름이나 천상사라는 절 이름이 비롯되었는지를 짐작케 해주는 그런 석상이었다.

**키가 팔척이 넘는 보리다라**
**천상사에 머문지 두해째**
**이른 새벽 검무수련 몰두**
**몸에선 예지의 禪韻이…**

보리다라는 천하를 두루 다녀 보았지만 대자연과 사찰과 석상이 이처럼 신묘하게 조화를 이룬 곳은 일찍이 본 일이 없었다. 키가 팔척이 넘는 보리다라는 천상석을 맴돌면서 검무(劍舞) 수련을 시작했다. 그의 몸에선 비범한 예지의 신운(神韻)이 풍겼다. 시퍼렇게 날이 선 검을 손에 잡고 움직이는 품세는 이미 어떤 경지를 넘은 듯 싶었다. 때로는 태풍이 나무를 흔들듯 칼바람이 일고, 때로는 가랑비처럼 잔잔하게 춤을 추었다. 고요하게 서 있을 땐 바위 같았고 뛰어오르면 마치 승천하는 용인 듯 했다.

수련을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흘렀다. 어슴푸레하던 동쪽 하늘이 훤하게 밝아 온다. 숲 속의 새들도 보금자리에서 깨어났는지 푸드득 날개 소리와 함께 지저귀기 시작했다. 칼을 거둔 왕자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는 천상석 위로 뛰어올라가서 잠시 쉬고 싶었다. 천상석은 사람 키보다도 몇 길이나 높았다. 가파르기는 마치 절벽 같았다. 보통 재주론 결코 미칠 수 없는 그런 높이에 코끼리 상이 우뚝 솟아 있었다.

보리다라는 두 손을 힘차게 뿌리치며 훌쩍 몸을 날렸다. 구름을 밟고 바람을 타는 비술(秘術)로 높이 사뿐히 날아올라 천상석의 등마루에 가볍게 내려섰다. 바로 그때 석상 아래에서 은방울 같은 목소리가 들려 왔다.

"대단한 솜씨예요! 정말 대단해요…."

보리다라는 몸을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낯익은 얼굴의 여인이 위를 올려다보면서 향긋한 미소를 뿜고 있었다. 순간 보리다라는 할 말을 잊었다. 여인의 흰 비단 치맛자락은 천의(天衣)인 양 하늘거렸고, 초생달 같은 눈매에 발그레한 뺨은 옥으로 빚은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채 조용한 목소리로 보리다라를 향해 간단한 인사를 건넸다.

"사형! 일찍 일어 나셨네요? 수련하셨나 보죠." 보리다라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 하늘거리는 비단 치맛자락

이 여인으로 말하자면 보리다라와 한 스승 밑에서 무술을 배우는 사매(師妹) 막의(莫依)였다. 그는 막의가 웃음을 보내는 속뜻을 알았다. 그는 구름을 밟고 바람을 타는 비술을 부린 것을 후회했다. 그런 비술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보리다라가 지닌 원래의 공력만으로도 천상석에 날아오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다. 보리다라는 단지 수련의 피로를 덜기 위해 비술을 썼을 뿐이다. 하지만 선문(禪門)의 수련에서는 그런 편법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보리다라는 할 말이 없었다. 몸을 돌려 천상석 위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두 손을 합장하고 두 눈을 지긋이 감았다. 호흡을 조용히 가다듬으며 좌선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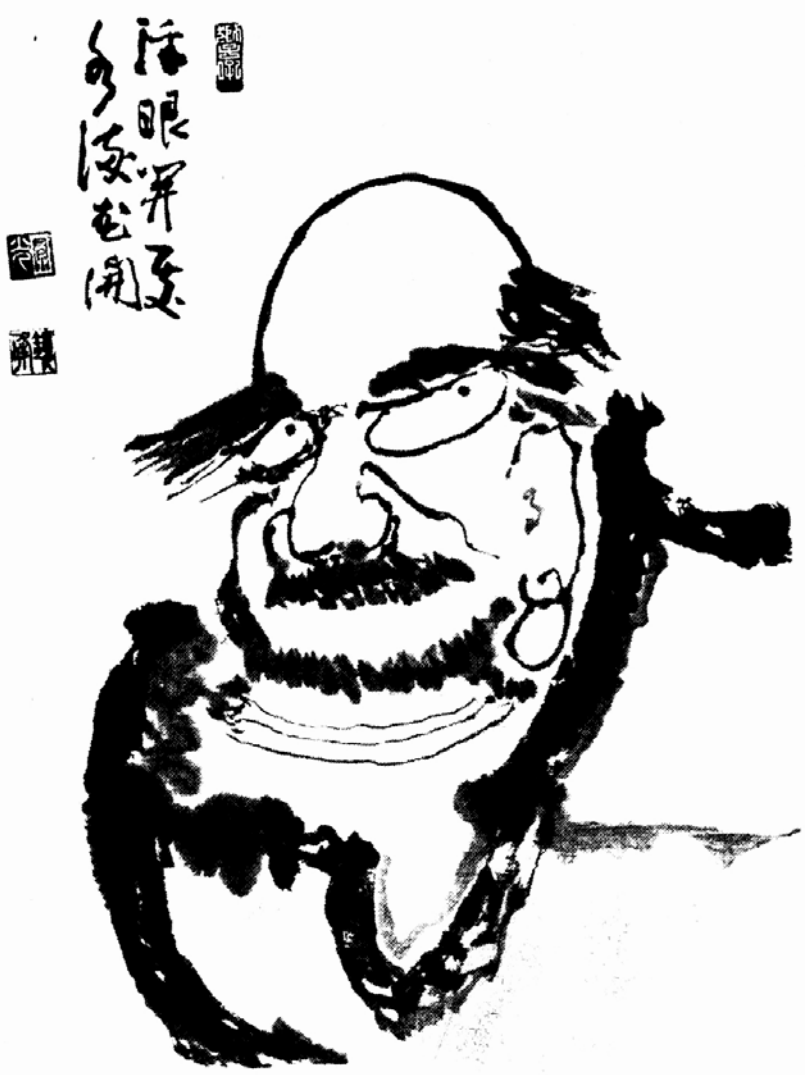
막의의 웃음소리가 뚝 멈췄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순간, 보리다라의 귓가에 한줄기 바람 기운이 스친다. 살짝 눈을 떠보니 막의가 눈앞에 내려앉는 참이었다. 총기어린 눈동자를 굴리면서 막의는 우스워 죽겠다는 표정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보리다라는 온 몸이 달아올랐다. 또 한번의 실수를 뼈아프게 후회했다. 본래 좌선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사매 앞에서 짐짓 좌선하는 척 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본래 좌선은 고요히 관(觀)하는 것이다. 관이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내면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고요함은 선천적인 지혜에 접근하는 온상이라고 일컬어진다. 지혜는 고요함의 궁극에서 나타나는 얼빛이다. 그러므로 불가의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도 고요함 즉 선정(禪定)을 중심으로 반야를 이루어가는 닦음인 것이다.

일찍이 노자(老子)는 비어 있음을 철저히 정관(靜觀)하고, 고요함을 착실하게 지키면 만물이 함께 번성하되 그 돌아감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본래의 자리 곧 뿌리로 돌아옴을 일컬어 존재의 운명으로 돌아감이라고 했다. 존재의 운명으로 돌아감을 일컬어 실재라고 했고, 실재를 아는 것을 일러 깨달은 밝음이라고 했다. 증자(曾子)는 대학(大學)을 저술할 때 이 점을 보다 명백히 밝혔다. 그치는 것(止)을 안 다음에야 정(定)이 있고, 정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 다음에 편안함이 있고, 편안함에 이어 깊은 생각이 이루어지고, 그런 생각의 연후에야 능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견해는 한마디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봉선사(1892~1982)가 그린 달마도(동도사 극락선원소장).

#### 결점 들춰내는 師妹 막의

좌선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만약 조금이라도 고요함이 흔들린다면 수련자의 생각은 헷갈리기 십상이고 마음은 어지러워지게 마련이다. 이런 상태에선 참된 수련이란 불가능하다.

보리다라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막의의 얼굴에 나타난 웃음은 한순간에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웃는 모습에서 그는 은근히 모멸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외면하기 힘든 야릇한 기운이 있었다.

비록 열 여덟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사매지만 보리다라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엄격했다. 그의 결점을 서슴없이 들춰내는가 하면 어떤 일에서도 양보는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고 싶지 않았다. 벌떡 일어서서 막의를 향해 정중하게 합장의 예를 했다.

"사매의 가르침에 감사를 드리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면서도 그녀는 생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소한 실수에 지나지 않은 걸 가지고 괜한 트집을 잡은 것 같군요. 용서해 주세요, 사형."

그래도 보리다라는 여전히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손발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몰랐다. 눈치 빠른 막의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만한 일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지금 사형께서 할 일은 휴식인 것 같아요. 어서 절로 돌아가세요."

사매의 말투는 늘 이랬다. 탈이라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솔직 담백한 것이었다. 보리다라는 이런 막의의 진심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화살이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다.

"사형, 내일 아침에 우리 함께 수련하는 게 어때요?"

"…"

보리다라는 된다 안 된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얼굴에 씁쓸한 미소만 지을 따름이었다.




좋은 잠자리의 참이 보약입니다.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는 자연입니다
▶ 쿵쿵 뛰면서 온돌방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전자파 자체 제거기능(특허 제0157651호)설치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목단 902
몽량 201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구요? 좀드기, 먼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구요?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용 돌침대
■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나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화 조
101 싱글보료
침대의 名家 세계인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리빙스톤
☎ 02)124-9427/2203-7821
(옥스톤)
가격이 싸다고, 광고가 요란하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열장치가 "열선장치"인지 "특수 카본 필름장치"인지 초장파는 장치되어 있는지 …
돌판은 원석인지, 그리고 수입석은 아닌지 철분은 많지 않은지 … 입소문 제품이 제일 믿을수 있습니다.
돌침대의 효능…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초장파 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지장기도 영험록 영가천도는 왜 해 주어야 하는가? 영가의 장애를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장기도를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지장기도의 위력에 대한 능력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능력을 되새겨 본다.

☎ 02-917-3854
서울 성북구 성북2동116-1번지

혜강 박영옥 지음
신국판/230쪽/값8,000원
관음문화사



## 배가 고플 때에는 마음껏 먹어라

이 책에서는 "부처리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물음을 통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부처는 삶에서 치열한 갈등과 싸움을 이겨 낸 승리자이니, 부처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난관을 풀어내는 훌륭한 본보기인 셈입니다. 지은이는 15년간 불교 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의 심오한 가르침 속에서 현대의 물질주의와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밝혔다.

☎ 02-738-0931
서울 종로구 낙원동 280-4
건국빌딩1-306호

프란츠 메카프/박윤정 옮김
신국판/242쪽/값6,900원
도솔출판사



##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이 책은 한국인 최초로 쓴 본격 티베트의 자연 안내서이며 문화 안내서이다.
그간 한국에 소개된 수십종의 티베트에 관한 서적들이 거의 외국 번역물이었는데, 이 책은 한국인의 생각으로 티베트를 보고 느낀 최초의 기록이며 티베트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 방랑했던 저자의 노고어린 결과물 이기도 하다.
발로 쓴 책이기에 현장감이 무척 돋보여서 처음 가는 여행객일지라도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가이드 포인트〉를 첨부 했다.

☎ 031-676-870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김규현 지음
신국판 양장/416쪽/값 20,000원
도서출판 도피안사



## 절안의 생활 절속의 문화재

불교 신자든 아니든 우리는 절을 많이 찾는다. 우리는 절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오는가? 다년간 불교미술을 공부해오면서 전국의 절을 찾을 때마다 이런 아쉬움을 가져오던 필자가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혜남스님과 함께 절 안의 생활 모습과 문화재를 해설한 지침서가 이 책이다. 특히 사진자료와 도면을 적절히 배치하여 이해도를 높여 누구나 부담 없이 손에 들고 다니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2-528-0236-7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
미래와 사람 빌딩 805호

김영애 지음/혜남스님 감수
신국판/211쪽/값8,000원
다할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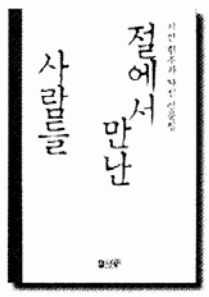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속에는 좋은 문구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법구경)이나 (숫타니파타) 그리고 초기경전 속에 들어 있는 교훈적인2명구들은 불교를 믿는 불자뿐만이 아니라 불교와 관계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더할 나위없는 금언들이다. 이 책은 그 방대한 경전과 고승들의 어록, 문집에서 금쪽같은 명구들만을 뽑아 엮고 있다.

☎ 02-732-2403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석성우 석지현 엮음
4*6판 양장/176쪽/ 값5,000원
민족사



## 절에서 만난 사람들

시인 현주하 자전산문집

멍징한 깨달음과 강렬한 느낌을 줬던 법정스님, 많은 이들을 품었다 미련도 없이 길을 내주는 심성을 일깨워준 구산 큰스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여준 각문스님..... 불가에서 널리 그 덕을 칭송받는 많은 스님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인간적이며 솔직한 이야기.

☎ 02-733-4277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3호

현주하 지음
신국판/271쪽/값 7,500원
명상출판사

# 현대 불교 신문 창간 6주년

### 독서감상문 모집

현대불교신문사는 불법홍포의 일환으로 제1회 현대불교 독서감상문을 공모합니다.
응모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책 중 1권을 읽고 감상문을 보내시면 됩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있으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량불서의 보급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응모기간 : 10월 15일 - 11월 15일
원 고 : 200자 원고지 10매 안팎
당첨발표 : 2000년 12월 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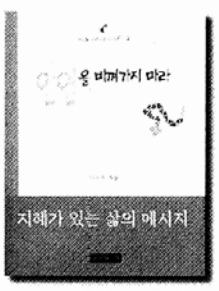


## 불교와 생명윤리학

불교는 오늘날 의료윤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가?
윤리적 문제에 관한 '불교적 관점'이 있을 수 있는가? 불교적 관점은 단지 '개인적 견해'로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서도 주장될 수 있는가? 〈불교와 생명윤리학〉은 이와 같은 모든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다. 이 책은 현대 의료 윤리학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불교적 관점에서 포괄적 논의를 제공하는 최초의 저술이다. 이책은 일반독자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불교와 윤리학 또는 의학에 대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 02-730-2500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197-28
백상빌딩13층 4호

데미어 키온 지음 / 허남열 옮김
신국판/323쪽/값 10,000원
불교시대사



## 인연을 비껴가지 마라

광범한 현실에서 닐카로운 깨달음을 주는 책.

우리가 기다리는 인연은 한달음에 달려오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관계가 때가 되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인연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것을 애써 찾으려 할 게 아니라 연젠가 자연스럽게 다가올 누구를 위해 자신의 인격을 가다듬고 마음을 씻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인연의 소중함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는 지혜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 02-730-2211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층

이상각 엮음
국판 /228쪽/값7,000원
지혜의 나무



## 생각은 있으나 생각하는 자는 없다.

환자와 의사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정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구별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동양의 영지(靈知)가 어떻게 서양의 심리학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탐진치 삼독심에 찌든 자신의 정신 세계를 씻고 털어 냄 마음의 자세와 역량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있어 이 책은 작은 동기 유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02-733-5311
서울 종로구 사간동121-1 법련사

마크 엡스타인 지음/현각 옮김
신국판/303쪽/값10,000원
불일출판사



## 화두 놓고 염불하세

청말 민국 초기에 중국이 극도로 혼란하고 불법의 쇠퇴가 극심한 상황에서 염불수행으로 중생교화와 불법홍포에 헌신, 대세지보살의 화신이요, 중국 정토종의 13대 조사로 추앙받는 인광 대사의 본격 염불 법문집.
세세하게 염불수행에 대해 총체적으로 밝힌 국내 최초의 염불 법문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책은 특히 화두선 일변도의 한국불교의 풍토에서 염불 수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02-420-3200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160-1

김지수 옮김
신국판/514쪽/값 12,000원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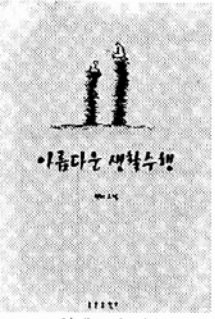


## 요 가
### 라타요가에서 쿤달리니 탄트라까지

요가를 수행하는 모든 이에게 말하고 싶다. 요가의 근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삼매의 오묘함을 맛보지도 못하고, 요가의 경전을 보지 않고서 요가행자라고 이르지 마라. 요가는 요가일 뿐이다. 요가는 영원한 자유를 찾는 길이며,자유는 오로지 삼매를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그 길은 요가의 고전 속에 들어있다. 선현들의 심오한 깨달음의 응축된 고전이야말로 바른 길을 제시하는 등불이다. 이 책을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 02-730-8976
서울 종로구 관훈동 1가 177번지
대형빌딩 201호

이태영 지음
신국판/364쪽/값8,000원
도서출판 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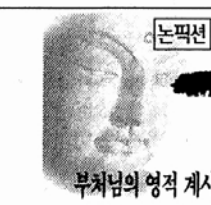


## 원혜 스님의 아름다운 생활수행

〈아름다운 생활수행〉에는 원혜 스님의 깊고 따뜻한 사려가 담겨 있다.
생활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예절', 특히 사찰예절과 대중 화합 공동체 및 가정 생활 등에서 불자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를 예절로 풀어 놓았다.
'예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을 닦는 것' 이니 곧 수행의 연장이라는 원혜 스님의 예절론이 신선하다.

☎ 02-547-4255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봉은사 출판부

원혜스님 지음
신국판/140쪽 /값 5,000원
봉은사출판부



논픽션 20세기의 신화적 인물 다카하시 신지의 영적 계시록

## 부처님의 영적 계시에 의해 불러 주신 대로 받아 썼습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불경의 의미와 부처님의 생애와 득도 과정의 고뇌를 치밀하게 밝혀 낸 금세기 최고의 기적

- 지금까지 몰랐던 불경의 뜻과 부처님의 출가와 득도의 고뇌가 기존의 석가전보다 훨씬 치밀하게 다른 점이 뛰어 납니다. 〈숭산 큰스님 · 화계사 조실〉
- 이 책은 예수님과 부처님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광호 · 천주교 성 베네딕도 수도회 신부〉
- 나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깊은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신자, 그리고 개신교신자나 무종교인도 읽어야 할 책입니다. 〈김혜석 역자 · 시인〉

4,6판 · 각양장 · 716쪽 값18,000원



##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
### 해공 스님의 감로법문집

밥을 갈고, 그 밥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비를 맞고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싹은 다시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식량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참된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농사짓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불자들은 누구나 마음의 밭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더 부지런히 가느냐에 따라 열매의 결과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 054-338-8196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동 660번지

해공스님 지음
신국판/3`7쪽/값8,500원
은항문학사

## CD 하락이수
### 인생을 슬기롭게 삶을 복되게....

태어나면서 부여된 우주의 기운 진희이 소강절 투분 선생의 비법
- 생년월 일시를 컴퓨터에 입력
- 평생의 운부터 그날 그날의 운까지 자세히
- 뿐만 아니라, 점수화! 문자화! 도표화!
- 64괘 384효 중 한가지 운*12가지 조건!

컴퓨터 주역점, 비법 중의 비법 참평비결 12조건을 활용한 상대방과의 궁합, 적성!! 나쁜 환경은 개선하거나 피해나가고 좋은 환경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CD에는 주역의 예지력을 담고 그 CD에 대유학당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주역의 명문! 대유학당
☎ 02-2232-8383,2234-1786



### 열반제

열반제는 이 땅의 종교가 당면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투시하면서 보다 올바른 인간의 길, 신앙의 길을 조심스럽게 제시한 데서 참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다운 삶이란 무엇이며, 또 어떠해야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진정한 구도란 무엇이며 그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를 끈질기게 천착한 소설이다.
'중생은 참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정휴 지음
신국판/316쪽/값10,000원
우리출판사

☎ 02-313-504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호



### 법문사의 비밀

천년 만에 열린 법문사 지하 궁전을 통해 드러나는 당나라 역사

이 책은 오래된 역사의 흔적을 생동감있는 현실로 복원하는 탁월한 작가 웨난의 세번째 작품이다. 법문사는 중국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교계에 대한 영향력 역시 막대하다. 또한 중국의 불교 사찰 가운데 전기적 색채가 가장 두드러 지는 사원이기도 하다. 만간에는 일찍부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이한 전설들이 많이 전해져 왔고 특히 〈법문사〉라는 희곡은 중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다.

웨난, 상청융 지음/ 유소영 심규호 옮김
46판 양장/744쪽(컬러화보 16쪽포함)
/값 21,000원
도서출판 일빛

☎ 02-3142-1703-5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9-4 개나빌딩 2층



### 선가어록 1

중국 선종의 성립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초기 선어록 중 우두 법융의 〈절관론〉, 오조 홍인의 〈수심요결〉, 북종 신수의 〈관심론〉, 육조 혜능의 전기인 〈조계대사전〉 등을 번역하고 상세한 주를 덧붙인 책.

혜원 역주
신국판 양장/218쪽/값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02-3672-7181 -5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빌딩 3층



###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

9개 국어로 번역된 한국명작 한말숙 장편소설 죽음과 삶, 사랑과 미움, 기독교와 샤마니즘이라는 전혀 상반된 세계들을 아름답게 화해시키는 소설
-박완서(작가)

삶이란 무엇일까? 죽음은 무엇일까? 내세는 있는 것일까? 영혼이란 것이 있을까? 우연은 필연일까? 운명이란 있는 것일까? 인간의 보편적 의문들을 끈질기게 추구한 소설
- 유인순(강원대 교수, 평론가)

한말숙 지음
신국판/268쪽/값7,000원
솔과학

☎ 02-722-9780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76-1호
계진빌딩 5층 503호



### 백일법문(상, 하)

백일법문의 핵심은 중도사상(中道思想)에 두고서 인도의 원시불교에서 시작하여 중관, 유식 등의 사상, 그리고 중국의 선종 및 우리나라 선종사상과 오늘 선문이 나아갈 길가지 언급해 두신 것입니다. 백일법문은 일백개의 해(百日)가 솟아있는 법문이었습니다.

백련선서간행회 편집
신국판/337쪽/ 값 각권 7,000원
장경각

☎ 02-269-3227 (서울사무소)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의리 10번지,
해인사 백련암



###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마음을 다스리는 생활속의 명상!
틱낫한의 마음의 행로를 이끄는 안내서로 마음 집중하여 숨쉬기를 하며 일상생활의 작은 행동까지 알아차리도록 가르치면서 관찰과 마음 집중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 책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있는 지침서이다.
- 달라이 라마 추천서 중에서

틱낫한 지음/서보경 옮김
국판/222쪽/값 7,000원
지혜의 나무

☎ 02-730-2211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층

# 책방 여시 아문 창간 6주년

현대불교 창간 6주년 6



###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탑사

마이산 탑사의 영험과 돌탑에 얽힌 비밀!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가 서려있으며, 이 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도량인 마이산 탑사!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신령스런 영험이 그치지 않아 절로 외경감을 품게 하는 마이산 탑사! 저자는 자연 절경이 어우러져 있는 마이산 탑사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진현종 편저/ 혜명스님 감수
국판/128쪽/값6,000원
은행나무

☎ 02-3143-0651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6-15
남성빌딩 4층



###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수행자와 재가불자에게 보내는 일타 큰스님의 해탈과 행복의 메시지 108가지. 불교우화집 〈백유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과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 야운스님의 〈자경문〉등 역대 조사(祖師)스님들의 금쪽같은 법문을 소개하면서 불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곡하게 들려주고 있다.

일연학연구원 엮음
신국판/344쪽/값 10,000원
불교시대사

☎ 02-730-25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 참선요지

선(禪)은 가장 궁극적인 일이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이 일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소멸해 버린 자리 (言語道斷 心行處滅)이며 생각으로는 미칠바가 아니다.
-참선요지 서(序)에서-

허운화상 법어/대성스님 옮김
4*6판/278쪽/값5,500원
도서출판 여시아문

☎ 02-732-1521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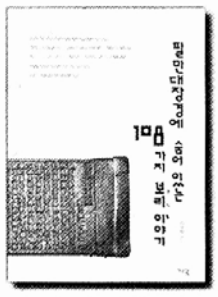


### 밀교 보리심론

밀교보리심론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회당대종사께서 깨달으신 당체설법(當體說法)과 연결하여 부처님의 본심을 보지 못하고 문자에만 치우친 모든 분들에게 해탈의 선악이 될 수 있는 지침서이다. 현재 불교방송중이다.

혜정대정사 講解
신국판/330쪽/값 10,000원
도서출판 진각종 해인행

☎ 02-913-0753
서울시 성북구 월곡2동 22번지



###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 1,2,3

붓다의 팔만사천 법문을 완벽한 장경으로 만든 우리나라 팔만대장경 가운데는 신화와 전설적인 설화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 설화들에는 붓다의 말씀을 설파하기 위한 교훈뿐만 아니라 생활의 지혜와 슬기가 숨겨져 있다. 딱딱한 불교 용어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팔만대장경을 재미있는 불교설화문학을 통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꾸민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

진현종/벡운용
신국판/255쪽/값 각권 7,800원
도서출판 혜움

☎ 02-322-8422
서울 마포구 성산1동 58-7



### 빠알리語辭典

빠알리어는 인도의 고대어로서, 부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언어로 추정되고 있다.이와 같은 빠알리어로 기록된 남전대장경이 현재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들에게는 그 완형을 보존한채 고스란히 전승되고 있어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보고(寶庫)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말 빠알리어 사전으로서는 불교학계의 한 획을 긋게 되는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불교대학 출판부/ 가격 70,000원

### 쌍윳다 니까야 1,2,3

한국빠알리대장경 국내 첫 출간
쌍윳따 니까야의 성립시기는 기원전으로 훨씬 소급해 올라가며 이른바 第一結集에서 그 모태가 형성된 것이다. 이 빠알리 초기 경전은 발전된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부처님의 가르침 원형을 담고 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역주/ 가격 65,000원

☎ 02-739-0108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6-18



### 나는 왜 태어나 살다가 죽는가?

바로 그 원초적인 질문을 붓다의 영적 계시로 밝혀낸

다카하시 신지의 명상 고백 에세이

##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 7가지 이유

전생의 인연과 윤회적 삶의 신비한 고리를 마침내 훌훌 풀어버리는 불기 2544년, 1천만 불교신자들에게 전하는 비장의 필독서!

김해석 옮김

●다카하시 신지의 저서가 마침내 한국에서 출간되어 너무 기쁘다.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영혼문제를 거론 할 수 없을 만큼 압권이다. **동국대 교수 목정배**
●영적 능력을 철학이론으로 정착시킨 다카하시 신지의 진지한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그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계속할 것이다. **—미국 스탠포드대부설 심리연구소**

4,6판 · 각양장 · 365쪽 값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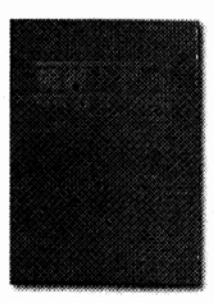


### 알몸

8년 동안 300여 쌍의 영혼 결혼식을 주선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베푸는 설산 스님의 인간적인 따스함 과 덧없는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백련사 설산 스님의 구도 에세이. 영혼결혼식, 그 짙긴 인연의 끈 여배우의 젖가슴에 써 내려간 반야심경 스님의 약혼식 한 영혼과 대면하다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 내가 체험한 불가사의한 영혼의 세계 영혼은 반드시 있다
나의 죄는 내가 전생에서 빌어 온 것이다.

설산스님 지음
신국판/328쪽/값 7,800원
도서출판 청어와 삐삐

☎ 02-586-0477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443-28
황실빌딩 202호



### 불교학 대사전(상, 하)

총 65,000여 개의항목을 수록하고 있는 이 사전은 그 방대함과 현대적 표현이 특징이다. 용어의 채집에 있어서 인도, 중국, 한국, 일본등의 중요한 불교문헌 등을 넘리 섭렵하고 있으며, 또한 그 각국의 민간신앙이나 제방에서 쓰여지고 있는 용어들까지 수록하고 있다. 특히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의 원어를 표시하여 설명의 정확을 기하고 있다. 표현에 있어서는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 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설명으로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길상 지음/ 값220,000원
홍법원

☎ 02-734-7614
서울 종로구 견지동 55-2번지

## 분야별 우수 불교 사이트

■초심자를 위한 인터넷대학

이제 막 불교에 입문한 초심자들은 무엇을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인터넷 대학을 방문하면 상식으로 알아야 할 예절에서부터 부처님 생애, 기본교리, 경전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묻고 답하기 코너를 운영하기도 한다.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강좌(www.buruna.org)
강태용의 불교아카데미(hades.interpia98.net/~bh9475)
이재윤과 함께하는 불교교양강좌(studybud.buddhism.org)
인터넷 불교교육원(compassion.buddhism.org)
인터넷불교대학(www.buddhistweb.com)
용화세계(user.chollian.net/~s1saint)

■경전

아무래도 책으로 보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제 경전공부도 인터넷으로 해결하자. 흔히 접하는 경전뿐 아니라 웬만한 경전들은 모두 제공한다. 경전의 유래, 내용 등 소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나 원문을 올려놓기도 한다. 자료를 요청하면 올려주는 곳도 있다.



경전의 이해(dharma.dharmanet.net/sutras)
불교경전 진언 도우미(user.chollian.net/~hgs9292)
지장보살본원경(members.tripod.co.kr/domyung)
불교경전 자료 전문 검색엔진(mirrk.new21.org)
정운갑의 옴마니 반메훔(myhome.bbl.co.kr/ohm)
고려대장경 웹서비스(211.46.71.249/condsearch)
불교학당(mirrk.buddhism.org)

■예술

우리 나라 전통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불교예술을 널리 알리는데 인터넷만큼 유용한 수단도 없다. 산사를 담은 사진에서 문학작품, 등, 전통문양, 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불교예술을 안방에서 감상할 수 있다.



사진작가의 입불지견(한국의 사찰)(photo.new21.net)
법정스님의 칼럼 모음(bjcolumn.webjump.com)
달달 무슨달(hannara.com.ne.kr)
전통등 연구회(www.lanterns.co.kr)
한국전통문양(net-in.co.kr/A4)
능화스님의 불교무용(www.buddhistdancing.or.kr)

■미술

인터넷은 전시회나 박물관을 찾아다니는 수고까지 덜어준다. 요즘은 사이버공간에도 함께 작품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 탱화나 나한도 등 불화를 종류별로 감상하며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여 준다. 불화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다.



봉은불교미술원(www.bongen.pe.kr)
만다라 불교미술원(mahndara.inticity.com)
범주스님의 선묵화 홈페이지(www.dalmaart.com)
불교미술전시관(buddha.co.kr)
혜안스님 불교서각전(www.heaan.co.kr)
불교이미지아트(tunhwang.hihome.com)

■음악

음악사이트는 전통적인 불교음악인 범패와 영산재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각종 의식에 쓰이는 음악이나 찬불가, 명상음악을 곁들여 소개하기도 한다. 이들 사이트는 당연히 리얼오디오나 리얼플레이어로 직접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설명 역시 빠뜨리지 않는다.



만트라(aum.co.kr)
불교음악 범패(www.pompae.or.kr)
한국의 전통 불교음악(myhome.netsgo.com/budd)
홍순자의 불교 음악과 명상 음악
(user.chollian.net/~studiog)
도리도리 공식 홈페이지(www.sarm.or.kr)
좋은벗 풍경소리(www.bdsori.co.kr)

■고승법문

한국불교사에 큰 자취를 남긴 고승들의 법문은 다시 들어도 그 의미가 새롭다. 큰스님들의 생애와 사상, 법문, 어록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다. 특히 성철넷은 다양한 법문을 스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다.



금하당 광덕 큰스님(www.bulkwang.org/snim/snim.html)
동곡당 일타 큰스님(www.ilta.or.kr)
성철넷(www.songchol.org)
원효대사(wonhyo.buddhism.org)
원효학 연구원(www.wonhyo.org)
서산대사(seosan.buddhism.org)

■인터넷 방송

새로운 세대인 네티즌들이 불교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게 하는데 인터넷 방송을 빼놓을 수 없다. 스님들의 지난 법문과 법회 중계, 합창단의 찬불가, 문화 공연 등을 인터넷으로 즐길 수 있다.

한마음불교방송국(www.hbtv.org)
불교인터넷텔레비전(www.buddhatv.com)
애티앤-선재 청소년인터넷 방송국(www.aeten.net)

■선(禪)

선 관련 사이트들은 참선 및 수행에 관한 글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참선 수행의 방법, 수행의 단계, 선사들의 법문, 선시 등을 제공한다.



선객(sungag.buddhism.org)
선시의 세계(user.chollian.net/~nobui)
달마게이트(dhamool.buddhism.org)
우곡선원(www.wookok.org)
정혜선방(myhome.netsgo.com/budman/default.htm)
능인선원(www.gotobuddha.com)

# 예불 독경 법문 아무때나 '접속'

*불교학 사전에서는 '신행'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의 보편화로 사이버 세상에서도 불교관련 사이트들이 속속 선보이면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불교를 알리고 실제 수행의 방법까지도 전해주고 있다. 정보의 바다 사이버 세상, 클릭 하나로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교리·수행법에 이르기까지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요즘, 사이버 상에서의 신행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 네티즌 사로잡는 사이버 신행

## 사이트 자료 올려 '포교사 역' 척척
## 동호회 활동 통해 신행결속력 강화

불교교양강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윤씨는 "사이버 신행이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를 믿고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린다. 즉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교에 관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배우고 하는 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것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사이버 신행은 오프라인에서의 신행생활과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신행활동과 사이버 신행은 그 활동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이버 신행의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새벽 3시 자다 일어나서도 사이버 법당에 들어가 반야심경을 봉독할 수 있고 위빠사나 자료실에 가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기본기를 다질 수도 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수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를 다운받아 포교사가 된 듯 이곳 저곳 다른 사이트들에 자료를 올려놓을 수도 있다.

사이버 신행에 단점이 있다면 지속력과 결속력이 약하다는 것. 자신의 확고한 수행에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신행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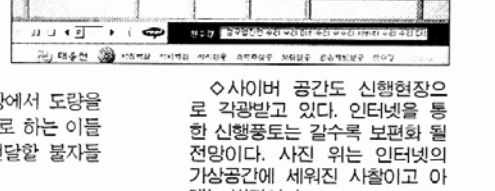
이렇듯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바람직한 신행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선 자신이 찾은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잘못된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올바른 정보인지 확인하고 검증하고 난 후에 해야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스님들만이 법사, 포교사가 아니라 일반 불자들이 바로 법사요 포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실 공간에서는 스님들이 불법홍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사이버 공간에서는 평신도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윤 씨는 "사이버 신행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불자들이 사이버상에서 현실로 만들어 가야하는 과제"라며 "사이버 상에서 도량을 여는 것은 사이버 신행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이들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달할 불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사이버 공간도 신행현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신행풍토는 갈수록 보편화 될 전망이다. 사진 위는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세워진 사찰이고 아래는 법당이다.



## "부처는 과대망상증 환자" 훼불 일쑤

### 인터넷에 소개된 불교왜곡 사례

각양각색의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까닭에 정보의 정확성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터넷. 한번 잘못된 자료가 올라가면 그 자료가 검증없이 그대로 유포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검색엔진에서의 대표적인 오류는 바로 분류오류. 교육전문검색엔진 e-school(http://e-school.co.kr)에 불교 관련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원불교가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초심자들은 원불교도 불교의 한 종파나 계파로 이해해 버린다. 미륵불로 검색을 할 경우 검색되는 대순진리회나 증산도도 불교의 한 종류로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한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용어상의 오류다. 박근모씨의 개인홈페이지(http://buddha.hihome.com)에는 초전법륜을 초전법률로 표기하고 있다. 관리자 입장에서야 오타이지만 불교를 모르거나 초심자들은 초전법륜이라고 기억하게 된다.

종교간의 대화를 표방하고 나선 몇몇 사이트에서는 종교 간의 교리 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각양각색의 비방이 수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http://www.believers.co.kr)에는 "엉터리 불교와 불경을 비판한다"는 주제의 토론방이 개설되어 있다. 가톨릭 신자가 개설한 이곳 토론방의 주제설명에는 불교의 기원을 "부처는 세상의 깨달음을 위해 왕궁을 나왔다. 그리고 수행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정신분열증과 과대망상증에 걸렸는데 이 증세는 기존의 지식은 그래도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각, 환청, 환상이 보이는 것이었다. 환상에 의해서 당시에 떠돌던 이야기의 귀신들이 눈에 보였고 환각에 의해서도를 깨닫는 것처럼 느껴졌다. 부처는 그래도 마음이 착해서 선을 바탕으로 왕궁에서 배운 학문에 자신의 환각을 더해서 사상을 완성하였다"며 부처의 깨달음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성철스님의 열반게를 놓고도 성철스님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회의하면서 천추의 한을 안고 떠났다는 등의 훼불성 토론방이 개설, 불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례가 다분하다.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에 개설된 토론방.

### 증산도·대순진리회도 "불교"
### 성철스님 열반게 멋대로 해석

문화관광부 사이트에 문화상징Best10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들어있다. 관련 사이트를 클릭해보면 불국사는 불국사 홈으로 연결되지만 석굴암은 관련 사이트 연결조차 되지 않는다. 오류도 오류지만 타종교와 비교할 때 불교관련 사이트들의 숫자는 너무도 부족하다.

Religion포탈(http://www.religion.co.kr)이라는 종교전문검색엔진에 들어가 보자. 기독교 홈페이지는 1394개, 천주교는 174개, 불교는 150개로 기독교의 10분의 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요즘 한창 인기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는 그 숫자가 현저히 벌어진다. 회원수도 개신교와 불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음넷에 개설된 1만4천670개의 종교카페 가운데 1만1천795개의 기독교 카페는 불교의 405개와 비교를 거부한다. 회원수 상위 10위 권내의 카페도 기독교가 8개, 천주교 1개, 불교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엔진 엠파스에서 검색되는 불교관련 홈페이지는 모두 244개, 이에 비해 개신교는 3087개이다. 천주교도 334개로 불교사이트보다 앞선다. 인터넷 방송의 숫자에서도 기독교 29개, 불교 4개로 비교우위는 변하지 않는다.

숫자의 열세를 극복하는 길은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 뿐이다. 불교관련 홈페이지들이 사이버 공해라는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꾸준한 정보 업데이트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천상천하유아독존

(부분 속 전체, 구함 속 충분)

머리 가슴 지나 배 속에 담아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 진정한 成人

우담바라
(하나한)

안은 엷어지나 밖이 두터워지는 비움 넘고
걸러들지 않으나 함께 못 하는 바라봄 넘고
틈새 하늘 뿐 구름 못 여는 이뭐꼬 넘고
⋮
얼굴 모두 아닌 숨굴 국한하는 호흡 넘고
핵심인 의식보다 동작 중시하는 기공 넘고
얼의 밥 아닌 마음 약 자처하는 명상 넘고
근원합일 제외 인과처방 자족하는 심리치료 넘고
모든 인간 여의주 보유 간과하는 의식개발 넘고
결국 자신과의 대화일 수 밖에 없는 채널링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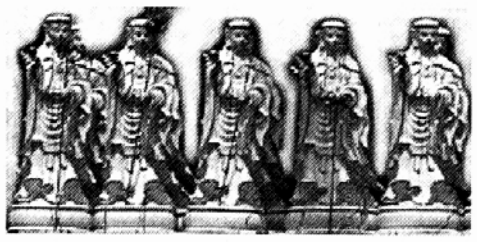
【과 정】
- 1루 : 마음고치 안팎 자유 왕래
- 2루 : 지푸라기 속 무한성 확보
- 3루 : 모두가 나인 세계에 진입
- 홈 : 항상 가득 최선의 삶 안무

【특 징】
- 애고 비움 죽임 아닌 확장
- 기존 핵심 응해 자원 혁신
- 심각 아닌 진진 놀이 진행
- 추가 과정 없이 한판 전수

【체험 소감】
"엄마 자궁 몸나 아닌 내 자궁 얼나로 부활 영생 참 경지"-신부
"먹고 싸고 보고 듣고 일함 자체를 道로 노자 소원성취"-김영철(교수)
"아픔은 곧 禍福, 참나로의 근원적 예방 처유 길"-이정숙(의사)
"구름 사이 하늘 아닌 구름 여는 법, 애고 가득 채워 해결"-스님
"똥오줌 분별하듯 마음 얼 의식 분별하면 이토록 명쾌한데"-김대성(학생)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031)885-1011/016)206-1001
매월 셋째 월15:00~토 15:00(참가비:55만원)농협 111-12-336006 윤 석태

## 지장보살님 조성 안내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가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

## 서북 토종 오가피농장

"한줌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오가피 알아봤더니 숲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황토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 0333)682-5033, 682-4965
FAX : 0333)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j/

## 동안거 선방 안내

보덕선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안거선방
안내를 드리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 스님들께서는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정진 하시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주 소 :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824-1
문의처 : 02) 914 - 4235

보덕선원장 오본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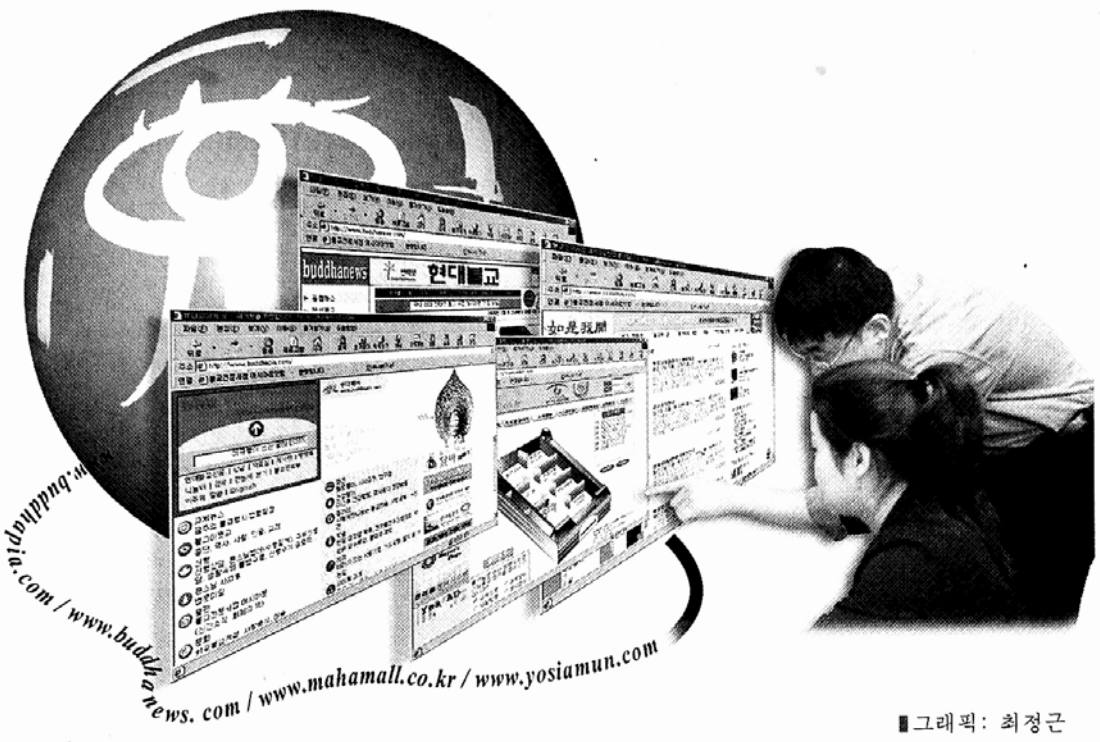
# 21세기 꿈의 포교 펼칠 '불법의 바다'

21세기 인류에게는 새로운 땅이 생겼다. 국가와 인종,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땅, 가상공간에 펼쳐진 이 땅은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그물망에 의해 그 깊이와 넓이의 가시(可視) 조차 초월한 중중무진의 세계다. 한 대의 컴퓨터로 5대양 6대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시간으로 듣고 보는 현대인들에게 사이버 세상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표방하며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사이버 세상도 분명한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신념으로 불교정보화 사업을 다양하게 계획 진행해 왔다. 그 결과 95년 8월 불교종합정보센타 '부다피아'를 개설해 이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부처님의 이상세계, 즉 불국정토를 의미하는 부다피아의 출범은 인터넷 세상을 향한 초전법륜이었다. 이후 현대불교신문은 99년 1월 인터넷불교백화점 '마하몰'을 개점했으며 금년 6월 1일에는 세계 초유의 불교전문 사이버 일간신문 '붓다뉴스'를 창간하고 10월 1일에는 사이버 불교서점 '여시아문'의 문을 열었다.

이로써 현대불교신문은 21세기의 사이버 세상을 진정한 부다피아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매일 매일의 세계불교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각종 불교 정보에서부터 부처님의 사자후까지 법향(法香)을 체험할 수 있는 곳. 한번의 클릭으로 읽고 싶은 불서와 갖고 싶은 신행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 현대불교신문사가 사이버 공간에 구축한 아름답고 편리한 도량(道場)들을 소개한다.

## 현대불교가 세운 4대 사이버 도량




■그래픽: 최정근

### 부다피아 (buddhapia.com)

부다피아는 붇다(Buddha)와 이상향의 세계를 뜻하는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로 명명되어 96년 3월 일주문을 활짝 열었다. 부다피아는 서비스를 개시한 직후인 96년 5월 미국의 유명 정보검색 기관인 링크스타로부터 "한국불교를 전해주는 가장 우수한 사이트"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후 부다피아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세계적인 불교종합정보 서비스 웹사이트로 자리를 잡아 왔으며 지난 4년간 24만여명이 접속 필요한 정보를 검색했다.

현재 부다피아는 불교인물과 사찰에 대한 데이타 제공은 물론 한마음선원, 한국불교증단협의회, 대한불교천태종, 맑고향 기롭게 등 20여 사찰 및 단체의 홈페이지로의 연결도 가능하게 구축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부다피아가 전하는 불교계의 각종 소식들도 다양하다. 국내외 불교관련 뉴스를 매일 새롭게 접할 수 있으며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네티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서비스 하기도 하는 것. 무엇보다 부다피아는 인터넷을 통해 현대불교신문을 꼼꼼히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정보의 축적능력을 갖추고 있다. 창간 이후 현재까지 발행된 현대불교 신문 수록 내용들을 주제어별로 검색해 볼 수 있다. 국내외 큰스님들의 법문과

**4년간 24만여명 클릭**

**美서 우수 사이트 평가**

건강, 문화, 사찰기행, 각 종단 소개, 기초교리 등 신행생활을 돕는 정보들도 많이 검색되는 코너로 각광 받고 있다.

부다피아는 단순히 정보와 데이타를 전해주는 사이트로 만족하지 않는다. 세계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이버 도량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기 위해 보다 다양한 내용적 변화와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붓다뉴스 (buddhanews.com)

세계 초유의 불교전문 사이버 일간 신문이다. 붓다뉴스는 지난 6월 1일 창간되어 짧은 시간에 많은 독자를 확보했으며 날로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불교계의 소식들을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전달하는 것으로도 붓다뉴스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거기에 붓다뉴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획기사와 부다피아와, 책방여시아문, 마하몰 등과의 연계 검색기능 등은 붓다뉴스를 더욱 빛나게 하는 메뉴들이다.

현재 붓다뉴스는 매일 30여 건의 새로운 기사들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각 종단 소식은 물론, 문화 출판, 학술 어린이, 청소년, 여성, 신행소식 등으로 나뉘어져 제공되는 이들 기사는 현대불교신문의 일선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송고 해 오는 뉴스들을 가공해 제공하는 것이어서 100%의 신선도를 자랑한다.

기획특집 코너는 붓다뉴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사들로 채워져 있다. 불교계의 핫 이슈들을 따로 모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함으로 네티즌들의 이해를 돕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며 신행생활을 돕는 상담실과 구직 구인 품앗이 안내 기능도 갖추고 있어 교계 안팎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N세대들이 불교를 보다 재미있게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N세대를 위한 불교 이야기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설문조사 코너에서 취합되는 데이타들은 현대불교 신문 제작에도 반영되고 있다.

**불교 첫 사이버 일간 신문**

**실시간 쌍방향 정보 자랑**

붓다뉴스는 일간 신문의 개념 위에 쌍방향 정보교류를 통해 네티즌이 함께 만드는 사이버 표교당이라는 개념을 더한 인터넷 시대의 불교종합 정보매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마하몰 (mahamall.co.kr)

마하몰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 - 아름다운 사이버 불교세계'라는 슬로건으로 98년 서비스를 시작한 불교계 최대규모의 전문 인터넷 백화점이다. 현재 마하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은 3천여 점에 이른다.

월 편균 5만여명이 방문하는 마하몰은 99년 6월 제1회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 사이버몰로 선정되기도 했다. 마하몰을 클릭하는 순간 가상 공간에 구축된 매장을 만날 수 있으며 매장은 신상품, 추천상품, 음반코너, 개인전 전시관, 중국문화공예전, 서점, 회원가입 등의 코너로 짜여져 있다. 이 밖에도 마하몰 초기화면에는 불교소품, 공예문화상품, 괜시기획, 건강상품, 음반, 소프트웨어, 사이버서점 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구입을 원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매장을 순회하면서 원하는 상품의 특징과 가격 등을 상세히 검색해 볼 수 있어 물건 고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신상품과 추천상품은 따로 볼 수 있도록 분류해 두어 더욱 편리하다.

**월 5만 방문…불교 백화점**

**작년 산자부 우수몰 선정**

마하몰은 선불제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소액결재가 반복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미리 일정액을 온라인 상으로 입금한 후 구매시마다 간편하게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이용시 3%의 부가 금액을 이용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마하몰이 운영하는 보너스 포인트제도 역시 값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그 실적으로 다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다.

마하몰은 철저한 회원관리는 물론 정직한 가격과 확실한 상품 배송, 고객불편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가입에서 배송확인, 개인정보 수정 기능과 안내데스크를 갖추고 한번 고객은 영원한 단골손님으로 모신다는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 마하몰 갤러리에는 불교 예술인들의 작품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으며 해외문화정보, 뉴스따라잡기, 게시판, 교계탑방 코너 등도 운영하고 있다.

### 여시아문 (yosiamun.com)

여시아문은 현대불교신문사가 운영하는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을 사이버 공간에 그대로 옮겨 놓은 온라인 서점이다.

지난 1일 인터넷 공간에 문을 연 여시아문은 약 3만여종의 불교도서 8만여권을 비치하고 있다. 여시아문을 클릭하는 순간 네티즌들은 "이렇게 다양한 불서를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니!" 하는 감탄을 하게 된다. 온라인 서점 여시아문은 도서 구입을 위하는 네티즌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 목록을 종류별로 매우 상세하게 분류해 원하는 도서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 교리, 입문서, 교양일반, 명상, 문학 등 다양하게 분류된 불서들은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하다.

**국내 최대 사이버 서점**

**불서 8만권…안방 주문**

여시아문은 각 출판사가 펴낸 신간불서들을 표지 사진과 함께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 책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금주의 불서 베스트 10' 코너는 매주 여시아문의 판매량을 종합해 소개하고 있으며 한글대장경 검색서비스와 전설로 찾아가는 사찰 등의 코너도 운영되고 있다.

여시아문을 통해 불교계의 주요 뉴스들도 볼수 있으며 불교관련 비디오, 오디오 상품들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서점 여시아문은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함께 '자신의 글을 책으로'라는 기획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시, 수필, 체험수기 등 불자들이 스스로 쓴 글을 해당 코너로 보내면 그 글들을 심사해 책으로 펴내는 것으로 아마추어 작가나 신행 현장에서 남다른 사연을 가진 불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현재 여시아문은 온라인 서점 개점과 현대불교신문 창간 6주년을 기념하는 사은 행사를 갖고 있다. 온라인 서점 여시아문의 회원으로 등록한 불자가 '동자도우미 페이지'를 10월 30일까지 출력해 오면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발간한 불서를 선물로 준다.

온라인 서점 여시아문은 불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편리한 구입을 위한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 서점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專門家用)神示出刊**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전문가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難解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물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書·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무속인·스님 등 活人專門人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책 값 : ₩250,000원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
(흑색 가죽덮게표지·금박·950페이지·미색용지·옵셋인쇄)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993-8680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303호

도서출판 卜 問 대표 김 나 려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전문인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에 대해서는 이 책 9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斅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뵙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여겨 지시면, 방문 또는 출장을 요청하십시오. 본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방문받거나 출장하여 活人요령을 도와드리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배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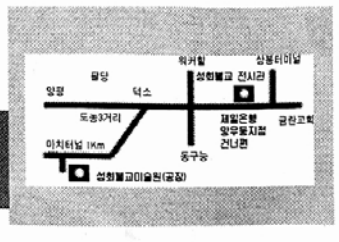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주·야 상담합니다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

# 생활불교 이끈 '신행 나침반'

## 독자와 함께한 현대불교 6년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내걸고 현대불교신문이 창간된지 6년이 지났다. 그간 현대불교 신문은 사시의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창간 당시에 내세웠던 "하나 더 있어 좋은 신문"이란 모토를 "꼭 필요한 신문"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같은 평가는 국내외 독자들이 한결 같이 내놓는 것이어서 현대불교신문이 더욱 정진하는 저변의 힘이 되고 있다.

현대불교 신문은 지난 6년간 한결같이 독자와 함께 호흡해 왔다. 부처님 법을 홍포하는 포교사로서, 불교의 내일을 개척하는 선구자로서, 생활속의 수행을 선도하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위해 현대불교 사옥은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이후 줄곧 불자들의 의식개혁과 참다운 신행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창간 이듬해인 95년에는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란 주제의 캠페인을 통해 참불자의 길을 제시했으며 '우리는 불자 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스티커를 보급,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스티커는 전국 불자 가정의 대문과 차량 등에 30여만매나 부착되었다. 이 밖에도 95년에는 '맑고 향기롭게' 캠페인에 동참 했으며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캠페인도 벌였다. 현대불교신문을 법보시해 이웃들에게 부처님 법음을 전하고자 기획된 '전원 법보시 운동'은 현재까지 11만명의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96년에는 '새싹 불자를 키우자'는 슬로건으로 각종 캠페인과 기획 기사를 지면에 펼쳤으며 97년에는 참다운 불자상 정립을 위해 '참회의 삶을 살자'는 운동을 벌였다. 98년에는 '작은 실천 큰 기쁨'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상 정립에 기여했으며 99년에는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자'는 실천운동을 통해 교계 각 분야의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새천년을 맞아 현대불교는 '사이버 시대 막차라도 타자'는 캠페인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 불교가 적응해야 할 과제들을 세밀히 진단했으며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실천 운동도 전개해 불자들의 내적 자각과 희망적인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캠페인과 아울러 현대불교신문은 각종 신행체험과 문화 행사도 벌여 왔다. 95년 10월 창간 1주년을 맞아 5대 총림 방장 스님들을 친견하는 행사를 가져 선지식의 사자후를 듣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97년 문화유산의 해에는 매월 불교테마기행을 실시해 사찰이 내포한 그윽한 문화전통을 맛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음 해에는 불교문화체험학교를 더욱 고양된 문화인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들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독자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선맥을 찾아 구산선문의 역사와 사상을 배우고 참선을 체험하는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실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문화행사로는 99년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을 기리는 창작교성곡 '혜초'를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았다.

IMF로 온 국민이 실의에 빠졌던 98년에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 불자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었으며 그 실천의 일환으로 '국난극복 참회대법회'를 전국 각지에서 8차례나 개최했다. 이어 '생명나눔 실천대법회' '소쩍새 마을에 자비의 등을 밝힙시다' '퇴행성 관절염 무료 수술' 등을 통해 일체중생이 한 몸임을 자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99년 5월에는 '근세 100년 고승 기념메달'을 조폐공사와 공동 제작 보급해 고승들의 법향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행사도 꾸준히 전개해 왔다. 94년에 창간을 기념해 '소년소녀 돕기 대행른스님 부산대법회'를 개최한 이후 전국 306개 초중 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사유상을 보급했다. 해마다 부다피아 여름 어린이 캠프를 열어 새싹 불자들의 건강한 신심을 함양시켰다. 97년에는 '새싹불자를 키우자'는 캠페인을 통해 미래불교의 진정한 주인들을 위해 한국불교계가 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 내기도 했으며 어린이들에게 1만2천여권의 불서를 무료로 보급하기도 했다.

'신행지로서의 현대불교'의 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신행 운동도 꾸준히 전개했다. 창간 이듬해부터 신행수기를 공모해 입상작들을 지면에 반영함으로 진솔하고 감동적인 수행의 향기를 독자와 함께 나누었다.

불교의 현대화와 세계화는 인터넷 사업을 통해 실현해 오고 있다. 95년 불교종합정보센타 부다피아를 개설한 이후 현대불교 신문은 인터넷 공간에 새로운 포교 도량을 건설했다. 세계 네티즌을 향해 한국불교가 간직한 각종 정보들을 서비스 하고 불교의 참모습을 가상공간에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부다피아는 그 이름처럼 부처님의 땅을 사이버 세계에 실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 초유의 불교전문 사이버 일간지 '붓다뉴스'의 일주문을 열기도 했다. 또 현대불교 신문사가 운영하는 책방 여시아문을 가상공간에 그대로 옮겨 놓은 온라인 불교서점 '여시아문'도 창간 6주년을 앞둔 지난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외 각계각층의 독자들이 보내주는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현대불교신문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것을 버리는 새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불교의 역사를 창출하는 새로움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지면에 담고 각종 캠페인 및 행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 창간 6주년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의 각오다.



◇미래의 불자를 키우기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참선·사경 등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부다피아 어린이캠프에는 매년 2백여 어린이들이 동참한다. 사진은 지난 7월 개최한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모습.

**해마다 불자 신행수기 공모 시상**
**98년 국난극복법회 IMF극복 동참**
**인터넷 포교 등 불교정보화 선도**

## '현대불교'에 바란다

### 균형시각 냉철비판 기대

**김 규 칠**(불교방송 사장)



'현대불교'는 그 동안 맑고 향기로운 신행미담의 글들을 많이 실어 불자들이 바른 신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또 21세기 국제화의 시대 흐름에 발맞춰 해외불교를 소개하는 등 신선한 기획도 많았다. 그러나 일반신문이 아닌 전문지임에도 행사위주 기사가 많았고, 보수·진보적 양 경향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의 냉철한 비판을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미흡한 감이 느껴진 경우도 있었다.

바깥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불교언론매체도 이러한 변화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급진적인 변화와 발전에도 발을 맞추어야 하고, 불교라는 영원한 보편적 진리의 상하(相下)에서 언제나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한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려면, 오늘의 정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오늘의 언어와 형상 속에 고전의 진리를 훌륭하게 담아낼 줄 알아야 한다. 물론 불교전문지니 만큼 일간지에서 흉내내지 못하는 전문성을 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름 그대로 현대적인 불교언론매체로서의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한다면 현대적인 문제상황, 현대인류와 현대국가, 현대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과제들에 대한 고민과 모색의 과정에 불교의 재조명을 통한 방향제시라든가 사색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불교 전산화 방향 선도

**종 림**(고려대장경연구소장)



창간과 함께 불교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한국불교계가 전자정보시대에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길을 열어온 현대불교신문의 눈부신 활약에 교계의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 연구소로서는 든든한 동지를 만난 기쁨을 느껴왔다. 요즘 전산화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장경 전산화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시키기도 벅찼던 시절이다. 그동안 전산화 관련 불사에 대한 심층보도는 팔만대장경 전산화 불사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현대불교신문에서 다룬 전산화 관련 기사는 사이트 오픈, 연구소 개원, 다른 종교계의 전산화와의 비교, 사이버 훼불 등에 할애해 왔다. 다시 말해 불교계 전산화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마치 나무만을 보는 것과 같이 특정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셈이다. 따라서 불교계의 전산화와 관련해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이에 다른 언론과 불교계가 좇아오도록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거대 담론이란 전산화의 흐름을 꿰뚫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불교계 전산화 기술이나 방식 그리고 기구와 같은 틀을 통일하는 문제에 좀더 앞장서기를 부탁하고 싶다.

### 보는 신문등 차별화 편집

**김 병 규**(前 문화일보 편집국장)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직후부터 취재, 편집, 지면배정 등 신문제작의 필수요건을 재빠르게 개선하는데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의 '밀레니엄 종교지도자 세계 평화선언'을 전문 보도한 것이 그 한 예다. 교계언론 가운데 '현대불교'만이 유일하게 돋보이는 보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는 하나의 조그만 예이지만, 이런 보도들이 사부대중에게 주는 영향과 독자들에게 남기는 인상은 자못 크다. 특색 있고 독창적이며 차별화 된 신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거대 신문으로 발전하는 동기가 쌓이게 된다. 차별화 되지 않는 신문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시대상황이다. 이렇게 독보적 지위를 만들어 가는 교계신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지만 몇 가지 점을 감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비주얼(보여주는) 편집을 늘리도록 권하고 싶다. 사진을 과감하게 쓰고 헤드라인은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1면의 헤드라인은 종단기사에서 탈피해 가능한 한 기획기사를 채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포교와 뉴스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기사를 선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맞춰 편집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셋째, 비구니나 우바이 즉, 여성불자의 활동을 조명하는 기사를 지금보다 좀더 많이 보도해 말그대로 사부대중의 모두 계층을 두루 섭렵하는 교계 언론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 넷째, 제작진이 우수해야 된다. 기자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를 낱낱의 사안에 투영하고 분석해 창조성이 곁들인 기사를 작성토록 권하고 싶다.

### 문화기사 가치평가 반영

**문 명 대**(동국대 교수·미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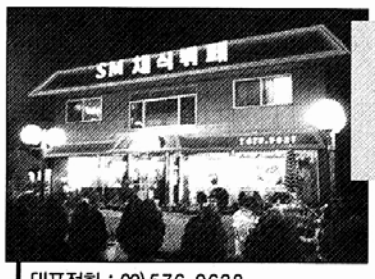
불교 문화·문화재에 대해 교계 언론은 비교적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도나 가치 등의 평가에서는 아직도 일정한 판단 기준이 서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불교 문화의 경우 불미전이나 불교음악 등 불교예술에 대한 갖가지 행사에 대해서 그 비중이나 의의 등을 제대로 평가, 그 비중에 따라 게재 정도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술발표나 서평 등에 대해서도 그 중요도를 엄정히 평가하고 선별한 후에 심층 기사화하기를 바란다.

불교문화재의 발굴과 발견에 대한 기사 또한 편파적으로 게재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불교문화재일 경우 진위문제가 가장 어려운 일이며 가치나 의미 또한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발굴에 대한 기사 역시 쉽지 않는 문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계의 전문가 1~2명의 코멘트를 반드시 게재해야만 할 것이다. 근래 일간신문에서 조차 이런 절차가 생략되는 경향이 농후하여 시행착오가 되고 있다.

불교문화·문화재의 정론을 향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먼 우리 불교계를, 창간 6주년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이 진취적으로 선도할 것을 기대한다.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채식

SM 채식 뷔페



음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마음이 영혼에 미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몸과 마음을 구하는 100% 완존 채식 부페가 있습니다.
•No계란 •No동물성 •No오신채 •No화학 조미료

대표전화 : 02) 576-9638
www.godsdirectcontact.co.kr/SM food

각종 언론 특종보도

KBS2 TV뉴스
MBC TV 생방송 6시
SBS 남희석/이휘재 멋진만남
Korea Herald
기타 다수의 방송, 신문, 잡지에서
특정으로 보도 함.

출장부페
결혼 · 개업 · 환갑 · 생일
40인 이상 15,000원 40인 미만 20,000원

메뉴
밀까스, 연자죽, 켄터키콩고기, 탕수육바베큐, 순수채식 김치, 육개장 등, 콩으로 만든 각종 고기맛 요리 포함

가격
점심/저녁 식사 10,000원 (도시락 동일)
출가자/10세 이하 5,000원

월요일 - 토요일 (점심 11:30-2:30, 저녁 6:00-9:00)




베지러브 오픈!! (채식 베이커리, 채식재료 전문점)
채식빵, 햄버거, 샌드위치, 케이크, 만두, 피자, 햄, 라면 등 채식인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전화 : 02) 577-5749)



뜻대로 사는길

아바타 합동코스

Avatar.

결실의 계절 가을에
국내의 많은 아바타 마스터들이 함께 하는
아바타 합동 코스가 열립니다.

당신은 먼 길을 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당신이 깨어나길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모든 갈등과 고통 · 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이 있습니다.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9일간의 시간으로
당신 자신에게 생애최고의 선물을 안겨 주십시오.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주 관 김희균 마스터, 소 정 마스터
일 시 2000년 10월 21일 ~ 29일(8박 9일)
장 소 용인 원불교 둥지골 수련원
031) 332-3772
참 가 비 160만원(숙식비 20만원 별도)
신 청 마 감 10월 18일
신청 및 문의 김희균 02)396-2736, 016-228-2358
www.avatarcenter.co.kr
소정 016-575-2741
www.avatar@sjavatar.pe.kr

모든 분들이 깨어나길 사랑으로 염원하며 아바타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 소 정 두손 모음

# 둘 아니게 인연 지으면 살기 편해요

비가 오다가 딱 그치니까 햇살이 비치듯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둠이 걷히고 빨리 밝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졸기도 해서 놓칠 때가 많겠죠. 우리는 지금 천리 길을 막 걷다가 '아, 이거 한걸음이면 되겠구나' 하는 찰나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천리 길을 가다가 찰나를 몰라서 천리 길을 천리 길대로 걸어야 하니깐 말입니다. 이 뜻을 잘 아시는 분 같으면 졸지들 마세요. 졸 것 같으면 에너지가 안으로 숙여들고 바깥으로 승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관하라고 하고 믿으라고 하는 그 뜻을 똑똑히 잘 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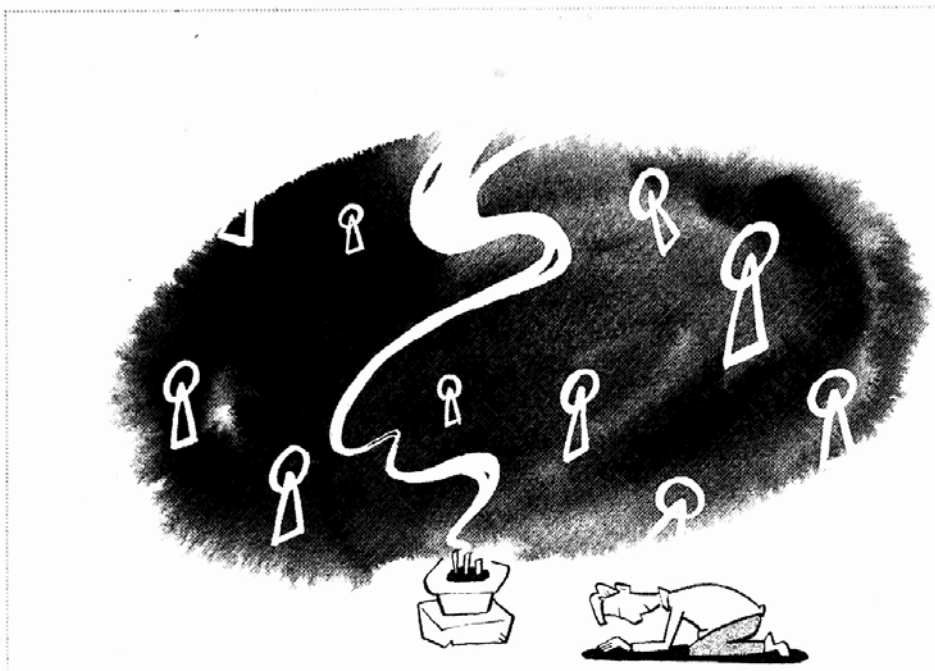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물질계만 아닌 정신계도 밝아지도록
## 나쁜 생각하면 벌써 나부터 좋지 못해

내가 수차적으로 얘기했지만 미생물에서부터 사람까지 진화할 때 그 생명체의 근본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생명체가 생기고부터 그 모습이 변화를 시키는 거죠. 모습이 한계가 있고 찰나가 있고 또 찰나가 있고 찰나가 있는 반면에 다시 형성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헤아릴 수 없는 그 수없는 나날을 지내왔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본다면 그냥 온 사이도 없고 간 사이도 없다. 그래서 왔을 때에 여기를 왔다고 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한테 어떤 방편으로 얘기를 해야 잘 알아듣겠나 하고 아무리

**생명을 나와같이 생각하고**

**모습을 나와같이 생각하고**

**아픔을 나와같이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죠**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습이 있어서 그 습은 만약에 천리를 한 걸음에 뛴다 했을때 못 뜁니다. 그 생각이 못 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한걸음에 뛰어보지도 못했고, 뛴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고, 뛰었다는 생각도 못해보셨기 때문에 천리를 그냥 오래도록 끊없이 가야만 되는 거죠. 그건 집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혼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강을 뛰어넘어야 될텐데 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또 저 강을 건너려고 죽은 맹인들이 쭉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런데 지금 살아 생전에 내가 공하고 내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벗어나게 되면, 내가 없는데 강을 건널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사이 없고 건너는 사이 없이 걸림 없이 살라. 온 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갈 데도 따로 없느니라. 어느 곳은 지옥이고 어느 곳은 천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구석 구석이라는 것, 상하 사방이 다 구석 구석이 알아야 하느니라 한 뜻이 뭐냐. 살아가는 중에 밥먹고 돌아서 다가도 생각을 하게 되고 변소에 가다가도 생각을 하게 되고 마당에 나가다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건 한 찰나예요. 생각나는 건 한 찰나지 길지를 않아요. 길지를 않는 반면에 모든 게 여기서 들고 나는 통신처며, 일체 만불의 통신처며, 세상의 통신처며, 내 여기 이 자리가 없으면 통신을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자리죠.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통신처 즉 에너지처라고 볼 수 있죠. 우린 생명력이 없으면 송장이나 다름없으며 생명력이 없으면 잉태가 되지를 않으니깐요. 제가끔들 생명처고 제가끔들 신이에요.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 움죽거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렇다면 전부 생명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모을 수 있고 펼칠 수 있고 둘 아니게 할 수 있는 그런 반면에 응신으로서 천차만별로 나투면서 만남이 있는 거죠, 공용으로요.

질문1: 진주지원에 이병용입니다. 먼저 진주지원 신도들을 대표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큰스님의 하해 같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진주지원 신도들의 질문 세가지를 한 가지씩 차례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입니다. 큰스님 법문을 들으러 선원에 다닌지 약 2년이 돼 갑니다. 무조건 주인공에 일입하라 하셨는데 저는 스님들께 생활에서 오는 여러가지 일들을 상담하는 것이 자력신앙을 강조하시는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여겨 큰스님 친견이나 기타 스님들께 상담하지를 않았습니다. 스님을 친견하는 것과 그냥 모두가 주인공에서 들고 남을 믿고 놓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요.

### 나와 주인공 함께 있어

스님: 다르지 않는 분들은 이 공부를 해서 생긴 믿음과 감(感)이 있죠. 감. 내가 믿는 마음이 걸림없이 그냥 믿는다. 여기 물이 들어 있으니까 그냥 믿고 마실 때 아무 생각없이 마신다. 이런 거나 똑같죠. 그런 것이 있다면 천리 만리 떨어졌어도 그 당시에 같이 한 자리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깝게 같이 앉았어도 혼합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겠죠. 이것은 자기 주장자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름만 불렀지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주인공하고 따로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러나 따로가 아닙니다. 주인공(主人空)이라는 것은 역대에 내려오면서 자기를 형성시켜 왔고 이끌려고 애쓰는데도 본인이 거기에 들지를 못해요. 항상 이름만 불렀지 아래 위가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 걸음 걷기가 참 무겁다 이런 소릴 하게 되죠. 그걸 잘 생각하십시오.

질문1: 스님 두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천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도재를 모실때 영가를 보시느냐고 스님들께 여쭈었더니 조상 영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도하는 조상의 모습을 못보면서 어떻게 재사를 모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스님: 위로 먼 조상님들은 뵙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바로 위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같이 모시고 살았다면 그 분들의 상호를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오신통에 이런 말이 있죠, 보는 것도, 어디서 온 줄 아는 것도, 남의 마음을 아는 것도, 듣는 것도 모두 도가 아니니 모든 거를 거기다가 개입시키지 말고 그냥 놓고 응신으로서 응용하라. 보는 거를 본다 하지 마라, 그건 도(道)가 아니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 스님네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봐도 본 사이 없이 봐라, 해도 하는 사이 없이 하라, 가고 옴이 있더라도 가고 온다 말하지 말고 걸림 없이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는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 말에 꼭지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잘못 빗나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전 회장님 일가 집인데 거기서 재사를 지내러 왔는데 처음 오시는 분을 데려왔어요. 그 분의 부모님이 난리 때 어떻게 돌아가셨나 봐요. 그런데 그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은 못하고 왜 부모를 담요에다 이렇게 싸서 아무렇거나 그냥 묻었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때 난리 때에 담요를 깔고 돌아가셔서 담요 깐 채 그냥 말아서 치웠습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게 잘못 됐습니까 하고 물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죽어서의 그 모습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면 보는 사람이라면 뭐가 좋겠느냐. 그리고 부모에게 참 공경이라기보다 은혜라기보다 그건 떠나서라도 좀 모양새라도 보기 싫지 않게 정성껏 잘 묻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렇겠습니다' 이러구선 인제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친척 분이라고 그러면서 또 누굴 데려왔는데 그 때는 저 옆이 법당이었죠. 그런데 법당에 그 조상님이 올라가시는데 말이에요. 발뒤꿈치에 이만한 솜 한 덩어리가 달려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봤어요. 솜 한 덩어리를. 그래서 자세히 보고는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뒤에 그랬어요. "왜 조상님의 발뒤꿈치에 붙은 솜은 떼지도 않고 염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대답이 "발뒤꿈치가 부스럼이 나서 떼지 못하고는 그냥 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솜은 떼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소독약이라도 잘 발라서 다른 뭘로 딱 붙여놓지, 어떻게 그렇게 숭상스럽게 했느냐?" 그랬더니만 너무도 기가 막혀 해요. "그거를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것을 보고서 봤다고 하는게 옳습니까, 봤어도 보지 않은 것처럼 하고 그냥 떼버리는게 옳겠습니까.

### 모습 아닌 마음 찾는법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묻는 분만 아니라 딴 분들도 그런 분들이 더러 많죠, 6대조 할아버지라든가 5대조 할아버지라든가 증조 할아버지라든가 그 할아버지가 할 일을 다 못해서 태어날 때 그 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수가 있죠. 그 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모습을 아주 닮아서 나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이 모습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그 모습과 전자에 있던 그 모습이 양면의 모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이 된 마음을 찾는 겁니다. 그러한 연고로 재사를 지낼 때에 조상을 본다 하더라도 봤다고 하지 마라, 또 그런 말을 묻걸랑은 마음으로 연결이 돼서 조상님들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하거라, 이런 얘기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오래된 얘깁니다만 조상님이 층에 맞아 돌아가셨나 봐요. 피를 줄줄줄 흘리고 옷이 뭐 아주 말도 못해요. 그 상태로 그냥 들어와요. 그럴 때 만약에 스님이 모자라서 깨끗이 해드릴 수 없다면 문제가 크죠. 그런 걸 깨끗이 닦아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새 옷을 입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스님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 스님들의 책임인 것이 뭐냐 하면 함이 없이 하라, 응신이 된다 하더라도 응신으로서 함이 없이 하라, 이게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조상님을 천도시킨 그 분의 꿈에 '참 고맙다. 나는 이렇게 잘 입고 목욕하고 이제는 아주 세단차를 타고 간다, 참 고맙다, 너희들 잘 살거라'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층에 맞으셔서 그랬는데 어느 때에 그랬느냐 하니깐 6.25 초기에 그랬답니다. 묶인 채로 그렇게 층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지금 마음공부 하는 분들이 왜 그 공부를 꼭 해야 하느냐. 그거를 씻어낼 수 없다면 생시에 그냥 고통을 받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서 구정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구정물이 들어와서 흙탕물이 된다면 그 고통을 산 사람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게 백지장 하나 사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하라, 놓으라, 아주 믿고 놓으라, 입력이 돼서 그러니까 앞서의 입력을 없애야만 되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놓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을 했다가 안하고 또 의심을 했다가 안하고 그러면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그러다가 그냥 망거지죠.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운 집이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님, 병원에 가니까 기형아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형아는 무슨 기형아야, 기형아 아니야, 걱정하지 말어, 그리고 자꾸 관해" 그랬어요, 그 말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쉽죠, 근데 그 일을 하는데도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기를 만든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일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한 자기가 얼마나 고생이 됐겠습니까마는 지금 생각을 하니까 고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그런 공부를 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알게 됐으며 어떻게 해서 만법이 이렇게 찰나 찰나 들이고 내는 걸 알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 그것을 막상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때에 왜 그것을 떼주지 않았느냐, 왜 담요에다 말아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방바닥에 담요가 타서 그냥 죽게 만들었느냐, 왜 언제 돌아가셨길래 피를 그렇게 흘리고 계시느냐, 이걸 물은 것이 그 후에 생각에 차라리 내가 안물었더라면 하는 후회감이 들더군요. 아는 분에게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을텐데 모르는 분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야릇하게 아는 사람으로 고립되게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알면서도 함이 없이 해라, 알면서도 앎이 없이 해라, 부처님 전자에 계신 분들이 그 모습을 다 알지만은 그 모습을 안다고 하지 말고 함이 없이 해라 이런 말이죠.

질문1: 마지막 질문 올리겠습니다. 영탑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탑에 조상을 모시면 오히려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생전에 사이가 몹시 안좋은 분들을 한 곳에 모시므로 더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무의 세계에 대한 큰스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영에 영을 넣으면 하나

스님: 간단하게 물으시니깐 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될텐데 자세히 알려드릴려니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군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렇게 믿으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언짢게 살았어도 둘 아니게 해놓으면 그냥 하나가 돼버리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게 하니까 그렇지 그것이 해놔서 더 언짢다면 그렇게 하질 않죠. 그래서 그러죠. 잘 모르겠거든 너를 봐라, 오장 육부를 다 지켜봐도 세포 하나가 따로 있는 것이 있나 봐라, 다 일체다, 일체 공체로 있다. 그러면서 공생으로 살며 공용을 하고 산다. 그러기 때문에 공체가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공식으로서 전부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일체 만법이다. 그 만법을 들이고 내는 거는 모두 지구의 주인인 여러분이 다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주인이라면 이 마음의 도리를 좀 알아야 국민이 살기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아까 물으신 것 중에 한데 해놓으면 오히려 더 언짢지가 않은가 하셨는데 때로는 꼭 한데 해놔야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분만 그렇게 하고 한데 있어서 안 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따로 해 주죠. 나는 그냥 천도해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다면 그냥 천도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분의 말씀을 존중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죠. 그것은 스님들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에다가 영을 넣으면 둘이 아니게 되니까 좋고 나쁠 게 없다 이거 하고요, 과거에 그 분들이 살았던 전자를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서 떼어놓아야 되겠다 이런다면 떼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복잡해요, 사람이 살아온 것이 복잡하게 살았기 때문에 일일이 그 마음을 세세히 다 살핀다는 건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공생으로 항상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너도 나도 다 태어나서 고생하고 이러지 않기도 하지만 태어나

☞ 24면으로 계속


가르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 내모습 아닌 참나 있음을 밝히세요

☞ 23면에서 계속

실 분만 태어나셔서 좀 좋은 생각, 좋은 모습, 좋은 환경 그런데서 좀 사시라 이런 뜻이죠.

**질문2:** 중부경남 지원 신도 양우성입니다.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릴 베풀어 주신 큰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한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스님을 만나면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아집이나, 욕심, 집착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혼돈스럽고 무거움을 느낍니다. 초심자가 공부하는 중에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환경이나 장소를 피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 좋고 싫고를 떠난 중도

**스님:** 자기 자신이 없다면 모두가 없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나 강도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좋게 해주면 다 좋은 겁니다. 다 언짢은게 아닙니다. 언짢은 마음이 들더라도 공식으로서 그냥 넣으세요. 또 공용으로 그냥 넣으세요, 둘 아니게. 그리고선 속으로 그냥 관하시고 상대가 좋게 생각할 수 있게끔 좋게 말해주고 끝내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피하실 것이 없죠. 그런다면 언제 어느 천년에 이 세상에 지구에 뿐만 아니라 우주에 모든 물체도 산에 목신도 땅에 지신도 물에 용신도 그 모두를 어떻게 둘 아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인연을 지으세요. 좋은 인연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간편하게 사시게 되실 겁니다. 무겁지 않게, 항상 무겁지 않게 사세요.

**질문2:** 두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미 스님께서 설법을 하셨습니다만은 질문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큰스님 법문을 들으러 선원에 다닌지 10년정도 돼 갑니다. 큰스님께서 법문 중이시거나 담선 중에 신도들이 졸기도 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 집중을 하지 않는다고 또는 정신을 챙기라고 지적하시는 경우를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 말씀 없으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스님:** 저 불은 스스로 내 불을 좇아오너라 이러지 않습니다. 깜깜하면 불을 찾아서 옵니다. 환한대로, 태양도 그렇습니다. 널게 있으면 볕에 갖다 널고 말릴 게 있으면 볕에 갖다 말리고 이러지, 태양이 그것 말려라 저거 썩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도 받아들여서 이것은 옳다 하고선 자기 자신을 기르는 얘긴데, 자기 자신을 기르려면 그냥 뭐 옳고 안옳고 간에 그렇게 하고 가야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도(道)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니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 도의 길이니라. 그러니 여기에서 싫어도 싫다 말하지 말고 좋아도 좋다고 말하지 말고 그대로 중심을 잡고 그대로 나쁘게 하지 마라. 자꾸 이유를 달아서 나쁘게 하지 말고, 나와 같이 생명을 생각하고, 나와 같이 모습을 생각하고, 나와 같이 아픔을 생각하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냐 이런 소리죠. 그렇게 살게 되면 저절로 보살의 응신이 되면서 한 부처니라. 한 도량에 한 부처니라. 너와 나가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너가 너를 발견치 못하고 너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너와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질문3:** 스님, 저는 중부경남 지원에 윤현숙 입니다. 저는 가끔은 저절로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봐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지켜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지켜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자유스럽게 하세요. 우리 사는 게 의도적으로 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면의 참 나하고 나 아닌 내 모습하고 말을 할려면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죠. 자연적으로 말을 하고 또 그게 끊어지면 끊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이렇게 갔다가도 그냥 다른 거를 즉 말하자면 엎어지도록 한 놈도 그 놈이고 일어나게 한 놈도 그 놈입니다. 그런데 일어난 놈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너 아까 엎어지게 했잖어. 그런데 또 지금 일어나게 했잖어. 그럼 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니까 그 내면에서 하는 말이 '네가 밝으면 밝은데로 찾아가고 어두우면 어두운데로 가지 말아야지, 네가 어두운데를 밝음이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엎어지도록 되는 것 아니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람 사람이 거북하게 생각을 하고 거북하게 살지 마세요.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스님 스님, 집을 비워놓고 모처럼 고향에 가서 한 육일 있다 올 건데 집 볼 사람이 없습니다. 뭐 가져 갈 것은 없어도 그래도 집을 봐야만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 집보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면 되잖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셔서" 그러구선 가요. 가더니만 한 열흘 있다가 오더니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아 저이 집 지키는 어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갔더니 집에 오니까 아무 일도 없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 감사하다 그러고 도로 집어 넣었어?"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됩디다"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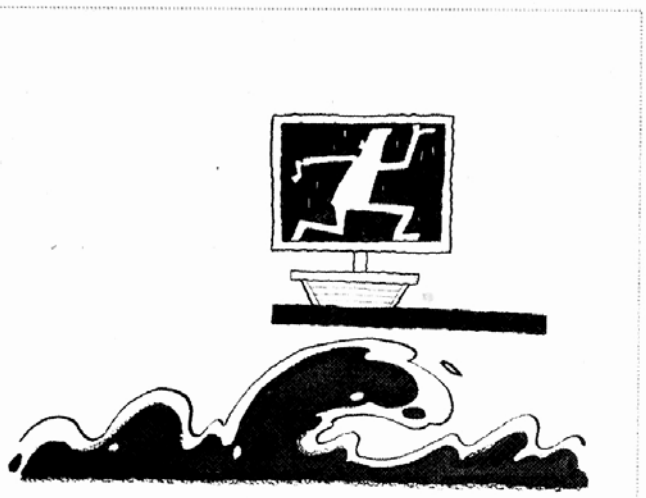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일 관할 줄 알고 정성 다 한다면**
**보이지 않는데서 길이 열리게 돼 있어**

## 살아가는 것이 전부 道

또 어떤 사람은 밤에 자는데 말입니다. 아마 도둑이 들어왔던 모양이죠. "얘 얘, 어서 깨라. 문을 열어 놓고 잤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처음엔 그걸 모르고 도로 드러누웠다가 얼핏 대문을 안 잠그고 그냥 잔 것 같은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니까 정말 대문이 활짝 열리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고 이만한 목판 같이 생긴 함이 있었는데 그 함을 들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 함에 뭐 들었느냐?" 그러니까 "뭐 들은 거는 별로 없고 전자에 시아버지가 쓰시던 도구가 그 함에 들어 있는데 그걸 지고 갔어요." "그럼 그걸 져다 뭘 할려고 지고 갔지?"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고는 가면서 "아무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문 잠그고 자라고 그렇게 깨워주니 우리 주인공이 제일이야"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자기 주인공이 있어서 자기를 이끌고 다닌다는 걸 아셔야 해요. 자기 아닌 진짜 자기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고집이 세고 믿지 못하고 가니까, 믿지 않고 가면은 믿지 않고 가는대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 모습 아닌 자기가 꼭 있음을 밝히세요. 항상 밝히고 있지만 말입니다.

**질문3:** 그리고 스님, 모든 것이 한자리에서 들고 남을 믿고 있지만 생활하다보면 종종 속습니다.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다 한자린 줄은 믿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은 나를 완전히 버리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사는 것이 한시도 눈을 감고 살지 않습니다. 송장처럼 눈을 감았어도 안에서는 벌떡 벌떡 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도 참선이요, 일어나서 섰어도 참선이요, 일을 해도 참선이요, 앉아서도 참선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이게 네가지가 다 겸해서 돌아가고 있다. 앉으나 서나 일하나 또 잠을 자나 모든 게 더불어 같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 몸뚱이 속에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질문3:** 스님, 저는 제가 전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쭉 어질러 놨던 일이라든지 그런 쓰레기들을 이 생에서 다 치우고 다음 생에는 머리 깍은 큰스님 제자가 되어서 이 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그렇게 하세요마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나는 머리를 안 깎아서 이 공부를 못하겠다 이러지도 마시고, 나는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해나가세요. 지금 댁은 머리는 안 깎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이치가 있죠. 자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거두어서 그 자식을 잘 살게 해서 놓는다면 댁에는 저절로 그렇게 행복하게 돼요.

## 가죽 속엔 비 안 들어와

우리가 나쁜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나쁜 사람 나쁜 생각을 하면은 벌써 자기부터가 좋지 못하니까요. 하여튼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남을 하대하고 보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것은 내 모습과 같고 내 아픔과 같은 거니까요. 모두가 밉고 곱고가 없어요. 참 당부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적에요 아주 고통스럽게 복장이 올라 올 때가 많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줄 알기 때문에 그 복통이 올라오도록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금방 죽는다 이런다면 죽을 줄 안다면 금방 죽을텐데 뭐 그렇게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죽을 줄 모르니깐 그렇게 야단이에요.

우리가 사는 건 삶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탤런트 역할 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악쓰고 화낼 게 하나도 없구요, 모질게 할 일이 하나도 없구요, 그저 걸림이 없이 이 공부를 꾸준히 길게 끊어지지 않고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내 몸뚱이를 하나 잡아먹고 나니까 한 가정을 또 잡아먹고, 모든 가정들을 다 잡아먹게 되더라. 그 다음엔 뭘 잡아먹어야 되느냐 하니까 또 딴 나라도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게 잡아먹어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공한 줄을 알게끔 자꾸 발현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저절로 밝게 찾아 올 거다. 멀지 않다. 만약에 백년이 간다거나 십년이 간다면은 한 반절, 즉 50년 5년 밖에는 안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많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너무 물질계로만 밝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계도 같이 밝아져야만이 우주와 지구 등 다른 혹성도 형성이 되는 건데, 보고 듣고 이러는 것만 지금 야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반면에 발달되는 분들은 발달되고요. 이 공부를 해가면서 같이 더불어 살고 더불어 가고 있고 더불어 이렇게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하는구나 하고 침착하게 생각하세요. 나 아닌 진짜 나가 없다면 이런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할 생각도 못하고 고생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전자에 공부할 때 얘긴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밀짚 모자 하나 쓰고선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오고 갈 수가 없어서 풀밭에 그냥 앉았었어요. 그 때 모자위로다가 빗물이 줄줄줄줄 쏟아지는데 거기 앉아서 웃었다니까요. 왜 웃은 줄 아십니까. '야, 참, 가죽 속으로 비가 안들어가서 다행이구나. 허허허, 가죽 속으로 비가 안들어가서 새지 않으니까 참 다행이구나.' 이럭하고 좋아서 웃었다니까요. 그 한 생각이 말입니다. 그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별거였어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가죽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별난 호기심으로서 참 너무나 좋아서 비를 맞아가면서 껄껄대고 웃었다니까요.

내가 전자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요 인제 나이가 좀 들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 말 없이도 자기 자신을 서로 만나고 할텐데 공부를 진짜로 못한 사람은 자기 주인공하고 자기하고도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 주인공하고만 만날 수만 있다면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 스님네들도 다 동참해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만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동참' 하면은 벌써 역대에 헤아릴 수 없는 조사들과 더불어 같이죠.

나는 아주 참 극박한 거를 지난번에 느꼈어요. 뭘 느꼈느냐 하면 사람이 한 생각을 하기가 모르는 사람은 어렵다고 보는데 아는 사람은 한생각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 한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멋지구나, 그리고 그렇게 평탄하구나, 그리고 걸림이 없구나, 그런 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이 한생각하는 도리를 아실려면 이게 속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일도 '주인공, 너만이 불화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잖어.' 하고 놓는 겁니다. 이 놔버립을 아주 주시해야 이 다음에 큰 뿌리로서 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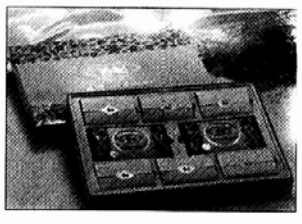
여러분한테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든 일에 관할 줄 알고 정성스럽게 한다면 보이지 않는데서 다 길이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만 잘 사시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남도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잘 하면 식구는 물론이고 남들도 다 잘 살게 됩니다.

**※위 법문은 2000년 9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마다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목욕 재개향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生氣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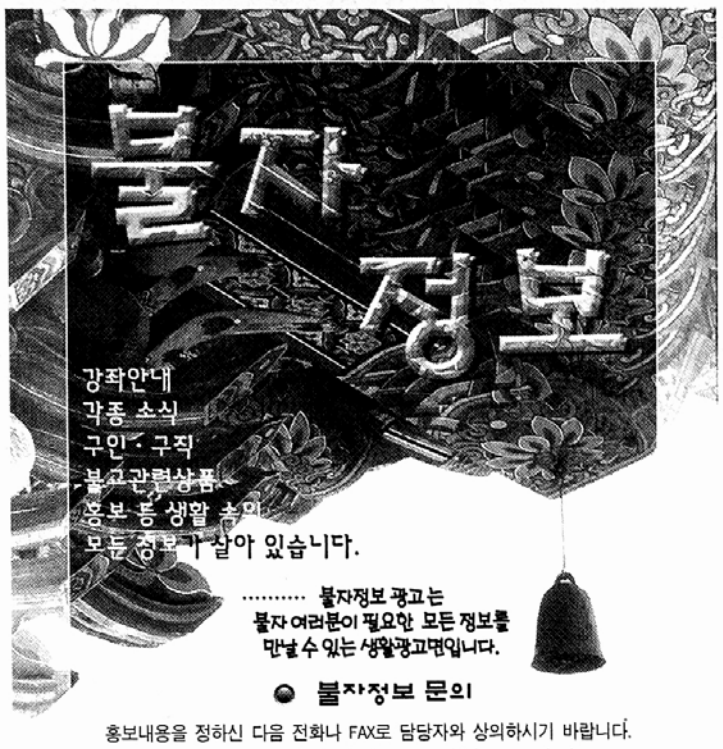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659-8148 공급자: 석씨향방




##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易學講座**
사주학 전문 (단원선생 직강)
■개 강 : 9월 15일 오전10시
(수시입학도 가능) 테잎도 배포함
※ 쉽게 배우고 특히 다른곳에서 배웠어도 이해가 않되는분. 통변의 달인
02)2275-7114


■ 서산대사 肖像畵추정
■ 채색담채 (다덤장지)
■ 약200년전 추정
■ 양도가 : 백만원
규격 26×40cm
053)982-6778 /011)813-3679
· 전화주시면 칼라사진 우송해 드림 ·

**神秘한 자만 옥**
▶ 당뇨, 고혈압, 비만·불면증, 두통
▶ 스트레스, 피로, 직장, 수험생, 교통사고, 후유증
▶ 40·50대 주부 화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북경 중의원 부속 중의 연구소 임상실험
불면증 96.9% 심장질환 92.9% 두통 83.3%
고혈압 77.8% 귀울림병 91.3% 관절염 60%
108 염주 1세트 = 8만원 수험생 팔찌 = 2만원
053) 982-6778 011) 813-3679

**보이산차**
벽돌전차, 육보차
칠자병차 소타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도매가 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니다.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구인구직

**탈종 공고**
• 사찰명 : 보현사
• 주 지 : 신대순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48번지 위본인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법하

**비구니 스님만 보세요**
▶ 몸이 아파서 대중에 못나가는 스님
▶ 경제사정으로 병원에 못가는 스님
▶ 병원에서도 완쾌치 못하는 스님
▶ 걸망을 풀고 편히 쉴곳이 없는 스님
▶ 무료 침식 제공 해제비 지급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
약사사
02)384-5060 / 011)9870-5060

**결혼식을 올려줄 영가(女)를 찾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영가(女)를 찾으오니 연락부탁드립니다.
75년생 (을묘생) 26살(女)
76년생 (병진생) 25살(女)
78년생 (무오생) 23살(女)
031)353-6430
약사암 주지 합장


소원성취 안전운행 사업번창 결혼영혼 가정화목 부부화합 삼재소멸 관재구설 운수대통
각 간절한 소원을 알려 **시험합격**
(승진,소원성취)
八公山 갓바위 천일기도후 경명주사로 직접그린 달마
■보급가 : 3만원
■사업성취 : 금니로그린 달마 5만원
053)982-4976 / 011)813-3679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 포교당-
**법왕사 행자(男) 모집**
▸세계 최대불교 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사에서는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신심있는 행자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고졸이상의 40세 미만으로 뜻이있는 분이면 됩니다.
(단 고졸 이하는 검정고시 교육 후 자격 부여됨)
▸대학교 불교학과에 진학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 시까지 법왕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20세전후 환영,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법왕사(법신출판부)발행 생활불교음악(목)이 발간되었습니다
(부처님말씀의 음성공양으로 업은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 053)766-3747
▶ 인터넷 : www.bubwangsa.or.kr

**기도, 휴양, 공부하기 좋은 도량입니다**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청강사
055)932-5706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강사 : 엄윤문 원장 (명학비해 外2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2)752-9013
청운역리 학원

**진품 보이차**
보이 명가는 보이차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등시해 교수가 품질 검증한 보이차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02)3443-9612
Fax)544-9649

**행자 모집**
본 사찰에서는 불사가 완성되어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 정법대로 바르게 수행 할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인원 : 00명 •학력: 고졸 이상
•연령 : 만 18세~40세 까지
많은 큰 스님들이 수행하신 도량
대한 불교 조계종 사찰
011)9413-0055

**부전스님 기도스님**
인연있는 사찰을 찾습니다.
011)337-5009

**「석가삼존불」모실 인연 찾습니다**
1. 석가모니불(3자), 문수, 보현(2자반) 동불입니다.
2. 신중탱화, 아미타불 탱화
▶ 가격: 500만원
011)751-7960

사찰안내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시 남구 산사
• 평수 : 대지 250평, 田150평
• 건물 : 법당 24평, 요사채 30평
사찰내 차량진입 가능, 다량주차
• 가액 : 3억 3천만원
032-424-3324

**(제주도) 중문 부동산 공인 중개사**
급인내 -
사찰부지 현 과수원 1,800평 평당 3만 8천원
사찰부지 현 과수원 1,500평 평당 3만 5천원
사찰부지 현 과수원 2,500평 평당 3만 5천원
사찰부지 현 과수원 14,500평 평당 2만 9천원
별장 및 사찰 부지 2,500평 평당 15만원
중문관광 단지입구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 30 건물 130
별장 대지 225평 지하 15평 지상 28평 1억 3천

**녹차 밭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화계면
• 전 600평, 산 3140평
• 토굴, 집터 가능 (산세수려)
• 녹차 밭이 조성되어 있음
• 자동차 길 있음
• 가액 : 절충
055)883-9421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사천읍내
◆평수 : 종교부지500평, 대지110평
◆법당18평 (삼포집, 콘크리트 저) 요사채116평 ,그외 건물2동
◆가격 : 3억 8천만원
055)852-8348

**사찰 안내**
◆ 위치 : 관악산
◆ 평수 : 65평 (대지)
◆ 건물 : 지하 15평, 1층 50평 (요사채) 2층 25평(법당)
◆ 특징 : 산밑, 아파트인접, 등산로, 약수터, 마을버스 절 간판
◆ 가액 : 2억 9천만원
011)241-0408

**벽 조 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108염주 스님 = 12만원
신도용 = 6만원
학생시험기도용 = 3만원
■ 의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600년된 진품이 여기 뜻있는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인을 만납니다
053)982-4976/011)813-3679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자양면에 자리한 산세수려하고 임법당의 기도도량임
• 함께 기도 정진하실 비구니 스님, 보실님 식구분들 구합니다.
• 건강이 안좋으시분 수양 기도 가능함
• 전세 월세 매매가(4200만원) 절충 가능함
054)338-1237/018)510-1237
연혜스님 합장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만평, 법당 15평
• 요사 25평 • 가액 15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011)232-4082
광진불사

**사 찰 (급) 안 내**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대지 : 435평 종교대지 등기필
◆건물 : 법당31평, 목조(삼포,오포,금단청필) 요사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명부전9평 단청필, 주지실 · 사무실12평, 창고 약4평 주차장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 가능
◆가액 : 8억 건물완공4년, 총공사비 12억,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특징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도량으로 창건주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에 양도합니다.
055)294-4889 / 02)351-4447

**사 찰 안 내**
◆위 치 : 경기도 장호원 소재
◆부 지 : 2700평
◆법 당 : 50평 (목조)
◆천불전 : 70평 (목조)
◆요 사 : 200평
◆양도가 : 13억 (분할가능)
※ 100년 역사의 전통사찰임
◆위 치 : 경기도 포천군 이동근접
◆부 지 : 20,000평
◆법 당 : 30평 (목조)
◆명부전 : 30평 (목조) ◆주지실 : 20평 (목조)
◆요 사 : 50평 (현대식)
◆양도가 : 10억
※ 천혜자원의 산세와 사시사철 계곡 있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
018)273-9390
※ 전국소재 사찰,암자 양도,양수하실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10평
• 요사 : 15평
• 부지 : 60평
• 가액 : 1억 9천
• 위치 : 부산
• 법당 : 35평
• 요사 : 45평
• 부지 : 60평
• 가액 : 2억
• 위치 : 충주
• 법당 : 22평
• 요사 : 50평
• 부지 : 350평(종중)
• 가액 : 8천 5백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지리산 토굴 (황토방 신축) 안내**
• 위치 : 실상사 마천→백무동 방향 →가채마을 위
• 대지 : 422평 한옥건물 2채 탑 들레 18m 석축 기초 완공 밭 183평 밭 165평 임야 2583평 경관수려,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약 600고지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1)9542-9060/055)963-4965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2층 40평 (법당, 방3, 주방)
• 시설 : 삼존불, 원불 108, 신중, 칠성 탱화
• 가액 : 보증금 5백, 월 5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2)489-5465 / 011)258-114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방동 신대방3거리 전철역 (7호선 5번 출구)옆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방 3개, 부엌, 욕실 및 다용도실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월60만원) 전세가능, 시설비 1천만원 또는 보증금 3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741-208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서구청 4거리(한빛은행맞은편)
• 평수 : 4층 건물 3층, 46평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천만원
• 특징 : 시설 A급 위치 최고(법당 시설 일체, 방 3개) 후불탱화 53부처님, 관세음 보살, 칠성 탱화, 문수보살, 지장전
053)565-0430 / 016-875-0934

**좋은터 안내**
• 스님 : 암자 (토굴)
• 화자 : 서재 (연구실)
• 부자 : 별장
• 위치 : 경남 합천 삼가 부근
• 대지 : 287평, 전답 773평 전통 고옥과 수려한 자연
• 가액 : 2억 8천만원
055)573-897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산 내 165번지
• 평수 : 대지 500평, 법당 1개 요사채 2, 목조건물
• 가액 : 1억 3천
※ 주차장 공간 가능
055)834-3282

**포교당 안내**
• 위치 : 미아 3거리
• 평수 : 46평
• 가액 : 보증금 2천 월 70만원
• 특징 : 시설 A급, 교통 요지
02)941-3195

**사찰(급) 안내**
• 위치 : 남해바다 (전남고흥)
• 부지 : 330평 (종교부지 임야) 종교부지는 1천평 토목공사 완공
• 건평 : 16평 2동
• 특징 : 정동향 남해바다와 100m 근접, 암반수 절도량까지 차량출입가능, 기도도량 연수원 고시원 적지
• 가액 : 1억 8천만원 (답사상담 후 결정)
02)488-0077 / 011)9058-7000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동구 천호1동 25-2 3층
• 보증금 : 3천 월 40만원
• 시설비 : 천만원
• 평수 : 27평
보 원 사
02)413-7180 / 3426-1100
016)272-8043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영덕
• 평수 : 1,000평 (법당 1, 요사 1)
• 특징 : 포장 및 조경 완벽
• 가액 : 1억
017)804-3587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인양
• 대지 : 70평 건물 약 60평, 법당 20평 공양실 16평
• 특징 : 사찰내 모든 집기류 무상 제공 심야 전기 보일러, 화장실 3개, 욕실 2개
• 가액 : 8천만원 (전세가능)
052)254-1929
011)9315-1200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 평수 : 1500평 이상 국유지
• 건물 : 건평 28평, 인법당, 방1개 주방 · 욕실
• 특징 : 인천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 전망좋고 산세좋은 청정 도량임
• 가액 : 답사 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이나 보살님 찾습니다
011)321-0194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시장 근처 (법원 앞)
• 대지 : 50평, 건평 46평 2층 법당(2층 위치) 요사채(1층 위치)
• 특징 : 교통편리
• 가액 : 1억 8천
032)426-9490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
• 평수 : 약 830평
• 특징 : 법당 20평(목조), 요사채 3동 각 30평씩, 방6개, 사신각, 조각, 3층탑, 5층탑, 미륵불, 지장전, 납골당불사주읍내 수재지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스님이 몸이 안좋으신 관계로
• 가액 : 답사 후 결정
02)2618-0767/011)753-0768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 42평 방3 주방1 2층
• 시설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에어콘, 대형냉장고
• 가액 :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1)429-0222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 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지장,관음(동불조성),후불,신중,칠성탱화,대북,범종,(불단조각,단집)경탁,경상,명가단법당 및 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건물 : 임법당, 방 3개, 입식부엌, 목욕탕 2개
• 가액 : 보증금 무, 월 13만원 (1년 150만원) 권리금1000만원
• 특징 : 대규모 아파트 단지 뒷편
054)335-374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만덕3동
• 구조 : 3층건물3층38평(옥상사용가)
(법당,대방, 중방,조리장, 화장실)
• 시설 : 청동석가모니불, 청동 관세음보살,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엠프시설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300만원)
051) 333-0172

# "마음 찾으러 한국에 왔어요"

### 독일 성지순례단 41명 방한 '눈길'

## 한마음선원서 대행스님과 신행문답
## 불국사등 고찰 참배…영적 갈증 해소

"큰스님, 반 친구들에게도 마음공부를 알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7살바기 모리스)

"친구들도 비유하자면 같은 나무의 가지와 같아서, 너의 마음이 친구들과 같아지면 한 뿌리에서 영양이 공급되듯 저절로 한마음이 되는 거란다."(대행스님)

1일 안양 한마음선원 큰법당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이국 땅 벽안(碧眼)의 재가 불자들이 무릎을 꿇은 채 스님과 법거량(동시통역)을 하고, 문답이 끝나면 예의바르게 삼배를 올리는 장면이 연출된 것.

화제의 주인공들은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에서 온 성지순례단 41명. 이중 교포 불자를 제외한 대학 교수, 의사, 기업 임원, 대학원생 등 30여명의 독일의 지식인층 불자들은 한국불교를 처음 접한 감동과 신심으로 연신 진지한 물음을 던졌다.

울덴버그대 랄프 교수는 하루에 100번씩 '주인공(主人空)'을 찾으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고백했으며, 주부인 이비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마음 공부를 통해 간암을 이겨낸 사례를 들면서 이번 한국방문은 마음을 찾아가는 성지순례라고 토로했다.



◇독일 성지순례단은 1일 안양 한마음선원 법회에 참석, 대행스님과 신행문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의사인 한스프라게씨가 질문하는 장면.

베를린 자유대학병원 의사인 한스 프라게는 마치 마음의 고향에 온 기분이어서 천국같다고 한국 신도들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사후 영혼의 영적 진화와 지구적인 에너지 고갈문제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행스님은 "서구인들은 밖으로 하나님을 찾던 믿음을 한 생각 안으로 돌리면 마음자리를 찾기 쉽다"면서 "과거를 후회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찰나찰나 평화롭게 살아가는 생활선을 닦다 보면 모든 일이 여여(如如)하게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지난 9월29일 서울에 도착한 순례단은 이날 법회에 앞서 비원·창덕궁·국립박물관 등을 둘러보았으며 2일부터 관광버스를 이용해 치악산, 경주 남산 및 불국사, 청도 운문사, 양산 통도사, 지리산 쌍계사·칠불사, 합천 해인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실시하며 한국불교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낀 뒤 10일 출국했다.

순례단을 이끈 혜진스님은 "이번 성지순례는 물질만능주의의 소용돌이에서 헤메이던 서구 불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명에서 눈을 떠 혜안을 얻으려는 구도의 길"이었다며, "한국의 산하와 고찰 순례를 통해 얻어진 불심이 더 많은 서구인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6년 뒤셀도르프 카스트에 문을 연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내년 8월11일 에센 부루가 할레에서 독일 대법회를 열어 99년에 이은 유럽의 한국불교 붐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종단소식

### 조계종

#### 포교원 군종요원 선발

포교원(원장 정련)은 15일부터 11월10일까지 조계종 스님으로서 4년제 대학(학사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군종요원을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1966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자로서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스님. 17일 오후2시 포교원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갖는다. (02)720-7060

#### 태권도공원 발원 탑돌이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지명)는 세계태권도공원 유치를 기원하는 법주사 탑돌이 행사를 2일 지명스님과 김종철 보은군수, 박대종 보은문화원장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법주사 말사 신도 모두가 참여하는 보살계 법회와 함께 청주시립국악단이 영산회상(염불, 타령)과 태평무 등을 연주해 박수를 받았다.

### 천태종

#### 태흥사 관음불상 봉안식

의령 태흥사(주지 갈지)는 12일 오전 10시 관음불상 봉안 및 원통보전 낙성식을 봉행한다. (055) 572-0108

#### 월경사 홈페이지 개설

진주 월경사(주지 무원)는 사이버포교에 주력하고자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월경사 홈페이지(www.ombara.or.kr)에는 월경사 연혁과 소식, 각 신도단체 소개, 자유게시판, 방명록, 전각안내와 총본산 구인사 가는 길 등이 들어있다.

### 진각종

#### 경주·포항 밀교법회

경주·포항 교구 밀교교리대법회가 '삼라만상이 모두 법신의 몸이다'는 주제로 9월 30일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1천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혜정 종학연구실장은 "진정한 참회는 마음으로 하는 것, 즉 자성참회"라는 것을 강조하며 "삼라만상 일체의 모든 것은 법신부처님의 몸이며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이라고 강조했다.

### 태고종

#### 보우국사 탄신 699돌 다례

종조인 태고보우 원증국사 탄신 699주년 다례법요식이 18일 오전 11시 북한산 태고사 태고보우국사 부도앞에서 봉행된다. 오전 11시 범종 타종을 시작으로 전통다례법요의식으로 모셔지게 되는 이날 법회에는 인곡 총무원장 등 종단 원로 및 간부 스님들과 신도 등 5백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02)745-2030

#### 경기북부 종무원 수륙재

경기북부종무원(원장 신명)은 17일 오후 1시 한탄강 국민관광단지에서 경기북부지역 수해재난 극복과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이 확산되기를 기원하는 수륙영산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오후 1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부 기원법회와 2부 영산대재로 나뉘어 진행된다.

### 조동종

#### 정각사 통일발원 법회

정각사(주지 해월)는 13일 오후 2시 울산 송하체육관에서 종정 지명스님을 증명법사로 남북통일 속성취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 총화종

#### 충남북 종무원장 청해스님

1일 천안 만경사에서 대전시 및 충청남북도의 사찰 스님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대전·충남북 종무원장에 청해스님(만경사 주지)을 선출했다.



◇5일 통도사에서 봉행된 부도헌다재.

## 문화향기 그윽한 통도사 개산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신허)는 6일 개산 135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로 개산조 자장율사의 뜻을 기렸다.

6일 설법전에서 열린 개산대재 법요식에는 신허 주지 스님, 안종길 양산시장을 비롯한 2천 여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이어 오후에는 제 4회 괘불탱 특별전이 박물관 중앙홀에서 개막됐다. 또한 이날 통도사는 개산대재를 기념 스케치북 3천 여개를 제작, 어린이 불자들에게 나눠줬다.

특히 5일에는 제2회 성보예술제 작품전, 부도헌다재, 괘불이운, 부처님 가사, 자장율사 가사 친견, 산사음악회 및 불자연예인 초청공연 등 예년보다 한층 격조 높은 문화행사와 전시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 통도사 자장암 전설의 금개구리 나타나



통도사 자장암에 최근 신라시대 자장율사(慈藏律師)가 길렀다는 전설의 '금개구리'가 나타나 이를 보려는 불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통도사측은 5일부터 열린 개산대재(開山大祭)를 앞두고 사찰내 관음전 뒤 바위틈에 둥린 금와공(金蛙孔)에서 금개구리가 거의 매일 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천미희 기자

## 성철스님 7주기 추모재

### 7일간 참회법회…11월3일 기념관 낙성식

오는 17일(음력 9월20일) 성철스님 입적 7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가 마련된다.

해인사 백련암은 10일 오전 7시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7일 밤 7일 낮 동안 스님을 추모하는 '칠일칠야 참회법회-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행사를 갖는다.

이번 참회법회에서는 2시간에 1천배씩 칠일 낮밤 동안 절을 해 팔만사천배를 회향함으로써 남북평화통일과 일체 중생의 행복을 발원하게 된다. 16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성철 스님 사리탑에서는 3천배 참회기도를, 칠일 칠야 참회기도의 마지막 날이자 스님 열반일인 17일 오전 10시30분 해인사 대적광전에서는 법회를 마무리하며 추모재를 갖는다.

또 백련불교문화원은 12일 오후 7시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스님의 상좌였던 원택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을 초청, 법문을 듣는다. 11월 3일 오전 11시에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스님의 생가터에 조성된 기념관과 겁외사(劫外寺) 낙성식을 거행한다. 김재경 기자

## 미타사 지장상 점안

### 높이 41m 세계 최대

충북 음성 미타사(주지 명안)는 4일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증명으로 이원종 도지사와 정상헌군수 등 관내외 각급 기관단체장과 신도 등 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대 지장보살상 점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점안식, 2부 개회식 및 법어, 3부 남북통일기원 합동영가 천도재 순으로 진행됐다. 또 4부 행사로 세계 최대 지장대불 조성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가 불자 가수와 미타사 합창단이 출연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점안된 지장대불은 지장보살상으로는 세계 최대이며 입불상으로는 국내 최대인 높이 41m(108척, 좌대 7m 포함)로 그간 국내 최대 입불상이었던 속리산 법주사의 30m높이의 미륵불(좌대 4m 포함)보다 훨씬 크다. 두께 2m의 시멘트로 만든 뒤 금이 섞인 금속으로 도장을 한 이 불상의 무게는 3000t이며 지장보살상의 보주의 크기만도 지름이 2m나 된다. 불상 조성비는 17억여원.

미타사는 오는 2003년까지 성지조성 불사를 추진, 앞으로 사찰용지 9만여평에 유료 양로원 건립 등 사회복지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본지 279호 22면 참조> 김재경 기자

### 천은사 통일교육장 된다

### 이승휴유허지 성역화 일환

민족역사서시 제왕운기(帝王韻紀)를 저술한 장소인 삼척시 미로면 두타산 천은사 일대를 새로운 통일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선양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승휴선양사업회(회장·장을병 민주당최고위원)와 천은사(주지 일봉)는 4일 이승휴추모 다례재를 열었다. 이날 다례재에서 천은사 주지 일봉스님은 "이승휴 유허지가 지난달 16일 국가 사적(史蹟) 제421호로 지정된 만큼 면모를 일신하는 성역화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휴선양사업회는 "동안선생이 〈제왕운기기〉에서 한국·한국인의 정체성은 단군역사사상과 단군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은 분단시대를 사는 이 시대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

### 서귀포서 횃불대행진

제6회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및 횃불대행진이 7일 서귀포시 중문동 법정악과 중문초등교 천제연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법정사 항일항쟁은 1918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법정사 주지 김연일스님 등 스님과 신도, 주민 등 4백여명이 일제에 항거해 봉기, 서귀포를 향해 진격하다 66명이 검거되고 이 중 5명이 사망했던 대규모 사건으로 3·1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단일 투쟁중 전국 최대 규모항쟁이다. 김재경 기자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회균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불자정보

.....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포교당 안내
● 위치:대전시 동구 홍도동 72-27
● 법당:30평 삼존불탱화 신중탱화등 모든 시설이 되있음
● 전세:2500만원
● 시설비:1000만원
042)627-5925
011)742-5925

토굴 안내
● 위치 : 경주
- 제가불자님이나 스님께 토굴과 땅은 본인의 소유가 아님
- 시내에서 20분거리
- 토굴마당까지 포장도로 완벽, 계곡과 산세 수려함, 수양이나 정진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 가액 : 550만원
054)771-4779/
011)562-8640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선광사
● 평수 : 209평, 379평
● 가액 : 7,500만원(답사후 절충)
● 특징 : 탑 도량
033)732-3152
011)363-3193

암자 안내
용도 변경 가능 (별장)
- 흐르는 계곡 물이 최고 좋음
● 가액 : 답사후 절충
031)582-0635

사찰(급) 안내
● 위 치:안양 대림대학 뒤 비봉산 입구
● 부 지:160평 신축 가능
● 국유지:200평 사용 함
● 가 액:3억 5천만원
011)340-6869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치:서울 중랑구 신내동
● 평수:40평, 4층건물 4층 방2 주방1 (주차장)
● 가액:보증금 1,500만원(월70만원)
● 시설비:3,000만원(법당시설 완벽함)
● 특징:주변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지역 도심포교에 적합함
02)436-3647

토담집 개조 암자로 토굴·기도터 최적지

○ 군위 우보 IC에서 10분거리
○ 대지 169평 토담집 3채
○ 양도가 3,500만원
※ 1년 사시면 반드시 發福터 - 마당 넓고 뒷山 명당지
※ 전세, 5년 분납도 가능
※ 처음 사찰 운영하실 분도 가능
○ 군위 고로 인각사 부근
○ 대지 151평 밭 724평은 집앞 100M 떨어져 있음
○ 암반, 계곡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
○ 황토집 2채 -불때면 3일간 따뜻
○ 양도가 3,900만원
사찰, 창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2-3679

토굴터 안내
장엄한 산세, 토굴마당까지 도로 완비, 전용허가 취득, 평토 작업 완료, 전망 좋은 최고의 토굴터 347평 절터 5000평, 평당 2만원, 도로 완비 (경남 합양)
02)423-5730/588-7878
017)301-1970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신원면 (거창에서 약25분거리) 임야 2만평 차량 진입 (포장도로) 풍수 최적 명당 사찰터
● 가액 : 7천만원 (가격절충)
전북 무주군 무풍면 (무구 구천동에서 5분거리) 임야 1천평 (5천만원)
017)542-7010

대사찰지 사찰양도(전세)
법당 五존 법불상 석굴암 7척척불 굴안 50m 50평五층탑 간음보살 아미타불 山神神 요사채 34평 사찰부지 1,200평 양도가 2억5천 미륵불지 조성완료 도로포함 500평 법당 요사채 조성 가능지 5百평 포함 1억 별도임 직접 스님 보살 30%감 전세분은 2~3년 후 사찰 매입가능한 분 영입 창건주 노령으로 직접 대사찰 조성할 분 연
충주 033)848-176 / 019)848-1766

포교당 안내
● 대지 : 40평 방3개
● 가격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8)385-1234

사찰 안내
● 위치 : 군산시 성산면 상오리 상안
● 대지 : 720평
● 법당 : 50평
신신각, 요사채, 칠성각 미륵 종각 선방
● 가액 : 4억5천 (절충 가능)
011)675-9828
063)453-2970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입니다.
● 평수 : 6만평 도량내에 부지 1800평 현재 현탑 현불 조성중이며 기와 단층 40평 창고 등등
● 특징 : 산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 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대사찰 부지임 ● 가액 : 2억 5천
018)533-7780

# 오지마을 폐교가 '병원되던 날'

## 병원 불자련 의사·간호사 의료봉사
## 내과-안과-치과-한의과 등 진료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강원도 홍천에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누렇게 익은 벼들이 저마다 고개를 숙인 넓은 들판 가운데 100호가 채 안 되는 농촌마을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마을 노인들이 1일 아침 일찍부터 폐교가 된 구만리 초등학교에 삼삼오오 모여있다.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는 이곳 외딴곳에 의사들이 직접 찾아와 무료 진료를 한다는 마을 이장의 안내방송을 듣고서 하던 일손을 놓고 모인 것이다.

국립의료원, 서울국립정신병원, 춘천국립정신병원, 국립경찰병원, 경희의료원, 동국의료원 등 6개 병원 의사 10명, 간호사 27명을 비롯해 총 58명의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 의료 봉사단원들은 더욱 분주히 움직인다.

"할머니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배도 아프고 다리가 아파 걷지도 못할 지경이야"

진료가 시작되자 안내데스크의 간호사가 할머니들에게 진료받을 과를 지정해 준다.

"할머니는 내과와 한방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이날 무료진료소를 찾은 사람은 모두 100여명. 안과 32명, 치과 32명, 내과 64명 한방부인과 5명, 한의과 63명, 정신과 3명 등 중복진료를 받은 사람까지 합하면 200여명이나 된다. 장기적인 의료과업으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지금, 의료봉사에 참여한 연합회 회원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적 사상을 실천한 진정한 불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동국의료원 진료과장 김동일씨는 "의료봉사는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인술을 베풀어 병을 치료하고 또한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의료봉사의 의미를 밝혔다.

며칠전 배추밭에 물을 주다 허리를 삐었다는 박금순(62)할머니는 아파도 병원이 있는 춘천까지 나갈 업두를 못내고 있었다. 한방과에서 침을 맞은 박할머니는 마을까지 찾아와 무료진료를 해주는 이들이 무척이나 고맙기만 하다.

마을 이장 반경순(42)씨도 주민을 위해 이곳 오지까지 찾아온 무료의료봉사단이 고맙기는 마찬가지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아프셔도 병원 한 번 모시고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 내과, 안과, 한방과 진료를 받았다.

반 이장은 "농번기에는 다쳐도 일손이 부족해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마을주민을 대표해 무료 진료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히고 점심 공양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금방 밭에서 따온 싱싱한 가지 몇 개를 내밀었다.

김주효 병원불자 연합회 회장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회원들이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 것 같다"며 "앞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 해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연합회 조직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천=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 '달라이라마 방한' 시민운동 확산

## 각계 인사 선언문 발표…아셈 포럼서 결의문도 채택

달라이라마의 방한허용을 촉구하는 방한준비위(이하 준비위)의 활동이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각계 대표들의 선언문발표, 외국인들의 방한지지 의사 표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9월 28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달라이라마 방한 성사와 문화주권 회복을 위한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1백여 종교·사회단체에서 서명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준비위는 11일 오후2시 탑골공원 앞에서 '경진년 2000 문화독립선언' 행사를 연 후 명동까지 행진, '삼전도의 국치'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치고 주룽지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중국대사관에 전달한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부터 학계·법조계 인사 각 33명이 방한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으며, 2일과 5일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인 각 33명이 '달라이라마 방한 성사와 문화주권 회복을 염원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각계 인사들은 달라이라마의 방한허용을 '문화적 주권행사' 차원으로 해석하면서 정부의 유보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선언문은 중국의 압력으로 방한허용 방침을 철회한 정부의 태도를 '국가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조만간 방송언론·여성·영화·종교계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각 33인 대표들의 선언문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일부터 서울서 열리는 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셈 민간포럼에 정식으로 참여해 토론을 벌여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정상회의 기간중인 21일을 '국민행동의 날'로 선포해 시위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 개성 영통사 복원 가시화

## 북 추진위 기초공사
## 김동현교수등 방북답사

의천 스님이 출가·입적한 성지 개성 영통사가 스님의 열반 900주기를 맞아 복원된다. 북한은 현재 '영통사복원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이미 복원설계도를 마련하고, 이에 맞춰 일부 기초공사를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은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방북, 영통사 터를 비롯한 개성 일대의 유적을 둘러본 김동현(동국대), 이형구(선문대) 교수에 의해 확인됐다.

영통사 복원에 앞서 고고학적 자문형식으로 방북한 두 교수는 "북한은 영통사가 천태종의 성지인 만큼 복원사업에 천태종을 비롯한 남한 불교종단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복원 설계도에 따르면 영통사는 주건물 8동, 회랑, 비각, 3채의 승방, 의천 스님의 부도를 비롯한 부도지구 등으로 옛 모습을 되찾는다. 특히 이번 방북 답사에서 김 교수는 절 입구의 돌다리 흔적 부근에서 북한의 연구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정자 터를 발견해 정자까지 복원하도록 권유, 설계도에 추가될 전망이다. 오종욱 기자

## 전국 비구니회관
## 11일 상량식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수서동 744 비구니회관 신축 현장에서 비구니회관 상량식을 봉행한다.

비구니활동의 근본도량이 될 비구니회관은 대지 1천2백40평에 연건평 2천5백58평의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건립된다. 반야용선(배) 모양을 한 현대식 건축물로 조성될 회관에는 대법당과 교육관, 대강당, 강의실, 체력단련실, 불교문화실, 도서관, 탁아실 등이 갖춰진다.

회관은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



◇대한불교 산악인 연합회 회원들은 3일 안동 홍은사에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했다.

## 민주당 연등회원
## 사찰 행사마다 '적극'

민주당 국회의원 불자들의 모임인 연등회(회장 김기재)가 최근 사찰에서 열리는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불교계 민심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총재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기재·조성준·장정언의원 등은 9월29일 열린 불교방송 개국 10주년 기념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2일 쌍계사 법회 6일 통도사 개산대재, 4일 부산 법연사 호국영령 수륙대재, 8일 제주 관음사 영산대재에 참석했다. 한명우 기자

## 산악인련 남북통일 기원 법회

### 3일 안동, 1천명 동참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 이하 연합회)는 3일 연합회 지정수행도량이자 효행실천의 교육도량인 안동 홍은사(주지 계오) 창건 3주년 및 남북평화통일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파계사 성전암 조실 철웅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과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 이의근 경북도지사, 권오을 국회의원, 정관용 전 내무부장관, 허화평 전의원, 안동시장 정동호, 전국신도회 선진규 회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산악인 불자 1천명이 동참했다.

타종과 함께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철웅스님은 법어를 통해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새천년 개천절을 맞아 조국의 의미를 되새기자"며 "우리 모두가 모두 불성을 가진 부처님임을 깨닫고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생활화해 이 땅을 불국정토로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제 2회 서암효행상 수상식이 함께 거행됐다. 김두식 기자

## 혈액암 처녀에게 헌혈증 모아주고 '언니-동생'

# 아름다운 인연



참담했던 24살의 가을하늘.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던 6년간의 삶. 그러나 오늘 바라본 하늘은 파랗고 싱그러웠다. 박혜경(30)씨는 파란 하늘을 느끼게 해 준 언니와의 인연이 눈물겹도록 고맙기만 하다.

박씨가 재생불량성빈혈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것은 바로 24살 가을, 한 달에 두 차례 수혈과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처지가 됐을 때 이미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언니라고 부르는 이금강심 보살(48)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년여 전. 이보살이 평소 같은 동네에 살던 도반으로부터 박씨의 딱한 사연을 전해들고는 헌혈증 100장을 전해주면서부터다. 10년이 넘게 자원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이보살은 우연히 알게 된 한 대학교수로부터 헌혈증을 얻어 박씨에게 주었다. 헌혈증 한 장만 있으면 수혈비는 반 값. 박씨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박씨는 이보살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나 자연스럽게 언니와 동생이 되었다.

하지만 이보살은 1년여동안 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박씨에게 전화를 했다.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랬던 이보살의 마음이 요즘에 더 편칠 않다. 박씨의 병세가 악화돼 잇몸에서 한 번 출혈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한 달에 1백여만원 이상 드는 수혈비를 혼자 감당해내기 힘들다는 것도 안다.

"골수이식만 하면 나을 수 있을텐데…. 조직이 맞는 사람이 곧 나타날거야." "언니, 미안해요. 그리고 늘 신경써줘서…" 말끝을 잇지 못하는 박씨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보살의 눈에도 어느덧 눈물이 고인다.

011-718-3715(박혜경), 한빛은행 319-193981-02001(예금주 박혜경) 한명우 기자


부처님의 기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빗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봐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 길상사 불교문화 강좌

맑고향기롭게의 근본도량인 길상사(회주 법정)가 '불교 바르게 이해하기' 불교문화강좌를 개설한다.

10일부터 12월29일까지 3개월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2~4시 열리는 문화강좌에서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비롯 불자예법, 참선 실수실참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02)3672-5945 도필선 기자

## 16일 아셈 종교분과 회의

아셈 2000 민간포럼 종교분과 국제회의가 16-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에서 '세계화와 영성, 그 대안적 가치'를 주제로 열린다.

조계종 사회부,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정토회 등 50여개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국제회의는 인간과 생태를 위한 종교·영성적 대안을 모색한다. 김재경 기자


天蓊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棄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불교 생활화의 길잡이 — 현대불교

## 大韓佛教天台宗
### 宗正 金道勇 大禪師

**總務院**
總務院長 田雲德
總務部長 朴德水　教務部長 邊春光
教育部長 金道圓　財務部長 南宮道載
社會部長 李門德　糾正部長 趙珍德
宗正司書室長 朴法傳

**宗議會**
宗會議長 尹德山
副議長 金國星　副議長 裵斗出

**監査院**
監査院長 朱正山
監査委員 李法山

**參議院**
參議院長 朴炯喆
中央信徒會長 金裕赫　宗典研究院長 金煐泰
金剛佛教大學長 李載昌　教仁寺專門講院 金智福

忠北 丹陽郡 永春面 栢子里132-1
☎ 043)423-7100~8, FAX : 043)420-7399

## 大韓佛教眞覺宗

온 세계가 진정으로 하나되어 즐거움을
나누는 2000년 만다라 세상 진각종이
함께합니다.
(JGO : The Joy of Genuine Oneness)

總印 覺海
統理院長 省超

불교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http://www.jingak.or.kr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3 / FAX : 02)913-0755

## 財團法人 大韓佛教 觀音宗

宗正 云工 慧雄
總務院長 李泓坡
副院長 金智攝

總務部長 黃法明　教務部長 洪智默
財務部長 金鏡徹　社會部長 李法炫
監察部長 金垈弘

宗會議長 鄭法輪
副議長 朴松月　副議長 金性哲

教育院長 金東靈
修教部長 尹祿峰　譯經部長 權宗一

布教院長 鄭法性
布教部長 柳牛耕　組織部長 趙法護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 02)763-3345,0054 / FAX : 02)763-5851

## 대한불교조동종
### 종 정 윤지명(德瓚)

승정원장 한춘담(德春)
총무원장 한학봉(德峰)
소희문도회장 강법해(德泉)

총무원부원장 김진법(行元)　서울종무원장 김법공(德龍)
종회의장 최제공(德旻)　강원1종무원장 이덕혜
선원장 임진일(德眞)　강원2종무원장 성혜연(行壹)
율원장 송혜정(德蓮)　경북종무원장 박덕해
감찰원장 박심월(德潭)　경남중부종무원장 양행일
호법원장 김정림(行正)　부산종무원장 정덕정
교육원장 황대은(德牛)　전남종무원장 김행도
문화원장 김일광(行均)　대구종무원장 임덕진
중앙종회부의장 우해륜(行峰)　경남서부종무원장 황행철

宗徒一同

▪ 총무원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152호(원효사內)
TEL : 02)719-7636 FAX : 02)719-7637

## 大韓佛教總和宗
### 현대불교 창간 6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宗正 李東光
副宗正 朱寅鉉 崔慧山
總務院張 全南亭

宗會院張 李萬悟　總務部長 朴賢悟
教育院張(代) 金智悟　財務部長 李法悟
布教院張 朴春海　教務部長 尹大岩
監察院張 白東悟　規正部長 鄭舞碍
文化院張 權海正　社會部長 黃慧光
護戒院張 趙古潭　組織部長 金智慧

各教區宗務院長 諸位

대 중 일 동

##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 창간 6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귀의 삼보 하옵고,
귀사의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오며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종 정 금 파
원로의장 운 명
총무원장 법 홍
포교원장 혜 도
중앙종회의장 민 관

기획실장 : 앙 운　사서실장 : 명 우　총무부장서리 : 무 일
교무부장 : 경 호　재무부장 : 성 엽　사회부장 : 혜 광
감찰부장 : 철 산　종정예경실장 : 도 정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

## 대한불교 선각종

종 정 : 영담 정업 대종사
총무원장 : 청삼 정암 종사

원로원장 법진 (원각사)
종회의장 동명 (정토사)
포교원장 벽해 (고산사)
사정원장 혜운 (금성사)
사무총장 원보 (억불암)
사회복지원장 지훈 (천봉사)
비구니선원장 명지 (자성사)
국제포교원장 각원 (각원사)

종도일동

▶ 총본사(강진옴천사)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
Tel : 061)433-2233 · 433-2311
총무원(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84-10
Tel : 062)361-8070

##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 일
상무이사 선 근

임원 ; 혜운 도형 도의
범추 성열 정관
법진 동진 상월
정덕 법운 상원
자민 성우

110-240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TEL : 02)734-9654~6 / FAX 02)734-3410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 삼각산 도선사

회 주 : 혜 성
주 지 : 광 복

대중일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3
FAX : 02)993-3164